

1950년대 이후 한국 주요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사회적 담론 연구

The Social Discourse of the Major Public Buildings in Korea since 1950

엄운진 Um, Woon Jin
임유경 Lim, Yookyoung
차주영 Tchah, Chu Young

(aur)

기본연구보고서 2017-10

1950년대 이후 한국 주요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사회적 담론 연구

The Social Discourse of the Major Public Buildings in Korea since 1950

지은이 엄운진, 임유경, 차주영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3850000251002008000005호

인쇄 2017년 12월 26일, 발행: 2017년 12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25,000원, ISBN:979-11-5659-161-0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 연구책임

엄운진 부연구위원

| 연구진

임유경 부연구위원

차주영 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이제룡, 이종진, 김병재

| 연구심의위원

김상호 기획조정실장

서수정 건축연구본부장

안재락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최윤경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연구자문위원

강권정예 정예씨출판사 대표

김상호 정림문화재단 팀장

김승범 VWLAB 소장

김홍수 대한건축사협회 선임연구원

김태형 재단법인 목천김정식문화재단 팀장

박성진 월간SPACE 편집장

신진수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유경동 이이케이건축사사무소 대표

윤여갑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이재원 도시건축정류소 대표

정다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사

정현수 한국건축가협회 차장

제1장 서론

공공건축물은 사회에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건축물이다. 공공건축물의 조성과정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데 크게는 건축계와 비건축계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계는 프로젝트를 선도하기 보다는 일정단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계에는 프로그램 기획, 설계, 시공까지를 포함하는 건축조성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비건축계는 건축분야를 제외한 이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일반화된 사회이다.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은 「건축기본법」에서 제시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성과정에서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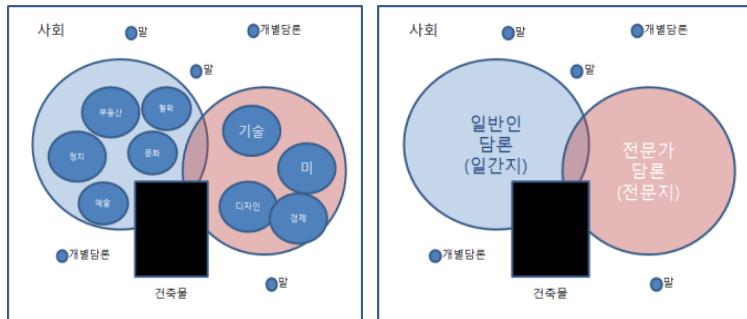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의 조성과정을 주요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계와 비건축계의 입장에서 진행되어온 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의 공공건축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공공건축물의 조성과정에 있어서 담론의 형성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 공공건축물 사회적 담론 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

□ 사회적 담론의 정의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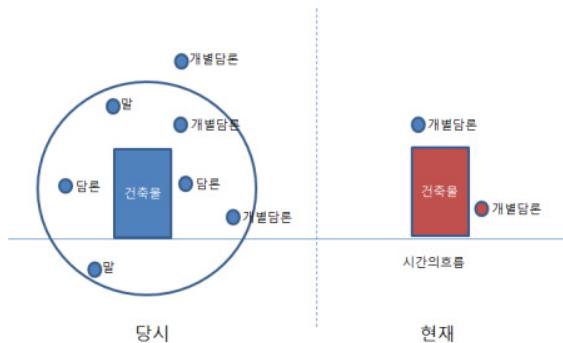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사회적 담론'이란 건축물이 놓이게 되는 사회 속에서 다루어지는 담론을 뜻한다. '담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담론'을 의미한다. 담론의 장은 담론에 참여하는 주

체, 주제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물과 관련한 전문가(생산자), 일반인(이용자)으로 전문가 내에도 정책입안자, 설계자, 기술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담론과 관련하여서 일간지, 전문지 등으로 구분된다.



건축물과 사회적 담론의 구조(주제 및 분야) 건축물과 사회적 담론의 구조(주체 및 매체)

담론은 역사성,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 건축물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담론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시점에 하나의 건축물 담론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담론에 대한 사실이 재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하여 추가적인 담론 형성이 가능한 것이다.



당시의 건축물과 현재의 재구성된 건축물

□ 설계공모 공공건축물

이상현(2013)은 공공건축과 담론 그리고 설계공모의 관계를 ‘공공건축의 규범 만들기’라고 정리한바 있다. 서양의 경우, 전문가와 시민이 공론의 장으로서의 설계공모를 통하여 건축이론과 지식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한국에서는 설계공모를 통하여 조성된 공공건축물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시작하였다.

제3장 1950년대 이후 공공건축물 담론 기초조사

일간지에서의 설계담론은 시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의 전달, 부지선정이나 예산 등 의 문제, 논평 등의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이외에 설계공모 제도에 관한 의견을 보도하는 기사와 설계공모 당선자를 소개하거나 관련자의 인터뷰를 신는 기사 등이 있다.

전문지에서의 설계담론은 설계공모 당선작 및 심사과정 소개, 심사과정 및 당선작에 대한 의견 제시, 설계공모의 가치와 의미, 설계공모 수상작 건축가치 담론들이 다루어졌다.

□ 전문집단과 일반사회에서의 건축

1960년대 초반에는 전문집단의 이야기가 일반사회에서도 소통되어 왔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집단의 발언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점차 건축집단의 발언은 전문지에서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광주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하여 두 집단과의 괴리가 대폭 좁혀지게 된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보존의 문제가 설계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으나 건축가가 직접 나서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기존에는 발주자들인 관료들이 조정과정을 거치고 계획안만을 제시하였으나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대적 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기도 하였고 발언이 강해진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언론지상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특정될 수 있는 주체로서의 대중, 시민이기 때문에 시대 및 건축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의는 다르게 내려진다. 광주아시아문화전당에 있어서는 5.18관련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이었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공공건축물은 건축에 있어서 건축주인 정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건축물들이 기획되고 조성되었다.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통령의 지시사항, 공약 등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기념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 등은 각각 독립관련 단체 및 문화계의 요구에 의한 것도 존재하기도 한다.

□ 설계공모제도에 대한 담론, 논의들

설계공모 제도 자체에 대한 건축계의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자질, 설계공모지침서의 구체적인 수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건축물의 가치판단의 문제 등이 반복되어 이야기되었다. 우수한 건축물이 선정되지 못하는 것이 문화시대에 뒤쳐진다는 지적도 계속 있어왔다.

1960년대 진행된 설계공모에 건축관련 주요 주체들이 다양화되었다. 한국건축가협회는 불공정한 설계공모에 지속적으로 불참을 통하여 부당성을 주장하여왔다. 타 단체소속의 전문가들의 참여로 잠시 혼란이 있었다. 1970년대에 건축단체들이 연대하여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을 제정하면서 제도적인 부분에 대응을 진행하였다.

동시에 설계공모의 진행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 김원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은 한국증권거래소, 독립기념관 등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일간지 및 전문지에서 다루어진 기사빈도를 통하여 4장에서 다룬 주요 공공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22개의 건축물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22개 주요 공공건축물

시기 (설계시기)	프로젝트명	기사건수	
		일간지	전문지
1 1960년대	1967 ~ 1968 정부종합청사(정부서울청사)	3	8
	1968 ~ 1969, 1975 국회의사당		18
3	1973 KBS청사	7	
4 1970년대	1973 서울시민회관(세종문화회관)	10	
5	1975 ~ 1976 한국증권거래소	7	
6 1980년대	1983 독립기념관	4	
	1989 ~ 1990 국립대구박물관	17	
8	1990 전쟁기념관	1	
9 1990년대	1992 정부 제3청사(정부대전청사)	5	
	1995 ~ 2003 국립중앙박물관	4	6
11	2003 ~ 2008 백남준미술관	11	2
12	2004 ~ 20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	14
13	2005 ~ 2012 한강 예술섬	8	3
14	2006 ~ 2008 서울시청사	4	12
15	2007 ~ 2008 동대문디자인플라자	7	
16 2000년대	2007 ~ 2009 전곡선사박물관	2	
	2008 ~ 2009 부산영상센터	6	
18	2008, 2014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 타운(정부세종청사)		9
19	2009 여수 세계박람회장	2	
20	2010 안중근 의사 기념관	3	
21	2010 경기도청사	3	
22	201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3	3

제4장 주요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사회적 담론 분석

3장에서 매체적인 차이로 구분하였다면, 공공건축물을 통하여 다시 사회적 담론을 파악하고자 한다.

1950년 이후라는 시기적인 구분은 있지만, 선행된 프로젝트가 후행에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뜻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시점에서 22개는 시대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22개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각 건축물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사회적인 이슈들과 논의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대별 담론

□ 1960년대 : 정부종합청사, 국회의사당

행정부와 입법부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공공건축물로서는 규모가 큰 건축물이어서 건축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정부종합청사의 경우, 전문가집단에서 발주처의 시공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한 설계사무소 변경이 주요 이슈로 일간지에도 기사화가 되면서 사회적인 담론으로 제기되었다. 국회의사당의 경우도 전문가집단에서 설계공모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일간지에서 잠시 다루어졌다. 이후로 진행과정에 대한 기사화가 있었으나 전문지에서는 준공시점에서 총체적인 이슈제기가 다시 이루어졌지만 일간지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 1970년대 : KBS청사, 서울시민회관, 한국증권거래소

3개의 건축물과 관련하여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KBS청사, 한국증권거래소는 국민적인 관심이 비교적 적은 특수용도의 건축물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민회관의 경우에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대규모 문화시설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요구되었지만, 중요도에 비해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건축물에 대한 소개도 한국적인 모습을 반영하였다는 정도로 다루어졌다.

□ 1980년대 : 독립기념관, 국립대구박물관,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은 전문지에서는 설계와 관련하여 전통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에 대한 비판기사가 많이 다루어졌으나 일간지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교육하는 장소로서 강조되면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국립대구박물관은 일간지, 전문지 모두에서 단신으로 소개된 정도였다.

□ 1990년대 : 정부 제3청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시설의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최초로 신축된 건축물이 계획됨에 따라서 다양한 관심을 받았다. 정부 제3청사 등은 기능적으로 대전으로 기능이 분산되는 정도가 다루어졌고 전쟁기념관 역시 중요하게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 2000년대 : 백남준미술관 외 11개 건축물

2000년대 이전까지 건축물이 10여개이고 이후가 12개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담론이 2000년대에 제시되었다.

2000년대 지어진 건축물과 관련한 담론의 특징 중 하나는 2000년대 후반부터 설계외에도 시공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부처에서도 건축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녹색건축’ 등이 등장하게 되면서 정부방침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라는 설명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친환경건축요소에 대한 설명 등이 그러한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주도한 건축물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행정중심복합도시중심행정타운, 여수 세계박람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4개이며 나머지는 서울의 한강예술섬, 서울시청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부산의 부산영상센터, 경기도의 백남준미술관, 전곡 선사박물관, 경기도청사 등 지자체에서 발주된 건축물들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문화시설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② 용도별 담론

□ 정부청사(서울, 대전, 세종), 서울시청사

정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정부청사는 서울을의 옛 중앙청 건물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로 별도의 건축물이 활용되어 왔다. 1960년대에 현재의 정부서울청사 등으로 통합되었고 이후로 정부부처가 점차 커져왔다. 1990년대의 정부대전청사, 2000년대의 정부세종청사는 수도권의 과밀한 개발을 억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기존의 건축물을 매각하고 부처간 재배치와 관련하여 기획단계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건축물의 설계단계에 대한 논의는 다른 공공건축물에 비하면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일반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획단계에 예산확보를 위하여 기존자산을 처분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일간지를 통해서도 공유되었던 것에 비하면 최근의 정부세종청사의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성과정과 관련하여 자족성 확보의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서울시청사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었던 건축물로 일간지를 통해서 건축물 조성과정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담론이 공유하였다. 정부세종청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성과정 등과 연계하여 자족성의 확보의 차원에서 일간지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 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은 주로 중앙정부, 지자체의 문화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대규모 사업임과 동시에 시민들의 이용이 많다는 점에서 조성과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독립기념관 등과 관련하여서 일반인들에게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서 공감대를 가졌고 기획단계에 대국민 성금모금 등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건축계에서는 설계개념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일간지 등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차원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이라는 점에서 설계자의 개념 등이 일간지, 전문지를 통하여 다양하게 알려졌다. 2000년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설계자가 지역시민사회 요구 등에 대한 직접적으로 설득과 논의의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이고 일간지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경기도, 부산에서 추진되었던 백남준기념관, 전곡선사박물관 및 부산영상센터 등의 사업은 건축물을 통한 지역관광효과 등을 위한 사업으로 상징적인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행되었다. 일간지에서는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전문지에서는 지역정체성 등의 관점에서 다루고자 지역문화정책과 설계공모의 취지와 향후의 전망 등이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한강예술섬,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통하여 사업진행방식이 변경되는 등 논의가 진행되었다.

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 이후 주요 공공건축물을 일간지와 전문지를 통하여 조성과정에서의 담론을 살펴보았다. 건축물에 따라 건축계와 사회가 소통하는 경우가 적은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건축계와 사회가 소통하여 건축물을 조성하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건축가의 생각인 설계개념 등은 전문지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졌지만, 일간지에서는 일부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성과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공감대가 그것이다. 설계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취지와 목적, 설계자들의 생각들이 심사과정 전에도 충분하게 그것을 이용할 대상들에게 공개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공유될 필요도 있다.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가 종료되고 준공시점에서 이용자들에게 공개된 시점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보도자료, 작품집, 건립지 등을 통하여 사업과정 및 결과물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한 기록과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건축물 조성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영역을 대중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주체로서 기자의 역할, 수혜자와 이용자에서 참여자로서의 시민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공감대를 통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영역을 일반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일반인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조성의 담당자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것은 정책, 제도적인 장치로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일간지, 전문지에 속한 기자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동시에 기존의 공공건축물에서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로서의 시민의 관점에서 조성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공공건축물의 조성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역할도 동시에 요구된다.

일간지 및 전문지만으로는 현재의 건축담론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여졌다. 글의 방식이 아닌 말, 영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재에 지나간 시대를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자료로 확장하여 나가면서 다시 그려지는 것이다. 해석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본 연구의 해석은 다양하게 재해석 될 수 있다. 향후 공공건축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되는 것은 담론을 지속적으로 확장함으로서 공공건축물의 담론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에 일간지 및 전문지 자료에서 SNS, 생활지 등으로 추가적인 자료, 매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설계공모로 진행된 공공건축물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매체담론적 연구도 추후에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주제어

공공건축, 사회적 담론, 전문가와 일반인, 건축매체 담론

차례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 연구 주요내용	3
2) 연구의 방법	3
3) 연구의 범위	5
3. 선행연구 검토	6
1) 선행연구현황	6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4. 연구의 흐름	8

제2장 공공건축물 사회적 담론 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

1. 사회적 담론의 개념	9
2. 담론의 장으로서의 매체	14
1) 사회적 담론을 파악하기 위한 매체의 성격	14
2) 매체의 다양성과 최근의 흐름	15
3. 공공건축물과 사회적 담론	17
4. 본 연구에서의 용어 정의	18

제3장 1950년대 이후 공공건축물 담론 기초조사

1. 일간지를 통해 본 공공건축물 담론	19
1) 조사 개요	19
2) 일간지의 공공건축물 주요 담론	23
3) 주요 공공건축물 (담론형 기사 빈도수 기준)	27
2. 건축전문지를 통해 본 공공건축물 담론	30
1) 조사 개요	30

차례

CONTENTS

2) 전문지의 공공건축물 주요 담론	31
3) 설계공모 관련 전문지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	32
3. 주요 공공건축물 선정	38
1) 일간지와 전문지 상의 주요 공공건축물	38
2) 주요 공공건축물 종합	40

제4장 주요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사회적 담론 분석

1. 1960년대 : 행정 및 입법시설	42
1) 정부종합청사(정부서울청사)	42
2) 국회의사당	51
2. 1970년대 : 사회 공공서비스 시설	60
1) KBS청사(한국방송공사청사)	60
2) 서울시민회관(세종문화회관)	63
3) 한국증권거래소	67
3. 1980년대 : 대규모 문화시설	70
1) 독립기념관	70
2) 국립대구박물관	75
3) 전쟁기념관	78
4. 1990년대 : 문화, 행정시설 재배치	82
1) 정부 제3청사(정부대전청사)	82
2) 국립중앙박물관	85
5. 2000년대 : 지자체의 본격시행, 균형발전정책 등에 따른 공공건축 다양화	95
1) 백남준미술관(백남준아트센터)	95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98
3) 한강 예술섬(서울공연예술센터, 노들꿈섬)	104
4) 서울시청사	108
5) 동대문디자인플라자(동대문역사문화공원)	113
6) 전곡선사박물관	117
7) 부산영상센터(두레라움, 영화의 전당)	120
8) 정부세종청사(중심행정타운)	124
9) 여수세계박람회장	130

차 례

CONTENTS

10) 안중근의사기념관	132
11) 경기도청사	135
1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137
6. 소 결	142
1) 시기별 특징	142
2) 조성과정별 특징	143
제5장 결론	
1. 주요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담론 흐름	147
1) 건축물 용도별 담론	147
2) 사업추진 주체별	148
3) 시대별 건축담론의 흐름	149
4) 전문집단과 일반사회에서의 건축	150
5) 설계공모제도에 대한 담론, 논의들	151
2. 새로운 담론을 위한 방향	152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53
참고문헌	155
Summary	157
부록1	161
부록2	206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선행연구 현황	6
[표 3-1] 조사대상 일간지 목록과 자료 출처	19
[표 3-2] 일간지 공공건축 설계공모 기사 수(연도별)	20
[표 3-3] 일간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기사 수(매체별)	21
[표 3-4] 일간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기사 수(시기별, 매체별 종합)	21
[표 3-5] 건축용도별 설계공모 사업건수	22
[표 3-6] 주요 건축용도(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설계공모 사업건수(연도별)	22
[표 3-7] 기사 유형별 구분	23
[표 3-8] 기사 유형별 구분(연도별)	23
[표 3-9] 일간지 주요 공공건축물(담론형 기사의 빈도수로 선정)	27
[표 3-10] 전문지 개요	30
[표 3-11]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	33
[표 3-12] 일간지의 주요 공공건축물 목록	38
[표 3-13] 전문지의 주요 공공건축물 목록	39
[표 3-14] 주요 공공건축물 종합	40
[표 4-1] 정부종합청사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48
[표 4-2] 정부종합청사 주요 담론	49
[표 4-3]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정부종합청사	50
[표 4-4] 국회의사당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58
[표 4-5]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국회의사당	58
[표 4-6] KBS청사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62
[표 4-7]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국회의사당	62
[표 4-8] 서울시민회관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66
[표 4-9]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서울시민회관	66
[표 4-10] 한국증권거래소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68
[표 4-11]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증권거래소	69
[표 4-12] 독립기념관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74
[표 4-13]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독립기념관	74
[표 4-14] 국립대구박물관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76
[표 4-15]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국립대구박물관	77
[표 4-16] 전쟁기념관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81
[표 4-17]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전쟁기념관	81
[표 4-18] 정부대전청사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84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4-19]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정부제3청사	84
[표 4-20] 국립중앙박물관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93
[표 4-21]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국립중앙박물관	93
[표 4-22] 백남준미술관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97
[표 4-23]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백남준미술관	97
[표 4-2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102
[표 4-2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민대토론회 친반	102
[표 4-2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담론(도청별관 보존 문제)	103
[표 4-27]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국립아시아문화전당	103
[표 4-28] 한강예술섬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107
[표 4-29]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노들섬	107
[표 4-30] 서울시청사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112
[표 4-31]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서울시청사	112
[표 4-32]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116
[표 4-33] 전곡선사박물관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119
[표 4-34]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전곡선사박물관	119
[표 4-35] 부산영상센터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122
[표 4-36]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부산영상센터	123
[표 4-37] 중심행정타운 간담회 참여자별 주요 내용	126
[표 4-38] 정부세종청사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128
[표 4-39]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정부세종청사	128
[표 4-40] 여수세계박람회장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131
[표 4-41]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정부세종청사	131
[표 4-42] 안중근의사기념관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134
[표 4-43] 경기도청사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136
[표 4-4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141
[표 4-45]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141
[표 4-46] 주요 공공건축물 설계단계별 사회적 주요담론_일간지	144
[표 4-47] 주요 공공건축물 설계단계별 사회적 주요담론_전문지	145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공공건축과 관련한 일련의 작품집	2
[그림 1-2] 연구흐름도	8
[그림 2-1] 건축행위의 구분	11
[그림 2-2] 분석예시(동대문디자인플라자 생산구조에서의 개별 토론장의 작용)	11
[그림 2-3] 건축물과 사회적담론의 구조(주체 및 매체)	12
[그림 2-4] 건축물과 사회적담론의 구조(주제 및 분야)	12
[그림 2-5] 당시의 건축물과 현재의 재구성된 건축물	13
[그림 2-6] 영화 '말하는 건축가', '말하는 건축'	15
[그림 4-1] 건축은 없다?	87
[그림 4-2] 국립중앙박물관 건축개념과 이미지	90
[그림 4-3] 노들섬프로젝트 -설계사무소DMP 발간 책자 표지	105
[그림 4-4] 22개 주요 공공건축물 조성시기와 대통령,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임기	146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의 흐름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공공건축의 조성과정에 대한 이해

한국현대건축에서 공공건축물은 공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용도의 공공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주체가 향유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조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그동안 급격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공공건축과 관련한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한 파악은 향후 좀 더 나은 공공건축 조성과정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기 살펴보기 위한 시점에 도래하였다.

□ 사회적 담론을 파악하기 위한 설계공모로 진행된 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의 담론과 관련하여서 있어서 발주자, 건축주, 설계자, 심사위원, 이용자, 평론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설계공모로 진행된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담론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건축물의 조성과정에서 기획단계에서는 발주처로서의 정부, 운영위원회 설계단계에서는 건축사, 선정과정에서의 심사위원회, 이용과정에서의 이용자 및 평론가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참여하는 주체들의 담론을 파악하기에 적당한 대상이다.

□ 설계공모로 진행된 공공건축물의 담론 현황

설계공모 공공건축물은 특정 건축가가 아닌 다양한 건축가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요구된 지침에 대해서 설계로 응답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담론의 대상으로 적정하나 설계공모에 각 작품별 특징들에 대한 연구 등은 당선작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졌다. 설계공모는 공공의 사업을 특정 사무소가 아닌 다양한 참여를 전재로 한다는 점에서는 형식적으로 공정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논의가 무엇이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는 전문가영역에서만 다루어진 담론이었는지 사회에서도 공감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으로서 향후 공공건축물의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 공공건축물의 사회적 담론을 위한 기초연구

본 연구는 공공건축의 조성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담론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기 위한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기초연구로서 제시되었다. 기존 설계공모 작품집은 공모에 참여한 설계안을 수록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담론화할 수 있는 것은 심사평 정도이며, 비평이나 전문잡지를 통해서만 일부 논의가 진행되어 일반인들에게 공공건축의 가치를 재인식시키고 중요성을 강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부 학술지, 연속간행물 등을 통하여 주요 설계공모 과정에 대한 기록들이 일부 소개된바도 있으나 일부 참여자들의 회고 등의 형태로만 알려지는 상황이다.¹⁾ 최근에 대형설계공모였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세종시내 주요 공공건축을 대상으로 한 단행본 등은 조성과정에 대한 소개 등이 일부 다루어지고 있다.



[그림 1-1] 공공건축과 관련한 일련의 작품집(국립중앙박물관 국제설계경기 작품집(1995),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13),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 이야기(2016))

1) 박인석(2006 겨울), “한국 도시상황과 주거건축-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설계경기 심사 참관기”, 건축과 사회 통권 제6호, pp.151-155.

설계공모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주제들이 무엇이었고 각 심사위원들간에 주요 논의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담론의 주제와 형식 변화
 - 주요 공공건축물을 통한 담론의 주요 주체와 주제를 한국 현대건축의 사회적 담론구조를 파악함
- 공공건축물 조성단계별 사회적 담론과 그 영향
 - 설계분야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공공건축물 관련 담론을 조성단계 전반으로 확대하여 검토함으로서 조성단계별 사회적 담론을 파악함
- 공공건축물에 관련한 올바른 사회적 담론 형성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형성방안 제시
 - 공공건축물의 조성과정에서의 사회적 담론의 활용과 사회적 담론 활성화와 주체들간의 활발한 소통 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주요내용

-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조사를 통한 공공건축의 사회적 담론분석 틀 도출
 - 사회적 담론에 대한 개념적 정립
 - 일간지, 전문지 등을 활용한 담론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검토
- 일간지, 전문지 등에서 나타난 공공건축물의 주요 담론
- 향후, 공공건축물 사회적 담론형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 주제들 제시
 - 각 주체별 공공건축물의 주요 담론의 차이

2) 연구의 방법

- 일간지 및 건축전문지에 설계공모로 진행된 공공건축물 문헌조사

- 사회적으로 논의되었던 담론을 파악하기 위한 일간지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활용(매체별 창간~1999), 각 일간지 홈페이지(2000~현재)하여 설계공모(현상설계, 설계경기)로 진행된 자료 정리
- 건축분야 전문가 집단의 담론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축전문지, 건축관련 학회 기관지
 - 건축전문지로는 1966년 창간된 공간(SPACE)지
 - 건축관련단체 및 협회 기관지로는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 한국건축가협회의 '건축가', 대한건축학회의 '건축'

□ 자료의 정리

첫째, 일간지, 건축전문지에서 설계공모(현상설계, 설계경기) 등으로 검색되는 기사를 목록화한다. 둘째, 검색된 설계공모 기사 중 공공건축물에 해당하는 것만 구분한다. 셋째, 기사를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사와 사설, 칼럼, 기획 및 연재 기사 등 담론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사로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 자료의 분석

- 1950년대 이후 공공건축물 담론 기초조사 (제3장)

첫째, 일간지 및 전문지에서 기사의 성격과 무관하게 많이 언급된 주요 건축물을 빠로별로 선정하여 정리한다. 둘째, 일간지에서 1-2건 정도에 그치는 것들은 제외하고 전문지에서 언급된 건축물과 겹치는 대상을 선정한다. 셋째,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사를 추가적으로 검색한다. 현재의 기사는 키워드 상으로 설계공모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기사를 다시 조사한다. 넷째, 기사를 바탕으로 공공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담론을 조성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이를 통하여 공공건축물 각 조성단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파악한다.

- 주요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사회적 담론 분석 (제4장)

기사 중 담론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담론을 각각 정리하고 매체별 차이를 비교한다.

□ 전문가 자문회의

- 공공건축물은 사회적 담론과 관련하여서 건축분야와 사회분야의 전문가 대상
- 공공건축물의 사회적 담론의 시사점과 관련한 매체관계자 대상

3) 연구의 범위

□ 시대적 범위

시기는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한정한다. 연구의 자료를 정리에 있어서는 1950년부터 2010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건축물 조성과정이 길기 때문에 사업의 시작이 2010년에 시작되었다면 이후까지도 포함하였다.

□ 공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는 한국에서 진행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한국의 건축가가 참여한 해외 공공건축물은 제외하였다. 다만, 해외의 건축가가 참여한 국내 공공건축물은 포함하였다.

□ 공공건축물의 범위

공공건축물은 정부(중앙 및 지방)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공모로 진행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주제가 되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대상을 연구범위로 선정하기 위해서 일간지, 건축전문지에서 다루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공공건축²⁾ 중 공간환경을 제외한 건축물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 용도 중 주거용도의 건축물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제외하였다.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으로,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의미함.

3.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현황

□ 도시설계 이론 및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한국의 도시설계의 특징을 위한 담론적 연구로 권영상(2008)은 패러다임을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오성훈(2011)은 서구도시건축이론이 한국에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서구도시건축이론을 ‘공간구조 및 가로체계’, ‘건축물과 가로의 관계’, ‘커뮤니티 개념의 적용’, ‘경관에 대한 고려’, ‘녹지의 처리방식’의 5개의 틀로 구분하고 1960년대 이후 주요사례 20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공공건축물 담론관련 연구

최근, 건축계에서는 공공건축물의 담론 관련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김승범(2012)은 공공건축물의 작업장과 토론장과의 관계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3개의 건축물-시애틀공공도서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그라운드제로- 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건축물 관련 기사들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디자인에 있어서 주요 주제들과 관계를 파악하였다. 박정현(2016)은 독립기념관을 사례로 참여건축가를 중심으로 담론을 어떻게 다루어왔는지를 인터뷰와 당시 건축물 조성과정 기록물인 건립사, 전문지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표 1-1] 선행연구 현황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과제명: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auri)	-이론고찰 -도시공간분석	-한국 도시공간의 현황 -한국 도시설계의 특성
-연구자(년도): 권영상, 엄운진(2008)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1960년대, 80년대, 2000년대
-연구목적: 한국의 도시에 적합한 도시 설계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함		시기별 창원, 분당, 세종시 사례분석 -한국도시설계 패러다임
-과제명: 한국 도시설계에 적용된 서구 도시건축이론의 원전의 재고(auri)	-검토 및 핵심개념 도출	-서구 도시건축이론의 흐름과 주요개념 * 공간구조 및 가로체계, 건축물과 가로의 관계, 커뮤니티 개념의 적용, 경관에 대한 고려, 녹지의 처리방식
-연구자(년도): 오성훈, 차주영(2011)	-한국 도시설계관련 보고서, 문헌에	
-연구목적: 한국의 도시설계에 적용된 핵심개념의 도출 및 분석		
서구 건축도시이론의 현황 고찰, 한국의 도시설계와 서구건축이론의 괴리	-주요 도시설계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분석 -1960년대 이후 각 시기별 주요	-서구 도시건축이론의 적용사례 분석
의 도시설계와 서구건축이론의 괴리	한 자문 및 인터뷰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및 한계점, 한국의 도시설계 발전에 요구되는 이론적 토대의 형성을 위한 방향제시	-기존 도시설계안, 도시설계 결과 -건축도시이론 핵심개념의 적용 여부 및 적용시 영향력 검토	사례분석(총20개소) 에 대한 기존 평가문헌 검토
-과제명: 독립기념관의 건립과정과 담론 변화에 관한 연구 ³⁾ -연구자(년도): 박정현(2016) -연구목적: 돋립기념관을 대상으로 건립과정을 재구성하고, 참여한 건축가들의 역할과 관계를 통하여 준공이후 어떤 담론을 점유하였는가를 추적함	-문헌조사 : 건립과정 파악을 위한 독립기념관조사,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관건립사, 문지기 -한 당시 논의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인터뷰 : 김원우 -기준 -독립기념관을 둘러싼 개념의 전유 -1980년대 한국 건축의 포스트모더니즘 -김기웅의 포스트모더니즘 -외부공간과 마당	-독립기념관의 건립과정 : 현대건축의 표상 능력에 대한 불신 : 돋립기념관의 두 건축가 김원과 김기웅 -독립기념관을 둘러싼 개념의 전유 : 1980년대 한국 건축의 포스트모더니즘 -김기웅의 포스트모더니즘 -외부공간과 마당
-과제명: 공공건축물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연구자(년도): 김승범(2012) ⁴⁾ -연구목적: 토론장이 작업장과 영향을 주고 받으며 담론과 작업의 영역을 확장하는지 파악	-언론기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주제 도출 -3개 분석사례를 중심으로 조성과 정리, 주요 토론장과 작업장의 주요 주체별 논의사항 정리 및 비교 -디자인 주요 키워드 도출 및 관계 망 분석 -사업추진과정에 주요 기사수 정리	-분석 틀의 구축 : 토론장과 작업장 -개별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시애틀공공도서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그라운드 제로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 -토론장과 작업장으로서의 건축생산 -과정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설계공모로 진행된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에서의 담론을 고찰함으로서 향후 공공건축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설계공모에 대한 제도적인 비평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것 외에도 건축물 조성과정에 대한 전반을 다룬다. 기획단계에 있어서 공공건축의 정책과정과 준공 이후의 사용단계에 있어서 사회적인 평가 등에서 다루고자 한다.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주로 건축가의 설계의도, 작품비평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일부 사회적인 흐름에서의 건축을 다루어졌으나 좀 더 구체적인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건축물을 둘러싼 논의는 건축내부에서만의 문제였는지 국민, 사회와 공감을 이루어왔는지 그렇지 못하였다면 무엇 때문이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기존연구와 큰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3) 박정현(2016.12), 독립기념관의 건립과정과 담론 변화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학회, Vol.25 No.6(통권 109호), pp73-80.

4) 김승범(2012.8), 공공건축물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4.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진행과정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 연구흐름도

제2장 공공건축물 사회적 담론 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

-
- 1. 사회적 담론의 개념
 - 2. 담론의 장으로서의 매체
 - 3. 공공건축물과 사회적 담론
 - 4. 본 연구에서의 용어 정의
-

1. 사회적 담론의 개념

□ 선행연구에서의 담론

담론이란 사전적 의미로 “1.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논의함, 2. <문학>소설에서, 서사구조의 내용을 이루는 서술 전체, 3. <언어> 한 문장보다 더 큰 일련의 문장”이다.¹⁾ 작은 범위에서는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뜻하며, 문학이나 언어에서는 하나의 구조를 이루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뜻한다. 사회적인 의미로 확장하자면 하나의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 구조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조희연(2003)²⁾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경제 사회의 행위자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정당화하기 위해 창출하는 논리성을 갖는 언술 체계 혹은 넓은 의미에서의 지식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푸코(M.Foucault)는 담론이 ‘무엇’인가보다‘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어떤 시대에, 어떤 조건 속에서 담론이 생성되고 변화하는지에 주목했다.³⁾ 담론에 많은 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담론의 다양한 형태 및 포함하는 내용이 개인을 넘어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 인식과 실천의 방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⁴⁾

1) 네이버사전 <http://dic.naver.com/>

2) 조희연(2003),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정재철(2014), 「문화연구의 핵심개념」, 커뮤니케이션북스, p.28에서 재인용.

3) 미셸 푸코, 이정우 해설(1993), 「담론의 질서」, 새길.

□ 건축도시분야에서의 담론 연구 주제 및 방법

건축담론이란, 건축분야에서 주고 받으며 논의되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을 생산하는 건축생산자들의 설계의도에 대한 부분들과 더불어 평론가, 이용자들에 의해서 논의되는 완공 이후의 담론장이 존재하였다. 간혹 설계공모 단계에 있어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생산단계의 다양한 대안들을 선택하는 논의도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정인하(2006)⁵⁾는 1950-60년대 한국건축의 기술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참여하였던 주요 건축물, 인물들을 통하여 기술적인 담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당시 주요 기사를 통하여 주요 건축가, 작품을 선정하고 주요 건축기술에 관한 글들을 통하여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미경·김한배(2009)⁶⁾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신문기사, 학술논문, 잡지 등 106 건의 기사들을 도시담론의 유형으로 정리하는 텍스트분석과 담론분석 이념집단간 논쟁 구조분석의 담론실천분석, 담론분석 결과도출로 진행하였다.

이제아·성종성(2015)⁷⁾는 서울숲을 대상으로 블로그에서 이루어지는 미시담론을 연구하였다. 그 대상이 조성이후 이용단계에 있어서 각 시기별 주요 담론을 정리하고 형성요인 및 해석을 진행하였다.

도연정·전봉희(2016)⁸⁾는 1920-30년대 부엌을 대상으로 동아일보 기사를 텍스트로의 미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주요 영향력을 가지는 단어를 도출하고 주요 담론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승범(2012)⁹⁾은 담론이 이루어지는 담론의장을 관련하여 물리적 실체의 영역으로서의 ‘작업장’, 말의 영역으로서의 ‘토론장’으로 구분한바 있다. 건물생산단계와 완공이 후로 구분된다. 건물생산단계에는 물리적 실체의 영역으로서 ‘작업장’이 존재하고 발주처 및 건축가가 참여하여서 도면, 이미지, 모형, 텍스들이 있다. 또한 말의 영역으로는 ‘토론장’이 존재하며 일반인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서 말과 담론이 존재하는 말의 영역으

4) 조희진(2010), 미디어에 나타난 의류 재활용 관련 담론과 사회적 논의 방식, 실천민속학연구 16, p.131.

5) 정인하(2006.1), 1950-60년대 한국건축의 기술적 담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권 1호 (207호), p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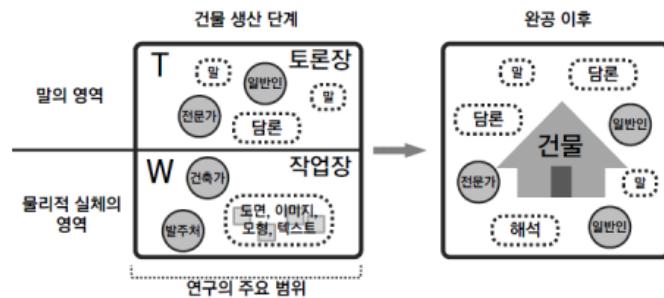
6) 이미경·김한배(2009), 청계천복원관련 담론분석을 통한 환경인식 지형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36권 제9호, pp.102-114.

7) 이제아·성종상(2015.2), 블로그(blog)에 나타난 도시공원 미시담론, 한국조경학회지 제43권 1호, p.p2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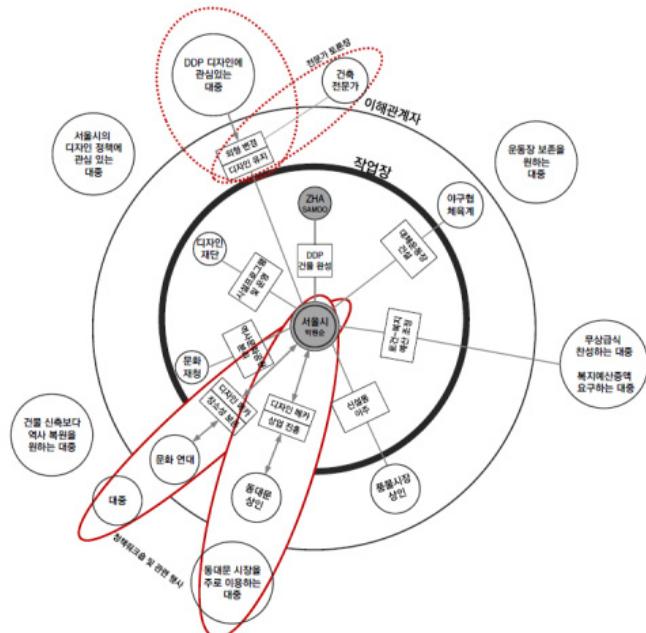
8) 도연정·전봉희(2016.7),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1920-30년대 부엌담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3권 7호, pp.29-36.

9) 김승범(2012), ‘공공건축물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로 구분된다. 완공 이후에는 전문가, 일반인이 말, 담론, 해석 등으로 건물을 둘러싸게 된다. 시애틀공공도서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그라운드제로의 사례를 통하여 토론장과 작업장의 전개, 디자인에 관한 담론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토론장과 작업장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그림 2-1] 건축행위의 구분 (출처 : 김승범(2012),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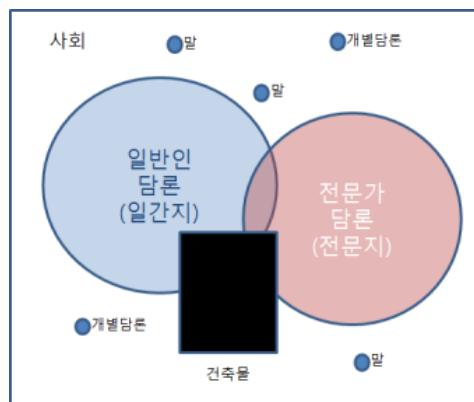
[그림 2-2] 분석예시(동대문디자인플라자 생산구조에서의 개별 토론장의 작용)
(출처 : 김승범(2012), p364)

□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담론 그리고 주체, 담론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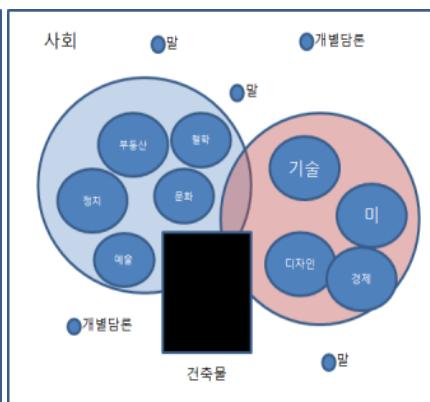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의 담론이란 건축물과 관련하여서 관계한 주체들이 표현한 의사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다.

건축물과 사회적 담론을 개념화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담론구조는 크게 일반인 및 전문가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인의 담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일간지를 선정하였고, 전문가의 담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문지를 선정하였다. 각각은 서로 다른 담론을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물을 각각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건물생산과 관련하여서 건축 설계라는 생산자의 관점에서, 일반인은 이용자의 관점에서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진다. 이와 별도로 주요 담론으로 형성되지 못하는 개별 말의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들과 집단화되지 못한 개별담론이 존재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사회적 담론’이란 건축물이 놓이게 되는 사회 속에서 다루어지는 담론을 뜻한다. ‘담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담론’을 의미한다. 담론의 장은 담론에 참여하는 주체, 주제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물과 관련한 전문가(생산자), 일반인(이용자)으로 전문가 내에도 정책입안자, 설계자, 기술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담론과 관련하여서 일간지, 전문지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2-3] 건축물과 사회적 담론의 구조(주체 및 매체)



[그림 2-4] 건축물과 사회적 담론의 구조(주제 및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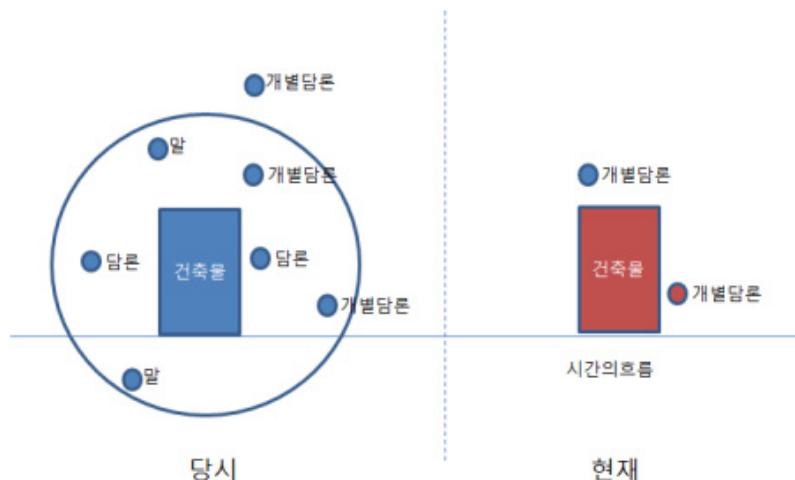
□ 담론의 시간성 : 당시의 건축에 대한 담론과 현재의 담론(혹은 표상)

건축물이 만들어지던 당시의 건축물과 관련하여서 논의되었던 수많은 담론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역사가 지난 이후에 현재라는 시점에서 그 건축물과 관련하여서 논의되었던 담론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라는 시점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그 건축물을 다시 구성하여 낼 수 있을 것인지, 관점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일간지, 전문지라는 매체에 표상되었고 담론이 만들어져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매체를 확장하고 당시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 등을 통하여 사실이라는 부분보다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건축물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건축물이 현재에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건축물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단일한 건축물에 대한 담론은 건축내부의 담론에만 한정되어 다루어져 왔다. 건축물이 놓이게 되는 사회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문화’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들로 확장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건축물을 인식하고 이야기하는 담론구조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 우리는 이용자, 건축적 논의들로 불안정하게 진행되어 왔다면 향후에는 정치, 경제, 문화적인 관점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건축물을 온전하게 “사회적 담론”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5] 당시의 건축물과 현재의 재구성된 건축물

2. 담론의 장으로서의 매체

1) 사회적 담론을 파악하기 위한 매체의 성격

건축물은 사회구성원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점에서 익숙하다. 건축물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은 각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자의 생각이 표현되고 대화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면서 그것은 크고 작은 담론을 만들어낸다. 담론은 '매체'를 통하여 유통되고 공유된다.

□ 전통적인 매체로서의 일간지 및 전문지

일간지는 매일 다양한 뉴스를 통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매체의 성향을 나타내는 편집장의 의도나 기자의 특성, 논설 등에 따라서 각 매체별로 성격이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특정 매체로 한정하지 않고 매체를 다양화한 경우 이러한 부분은 일정부분 해소를 할 수 있다.

전문지는 매일의 소식보다는 월간 단위의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기획하여 기사화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당시의 시대상을 기록하는 다른 자료가 없는 한국건축의 현실 속에서 거의 유일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건축전문지별로 매체들이 중요하게 다루었던 건축물, 주제들에 대한 차이도 확인 할 수 있다.

일간지 및 전문지는 일회적인 성격의 방송과는 달리 활자화된 매체로서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간지 및 전문지는 좀 더 영향력이 있다.

□ 건축전문가들의 담론의 장으로서 학·협회 전문지

한국현대건축에서 전문가 집단은 학회와 협회를 중심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다양한 학회들이 존재하지만, 195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서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단체는 현재 건축3단체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표성을 가지는 조직이다.

□ 각 매체별 주체(화자), 주제(이야기)

일간지 및 전문지의 담론구조는 각각 사회와 전문분야에서 일반인과 전문가가 각각 건축물과 관련하여 어떤 주제를 다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담론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사회인(일반인)의 영역’과 ‘전문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단일한 건축물이 서로에게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다른 ‘관점’에서 논의되고 이야기되고 있다. 서로 다른 토대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는 차이가 무엇인지를 3장과 4장에서 다루며, 올바른 사회적 담론 형성을 위한 시사점을 5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2) 매체의 다양성과 최근의 흐름

□ 최근의 담론의 생산 수단으로서의 매체의 다양화

최근의 일반인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기 위한 매체는 건축분야 대중서들, 블로그 등으로 다양하다. 담론을 만들어내는 방식 또한 출판의 방식 뿐만 아니라 전시,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영화 및 방송의 영상은 도시건축의 대중화를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영화 ‘말하는 건축’, ‘말하는 건축가’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말하는 건축’은 본 연구의 방향과 매우 유사하다. ‘서울시청’이라는 건축물에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의 건축사, 시공자, 시청관계자 뿐만 아니라 서울시청을 이용하는 다양한 일반인들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6] 영화 ‘말하는 건축가’, ‘말하는 건축’

출처 :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88793>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94185>

□ 집단화된 기존의 매체에서 1인 미디어 등 개별적 담론의 강화

최근 각 매체의 정체성은 변화하고 있다. 집단을 통해서 논의되었던 구조는 인터넷에 기반한 다양한 매체적 성격을 가지는 플랫폼 등으로 개별화된 화자로 바뀌고 있다. 개별적 인 주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은 사회에 노출되어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기존의 매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담론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담론분석을 위해서는 새로운 매체, 소통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1950년 이후의 공공건축물이라는 연대기적인 흐름 속에서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매체, 연구는 다루지 않았다. 다만, 결론부분에서 이러한 흐름과 경향을 고려하여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일간지 내 전문기자의 등장 및 건축전문 출판사

한겨레의 구본준, 이세영 기자 등은 기존 일간지 내에서 건축과 관련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건축전문기자는 아니지만, 문화부, 사회부 기자로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건축과 관련하여 대중화된 단행본의 형태로 출간함으로서 건축담론을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구본준의 '세상에서 가장 큰 집', '구본준의 마음을 품은 집' 등을 통하여 건축을 쉽게 소개하였고, 이세영의 '건축 멜랑콜리아-한국 근현대 건축·공간 탐사기'는 대표적인 건축물과 장소를 대상으로 정치,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루었다.

건축분야만 다루는 발언, 스페이스타임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정예씨, 아키티브원스, 집(도서출판) 등의 출판사는 건축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출판사나 건축을 주로 다루는 마티, 핏셀하우스 등의 출판사가 등장하였다. 건축가가 서울시청의 설계공모 과정을 배경으로 쓴 소설 '건축의 빛(이종건, 2015)'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3. 공공건축물과 사회적 담론

□ 사회와 건축의 관계

사회학자 홍성태(2012)¹⁰⁾는 사회와 건축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앞서 사회적 담론의 구조에 있어서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인 자연, 역사, 경제, 정치, 기술, 예술, 도시, 일상, 여성, 군대, 상가, 광장, 조경, 재건축으로 살펴본바 있다. 그동안 건축은 주로 미학적 관점을 위주로 논의되어왔다. 최근에서야 정치, 사회라는 관점에서 건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통되는 대상인가라는 점에서도 그렇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 관점은 사회적 담론이라는 것은 건축이 관여된 사회의 다양한 주제들과 관련되어 있고 주제별 전문가들의 관점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공공건축과 담론 그리고 설계공모

이상현(2013)은 우리나라의 공공건축과 담론 그리고 설계공모의 관계를 ‘공공건축의 규범 만들기’라고 정리한바 있다. 공공건축을 “유럽에서 18세기 이후 시민계급으로 대표되는 대중과 그들을 중심으로 한 공론장이 형성되면서 등장한 건축개념”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건축의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가 요구되었고 그것이 가능한 공론의 장이 바로 ‘설계공모’였다. 주관적인 취향으로서 개별 관점들은 공론의 장에서 논쟁과 합의를 거쳐 미적판단의 기준으로서의 ‘공통의 감각’을 형성하여 왔다. 하지만,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이러한 한계로 미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아서 ‘새로움’이라는 미적 가치에만 치중하고 있고 지적인 기반이 약한 어휘들만이 사용되고 있다. 공론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건축가는 사회, 지식인, 대중과 소통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건축이론과 지식체계의 발전이 필요하다.¹¹⁾

본 연구도 이러한 관점에서 ‘설계공모로 진행된 공공건축물의 사회적 담론’을 주제어로 제시하였다. 해외에서와 같이 설계공모를 통하여 사회의 공공건축물이 규범으로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의 현실에서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를 통하여 새로운 공공건축의 가치와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정녕 불가능한가?라는 인식도 있다.

10) 홍성태(2012), 「사회로 읽는 건축」, 진인진.

11) 이상현(2013), 「대한민국에 건축은 없다」, 효령출판, pp.206-223, 정리.

4. 본 연구에서의 용어 정의

앞서 살펴본 개념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담론과 주요담론

담론은 발화자의 담화가 사회구조를 통하여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담론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찬반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토론과 구분된다. 즉, 일간지 및 전문지로 출판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사회에 유통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담론의 위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담론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데 매체적인 속성과 연계하여서는 ‘매체담론’으로 가치체계와 관련한 논의의 관점에서는 ‘가치담론’,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는 ‘제도담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담론은 사회에서의 영향력에 따라서 다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다루어지게 되는 것을 ‘주요담론’으로 구분한다.

□ 사회와 사회적

사회란 사회구성원을 통하여 만들어진 집단을 의미하고 사회적이란 사회의 속성을 가진 것이다. 담론과 연계하여서 사회란 담론이 소통되는 사회구성원의 집단범위를 뜻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건축과 관련한 전문가 집단을 뜻하는 ‘건축사회’와 그들을 제외한 집단을 ‘일반사회’로 구분하였다. 사회구성원으로서 건축전문집단이 속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사회’는 일반사회에 속하는 개념이다.

□ 사회적 담론과 사회적 주요담론

앞서 살펴본 담론과 사회라는 정의에 따라서 ‘사회적 담론’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이야기 한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으며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주제들은 ‘사회적 주요담론’으로 구분한다.

제3장 1950년대 이후 공공건축물 담론 기초조사

1. 일간지를 통해 본 공공건축물 담론
 2. 건축전문지를 통해 본 공공건축물 담론
 3. 주요 공공건축물 선정
-

1. 일간지를 통해 본 공공건축물 담론

1)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일간지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겨레
일간지는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담론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매체이다.
1950년 대 이후 공공건축과 관련한 사회적 담론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일간지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와 한겨레 등 6개 매체
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표 3-1] 조사대상 일간지 목록과 자료 출처

전문지	창간	자료 출처
조선일보	1920.3.5.	조선일보 홈페이지 http://www.chosun.com/
동아일보	1920.4.1.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및 동아일보 홈페이지 http://www.donga.com/
중앙일보	1931.9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joongang.joins.com/
경향신문	1946.10.6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경향신문 홈페이지 http://www.khan.co.kr/
매일경제	1966.3.24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매일경제 홈페이지 www.mk.co.kr
한겨레	1988.5.15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한겨레 홈페이지 http://www.hani.co.kr/

□ 조사 방법

일간지 기사검색은 네이버의 뉴스검색엔진과 각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를 활용하였다.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겨례의 창간부터 1999.12.31. 일까지의 자료에 한정되어 있어, 이후의 기사와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기사는 각사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시기적으로 195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사 중, 1차적으로 '설계공모, 설계경기, 현상 공모'를 키워드로 검색되는 기사를 수집하고, 2차적으로 공공건축에 해당하는 기사만을 도출하여 1198건의 기사를 정리하였다. 3차적으로 주택, 공원 관련 사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696건의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관련 기사를 선별하였다.

□ 조사 결과 요약

696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연도별, 매체별, 건축용도별, 기사성격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연도별

시기별로 살펴보면, 1990년 대 이후 설계공모 공공건축물 관련 기사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체 기사의 약 90%가 1990년대 이후의 기사다. 최초의 기사는 1963.7.30 일자 경향신문과 1963.7.31 일자 조선일보 기사로 1500석 규모의 시립남대문도서관 설계를 현상공모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표 3-2] 일간지 공공건축 설계공모 기사 수(연도별)

	1950~1970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10	계
기사 수	11	11	52	213	409	696
비율	1.6%	1.6%	7.5%	30.6%	58.8%	100

- 매체별

매체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동아일보, 한겨례 순으로 기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2001년 이후 기사가 급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 일간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기사 수(매체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겨레	계
기사 수	155	90	144	123	103	81	696

[표 3-4] 일간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기사 수(시기별, 매체별 종합)

	1950~1970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10	계
조선일보	1	1	6	21	126	155
동아일보	1	3	9	24	53	90
중앙일보	6	2	15	46	75	144
경향신문	1	-	15	40	67	123
매일경제	2	5	4	62	30	103
한겨레	-	-	3	20	58	81
계	11	11	52	213	409	696

* 경향신문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첫 기사는 1963.7.30 일자 시립남대문도서관 관련 기사임

동아일보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첫 기사는 1967.5.18 일자 정부종합청사 관련 기사임

매일경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첫 기사는 1968.6.25 일자 국회의사당 관련 기사임

조선일보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첫 기사는 1963.7.31 일자 시립남대문도서관 관련 기사임

중앙일보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첫 기사는 1966.2.5 일자 종합박물관 관련 기사임

한겨레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첫 기사는 1989.11.30 일자 통일마당집 관련 기사임

• 건축물 용도별

설계공모 공공건축물 관련 기사 696건이며 대상으로 하는 사업 건수는 총 358건이다.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은 공공건축물은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총 46건의 관련 기사가 검색되었다. 다음으로는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관련 기사가 31건, 백남준 미술관 관련 기사가 22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축용도별로 살펴보면 박물관, 전시관, 체육관 등 문화와 관련한 시설이 전체 358건 중 192건으로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 상으로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 15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 건축용도별 설계공모 사업건수

용도 구분	건축물 용도 ¹⁾	사업 건수	
업무	업무시설	87	87
	제1종 균린생활시설	-	
	제2종 균린생활시설	-	-
상업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154	
	종교시설	-	
	수련시설	3	
	운동시설	24	192
	숙박시설	3	
	위락시설	-	
문화	관광휴게시설	8	
	교육연구시설	32	32
	노유자시설	17	
교육	의료시설	6	23
	운동시설	14	
	공장	1	
복지	창고시설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	
	자동차 관련 시설	2	
	동·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24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1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3	
	장례식장	-	
특수용도	가설건축물	-	
	계	358	358

[표 3-6] 주요 건축용도(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설계공모 사업건수(연도별)

	1950~1970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10	계
문화 및 집회시설	1	2	13	48	90	154
업무시설	3	5	10	40	29	87
교육연구시설	1	-	1	17	13	32

1) 「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용도. 단,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제외함.

- 기사성격별

설계공모 공공건축물 관련 기사는 설계공모 공고 및 결과 보도, 사업추진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는 단순보도형 기사와 당시에 논의되었던 주요 현안을 주제로 하는 담론형 기사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 보도형 기사는 569건, 담론형 기사는 127건으로, 단순 보도형 기사가 담론형 기사에 비하여 약 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유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단순 보도형 기사는 1990년 대 이후 급속한 증가를 보이는 것에 반해, 주요 현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담론형 기사는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대부분의 기사가 2000년 대 이후 보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3-7] 기사 유형별 구분

단순 보도형 기사		담론형 기사	
공모공고 및 결과	사업소개 및 추진과정	주요 현안 관련 보도	기타
299	270	108	19
569		127	

[표 3-8] 기사 유형별 구분(연도별)

	1950~1970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10	계
공모공고 및 결과	3	2	35	141	118	299
사업소개 및 추진과정	3	8	12	60	187	270
주요 현안 관련	5	-	4	10	89	108
기타		1	1	2	15	19

2) 일간지의 공공건축물 주요 담론

담론형 기사를 살펴보면 시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의 전달, 부지선정이나 예산 등의 문제, 논평 등의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이외에 설계공모 제도에 관한 의견을 보도하는 기사와 설계공모 당선자를 소개하거나 관련자의 인터뷰를 실는 기사 등이 있다.

□ 시민의 의견이나 요구 전달

시민의 의견이나 요구를 전달하는 기사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작품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보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전반의 일치된 담론이라기 보다는 주체 별로 주장하는 내용과 이에 대응하는 공공의 의견을 담고 있다.

시민의 의견이나 요구전달 기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 랜드마크 기능을 보완하라는 광주시와 일부 단체의 요구에도 건축물을 지하에 배치한 애초 설계들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겨레, 2007.3.26.)

“광주 옛 도심의 ‘지하 건물, 지상 녹지’를 배치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친환경적 설계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겨레, 2005.12.27.)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한달째 옛 전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펼치며 5·18 사적지의 원형 보전을 촉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19일 5·18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부상자회, 5·18기념재단 등 5월단체 네 곳이 참여한 출범식을 열어 문화전당 건립 공사 때 옛 전남도청의 별관을 철거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겨레, 2008.7.22.)

“한국건축가협회는 건축역사.건축설계.도시.평론 등 여러 분과의 활동을 통해 전문가 그룹 역할을 하고 있는 직능단체다. 다음은 우리 협회 내부에서 오랫동안 토의한 결과다. 서울시청 신축 계획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힌다.” (중앙일보, 2006.7.5.)

“당선작 없이 입선작중 택일하여 본 설계의뢰, 순위를 무시하고 2위 입선자의 작품을 채택한데 대해 일부 건축 설계기들 반발” (동아일보, 1967.11.30.)

“강릉시는 지난해 11월 12개의 출품작을 놓고 신축청사 설계공모를 실시한 결과 지하 1층.지상 18층(연건평 1만6백80평)으로 설계한 (주)한국조형건축을 선정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릉경실련과 강릉YMCA. 강릉YWCA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청사가 18층이나 되는 것은 지역여건상 적합하지 않다면 설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등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일보, 1997.05.28.)

“시는 당초 주민설명회를 갖고 사업계획과 당위성 등을 설명한 뒤 설계를 공모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26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주민설명회를 열지 못했으나 사업본격화를 위해 설계안을 공모하게 됐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주촌면에는 이미 대규모 공원묘원 등 혐오시설이 들어서있는데 시가 화장장과 납골당을 또 설치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앞으로 관계기관에 진정서 제출 등 시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매일경제, 2000.05.03.)

“경기 화성시와 이천시가 일제히 친일행적 논란이 있는 작곡가 홍난파와 월전 장우성 화백의 기념관 조성 사업을 놓고 ‘보류와 강행’이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난파 장우성은 29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의 친인인명사전 수록예정자로 발표됐다.” (한겨레, 2005.08.30.)

□ 부지선정이나 예산 등 현안 소개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사에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환경이나 예산에 대한 의견을 비롯해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기사가 포함되어 있다.

부지선정이나 예산 등 현안 소개

“건립에 대해 맹꽁이 서식지를 파괴한다는 환경단체의 비판에 이어 입지 선정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문화예술계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등 반대론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정대로 추진 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겨레, 2005.9.6.)

“울산시가 내년 1월 착공할 제2청사의 건립비를 설계 당시보다 배 가까이 증액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 2004.09.08.)

“우리 나라의 건축기술은 경부종합청사하나 우리 손으로 지을 수 없을 만큼 뒤떨어져 있을까. 현재 중앙청 앞 2만여 평의 대지 위에 진행중인 정부종합청사 건설기초공사가 국내 건축기술을 제쳐놓고 미국태평양건설회사 (PAE)의 기술자문에 따라 ‘케이션’ 공법으로 진행돼 평판기초를 설계한 국내건축 계의 불신이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중앙일보, 1967.11.30.)

□ 논평

논평성 기사는 기사 수는 적지만, 설계공모로 진행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의 타당성이 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논평

“사실 긴 논의는 필요치 않다. 노들섬 그곳이 과연 그와 같은 대규모의 공연시설이 들어설 적합한 위치인가에 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결론은 명확하다. 이제는 더 이상 삫의 현장으로부터 유리된 ‘고립된 성채’ 같은 공공 문화시설을 우리 도시 안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위치에 관한 한 국립극장·국립현대미술관·국립박물관, 그리고 예술의전당에서 두었던 악수로서 충분하다. 도시 내 좋은 위치에 좋은 문화시설 하나가 만들 수 있는 근시한 짐재력과 파장이 있다.” (중앙일보, 2008.11.15.)

“어떤 명목에서건 총독부 건물을 헌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36년간의 일본 식민지 역사를 지워버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당시 박물관 학예직들은 철거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한국 문화의 정수를 희생 양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무모함에 대한 항거에서 반대했다. (중략) 무엇이 문제인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용산 부지는 최악의 조건이다. 땅이 무른 습지여서 무려 5000개의 철근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짓고 있다. 늘지나 다름없는 곳에 지으면 그 땅의 기가 미술품에 끼칠 악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앞은 고층 아파트군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고 그 나머지는 미군 주둔지다. 이러한 최악의 땅에 어떻게 거룩한 민족훈의 결정체를 담을 것인가.” (조선일보, 2001.06.16.)

“문화의 보고 박물관은 문화재보존 기능이 완벽해야 할 뿐 아니라 건물자체가 예술작품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 문교당국에서 건립을 추진중인 「종합박물관」의 설계현상은 타당성을 잃은 조건들을 내걸고 있어 건축가들은 그 시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다.” (중앙일보, 1966.02.05.)

□ 설계공모 제도 관련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한 기사는 불합리한 설계공모 진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적법하지 못한 절차로 진행된 설계공모의 당선작을 무효처리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담고 있다.

설계공모 제도 관련

“경남 창원시가 지난 24일 당선작을 발표한 시민문화회관 현상공모에서 9명의 심사위원 중 건축전문가는 단 1명밖에 넣지 않아 건축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앙일보, 1986.01.28.)

“4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대구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흉사단 영남자연생태보존회·환경운동연합 등 대구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이 중앙초등학교 설계작 당선을 취소하라며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문제의 설계 공모작은 대구동부교육청이 대구 도심의 중앙초등학교를 대구시 동구 효목동 군의학교 터로 교명 승계 이전하면서 설계경기방식으로 공모를 받았는데, 도판의 축척이 1/600로 제출토록 명기하였으나 당선된 작품은 1/400로 제출해 설계지침을 위반하였으므로 원인 무효”라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2.02.05.)

“심사위원이 공개돼 업체의 사전 로비가 공개적으로 감시받는 셈이어서 지금보다 투명한 선정과정이 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는 일부 건설 업체는 그동안 심사위원 명단을 몰라도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친 로비에 나섰는데 아예 특정 사업 심사위원 명단을 쉽게 알게 되면 로비가 더욱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2009.10.19.)

□ 설계의도 소개 등

설계의도를 소개하는 등의 기사는 주로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설계의도와 건축가의 건축관 등을 소개하는 기사나, 건립사업 추진이나 설계공모 선정 등과 관련이 있는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건립의도나 설계공모 심사 시 논의되었던 주안점, 설계자에게 바라는 점 등에 대해 보도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설계의도 소개 등

안중근 의사 기념관, 공모당선자 김선현, 임영환과의 인터뷰. (중앙일보, 2010.10.26.)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설계공모 심사위원 버그돌의 인터뷰. (동아일보 2010.02.01.)
서울시 신청사, 공모당선자 유결과의 인터뷰. (동아일보, 2009.09.24.)
백남준미술관, 백남준의 상속자인 장조카 겐 백 하쿠다와의 인터뷰. (한겨레, 2008.2.26)
동대문디자인프라자, 공모당선자 자하 하디드의 인터뷰. (조선일보, 2007.11.16.)
행복도시 행정타운, 공모당선자 윤세한과의 인터뷰. (매일경제, 2007.3.15.)
아시아문화전당, 공모당선자 우규승과의 인터뷰. (조선일보, 2005.12.09.)
아시아문화전당, 송기숙 대통령 직속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작가와의 인터뷰. (한겨레, 2004.4.21.)
백남준미술관, 공모당선자 키스텐 세멜과의 인터뷰. (중앙일보, 2003.10.13.; 경향신문, 2003.10.13.)
중앙박물관, 공모당선자 김창일과의 인터뷰. (중앙일보, 1995.10.21.)
예술의 전당, 공모당선자 김석철과의 인터뷰. (경향신문, 1988.02.16.)
백범기념관, 공모당선자 임재용과의 인터뷰. (중앙일보 2000.12.28.)

3) 주요 공공건축물 (담론형 기사 빈도수 기준)

담론형 기사가 2건 이상 다루어진 주요 공공건축물은 13건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이 가장 기사수가 많고, 백남준미술관,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표 3-9] 일간지 주요 공공건축물(담론형 기사의 빈도수로 선정)

건축물명	기사제목	일지	일자	계
아시아문화전당	민주성지 광주를 문화중심으로	한겨례	2004.4.21.	20
	[광주/전남] 5·18 상징 전남도청 앞 상무관 철거될 듯	동아	2005.6.29.	
	“518 학생자 안치 상무관 원형 보존해야”	한겨례	2005.6.30.	
	“문화전당, 5·18 고려 설계”	조선	2005.12.9.	
	“아시아문화전당 설계 바꿔야”	조선	2005.12.15.	
	아시아문화전당 당선작 ‘조형미’ 논란	한겨례	2005.12.21.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설계수정 논란	경향	2005.12.21.	
	“아시아문화전당 설계변경 불기”	한겨례	2005.12.22.	
	“문화전당 설계변경인한다” 송기숙 위원장, 봄장 불만에 빈박	조선	2005.12.23.	
	5·18재단 등 시민단체 “아시아문화전당 친환경 설계 살려야”	한겨례	2005.12.27.	
	‘랜드마크’ 기능 보강논란 ‘아시아문화전당’ ‘지하 배치’ 애초 설계를 유지될듯	한겨례	2007.3.26.	
	“정부·시·시민 소통 시스템 중요”	조선	2007.4.27.	
	광주 ‘아시아문화중심’ 탈바꿈 본격화	한겨례	2007.10.8.	
	광주문화전당 설계 우구승씨 “랜드마크보다 땅의 역사성이 중요”	경향	2008.6.3.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엉킨 실타래	한겨례	2008.7.22.	
	‘5·18유적 옛 전남도청 별관 사라지나	경향	2008.11.17.	
	[광주/전남]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시민대토론회 친반 팽팽	동아	2008.11.20.	
	[기자24시] 불쌍나운 광주 도청별관 디툼	매경	2008.12.21.	
	[아시아 문화수도의 꿈, 광주 뛰대<중>미리보는 아시아문화전당 ‘빛의 숲’]	동아	2009.4.23.	
백남준미술관	[광주/전남] 동서남북/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결정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동아	2009.9.24.	11
	백남준미술관 설계공모 ‘불꽃경쟁’	조선	2003.5.30.	
	[사람 사람] 백남준미술관 설계 당선 獨 건축가 키르스텐 세멜	중앙	2003.10.13.	
	“매트릭스 공간에서 천재의 혼을”	경향	2003.10.13.	
	‘백남준 미술관’ 설계 공모 1등 키르스텐 세멜	조선	2003.10.14.	
	‘백남준 효과’를 기대하며	조선	2003.11.17.	

건축물명	기사제목	일간지	일자	계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용인상갈동 '뮤지엄파크' 된다 백남준 미술관·어린이박물관 속속 들어서	조선	2006.1.10.	
	"백남준 기리는 기념관보다 살아숨쉬는 미술관 됐으면"	한겨례	2008.2.26.	
	백남준 아트센터 용인시 상갈동에 10월 11일 개관	중앙	2008.3.13.	
	백남준아트센터 준공식	경향	2008.4.30.	
	'백남준 아트센터' 10월 9일 개관	경향	2008.8.26.	
	백남준페스티벌과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한겨례	2008.10.7.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불협화음'	한겨례	2005.9.6.	
	[수도권]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 불투명	동아	2006.7.24.	
	공공성을 높이자	한겨례	2006.10.6.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표류	매경	2008.4.29.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설계 재공모	매경	2008.7.21.	8
	[삶과 문화] 노들섬, '고립된 성채'	중앙	2008.11.15.	
	'노들섬 예술센터'설계비 21억 날렸다	조선	2008.11.21.	
	520억 들인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좌초 위기	중앙	2010.9.13.	
	동대문운동장 터에 '물결모양' 건물	조선	2007.8.14.	
부산영상센터	그녀의 '명품건축' 서울을 바꾼다	한겨례	2007.8.16.	
	"동대문 운동장 철거 반대"	조선	2007.8.21.	
	"내 건축은 실용적... 영감에 의존하지 않아"	조선	2007.11.16.	7
	[독자칼럼] 경성운동장, 동대문운동장,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조선	2007.12.19.	
	다시 태어날 동대문운동장... 성과 일부도 복원	조선	2007.12.31.	
	외국인 설계 매달리다...설계비 늘고 착공 지연	경향	2008.12.19	
국립중앙박물관	부산영상센터, '두레라움' 10월 착공	매경	2008.8.18.	
	부산영상센터 건립 강행	한겨례	2008.8.18.	
	두레라움(PIFF 전용관) 규모 넓혀 10월초 착공	조선	2008.8.19.	
	[우리가 최고 우리지역 대표 사업] '아시아 영상산업 중심' 부산	동아	2008.9.4.	6
	'지붕 자체가 예술' 영상센터 착공	중앙	2008.10.6.	
	[부산/경남] "공정 28% '두레라움' 국비지원 늘려야"	동아	2009.4.6.	
	2000년대 초 신축	조선	1995.6.11.	
서울시청사	[인터뷰] 종중박물관 국제설계공모 1등당선 김정일씨	중앙	1995.10.21.	4
	[기고] 높지에 짓는 중앙박물관	조선	2001.6.16.	
	이창동 장관, 새 중앙박물관 설계관여 '뒷말'	한겨례	2003.12.18.	
서울시청사	[내생각은] 서울시 청사 신축 재검토하라	중앙	2006.6.26.	4

건축물명	기사제목	일자	언어	계
	[열린마당] 서울시청사 설계안, 관료 입맛대로 바꿔서야	중앙	2006.10.10.	
	“경쟁은 즐거워” 老건축가의 유쾌한 반란	조선	2008.2.19.	
	“삶도 건축도 자유가 학도… 끊임없이 변해야 산 공간”	동아	2008.6.1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기무사터 미술관, 서울 알리는 건물 됐으면	동아	2010.2.1.	
	‘셰이프리스니스’ 현대미술관 서울관 공모 당선	동아	2010.8.7.	3
	[기자의 눈/손택근] ‘국기대표 미술관’ 허술한 설계공모 극복할까	동아	2010.8.9.	
경기도청사	경기도 신청사도 ‘호화’ 논란	경향	2010.1.19	
	경기도, 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여부 올해 결정	경향	2010.8.7	3
	[수도권] 경기도청, 광교신도시로 간다	동아	2010.8.9	
정부종합청사	2位入選者(위입선자)에本設言(본설계)의뢰	동아	1967.5.18.	
	불신 당한 우리기술! 정부종합청사건설 외국사에 맡겨	중앙	1967.11.30.	3
	세계건축가연맹에 제소	중앙	1968.2.20.	
안중근의사 기념관	오늘 문 여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 설계, 부부 건축가 김선현·임영환 씨	중앙	2010.10.26.	
	[문화노트] 안중근 기념관, 그들만의 개관식… 정작 건축가의 자리는 없었다	중앙	2010.10.29.	3
	대한민국 건축의 현주소	중앙	2010.11.5.	
전곡선사박물관	연천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예정대로	조선	2007.10.16	
	27만년전 구석기시대 열린다…선사박물관 내년 완공	경향	2009.3.23.	2
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박람회, 주제관 설계공모에 133개 팀 응모	경향	2009.10.9.	
	여수 세계박람회장 첫삽	중앙	2009.12.1.	2

2. 건축전문지를 통해 본 공공건축물 담론

1) 조사 개요

일간지 보도가 ‘일반 국민과 사회의 관심’을 반영한다면, 전문가 사이의 논의는 주로 전문지에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 분야의 대표적 전문지에 게재된 설계공모 관련 기사를 조사하여 전문가 집단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던 설계공모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밝히고 논의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 조사 대상 전문지 : 공간, 건축가, 건축사, 건축

건축계의 주요 집단으로서 3개 단체-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의 협회지와 건축분야의 전문지로 ‘공간(SPACE)’지를 대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전문가 집단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담론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서 앞서 살펴 본 일간지와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시대별 건축분야의 공공건축 담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주요 사례 조사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고자 한다.

[표 3-10] 전문지 개요

전문지	발행처	창간	자료
공간(SPACE)	공간사	1966.11	http://space-archive.com/ 월간 space588호(2016.11) 50주년 기념호
건축가 ²⁾	한국건축가협회	1961.4	한국건축가협회 50년(단행본)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1966.7	http://society.kisti.re.kr/
건축	대한건축학회	1955.1	http://auric.or.kr/

□ 조사 방법과 내용

조사방법은 기사 목차 검색을 통하여 설계공모(현상설계 등)로 검색되는 기사를 1차로 정리하였고, 2차로 공공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사만을 다시 선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택현상설계 등은 배제하였다. 기사는 다시 단신과 기획기사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단신보다는 해설과 비평을 담은 기획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해설과 비평은 설계공모안의 계획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심사의 공정성 등 설계공모 제도의 문제점을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계공모와 관련된 논의를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2) 한국건축가협회(2008. 8), 「한국건축가협회 50년」, 한국건축가협회.

2) 전문지의 공공건축물 주요 담론

설계공모의 당선작에 대한 소개, 설계공모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것은 개별적인 것이어서 추가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주요담론이라는 측면에서는 설계공모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설계공모 당선작 및 심사과정 소개

정부청사설계경기(1967)와 관련하여서 각 응모작의 설계안과 심사규정, 심사방법, 심사총평, 작품별 성적 등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다만, 심사평 외에 비평이라는 관점보다는 설계심사과정을 자세하게 전달하는 것을 중점으로 진행하였다.(공간1967.5) 이후로 진행된 국회의사당(1968)은 설계공모 자체의 문제제기, 설계공모 과정, 좌담회 등과 더불어 해외의 사례 등에 대한 자세한 기사가 다루어지고 하였다.(공간.1968.7) 1975년 건축물 준공 이후에 설계공모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 디자인의 문제,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었다.(공간,1975.10) 2005년 이후로는 주요 공모전의 취지 및 개요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기획의 글과 함께 주요 공모 수상작을 소개한다.

□ 심사과정 및 당선작에 대한 의견 제시

1973년에는 입상자, 응모자가 참여하면서 설계공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1973.1/1973.5) 증권거래소 현상설계와 관련하여서는 한국건축문화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기도 하였다.³⁾

□ 설계공모의 가치와 의미

건축지 1981 '건축설계경기의 민주적 투명성'이라는 기사에서는 설계경기의 본래적 의미와 가치를 논의하였다.⁴⁾ 설계공모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국민과 건축인의 의식개혁, 건축인의 시대적 사명감, 설계경기 운영상에서 필요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지적하였다.

□ 설계공모 수상작을 중심으로 한 건축 가치 담론

건축지 1990.3에서는 '전통성과 상징성의 추구'라는 특집을 준비하면서 국립대구박물관과 전쟁기념관에 대한 비평으로 건축 가치가 논의되었다.

3) 이에 대해서 공간지의 발행인이기도 하였던 김수근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지하였던 윤승중 안이 낙선하면서 심사과정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윤승중 구술집(마티, 2014), p.334.

4) 이배화(1998.1). 건축설계경기의 민주적 투명성. 건축(대한건축학회지), v.42 n.1, pp.47-51.

3) 설계공모 관련 전문지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

전문지 중에서도 담론의 수준으로 다루어졌던 프로젝트만 별도로 도출하였다. 단순한 설계공모의 결과만 단발성으로 다루기보다는 설계공모 지침, 설계심사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프로젝트는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공공건축물의 범위도 도시, 주택사업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1960년대에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프로젝트는 정부종합청사(정부서울청사)이다. 논의는 ‘건축사’와 ‘공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설계공모 응모작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설계경기에 대한 기본적 고찰(건축사, 1968.1)을 다루었으며, 설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담았다. 그 외에 국회의사당(1968) 프로젝트가 많이 다루어졌는데, 설계안에 대한 설명 외에도 설계안 모집의 문제점과 용역 계약에 대한 건의 사항을 다루었다.

1970년대에는 KBS청사(1973), 서울시민회관(세종문화회관, 1973), 한국증권거래소(1976) 설계공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KBS청사에 대해서는 입장작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설계공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응모자 의견이 게재되었다. 한국증권거래소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현상설계 풍토에 대한 비판(김원)과 문제 제기(이규목, 김원석, 김양철, 민현식, 김원)가 다루어졌다. 대부분의 기사가 설계공모 진행 기간 또는 직후에 집중되는데 비해 1975년 ‘공간’지에서는 국회의사당 준공 시점에 설계와 시공 후의 문제점을 다루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1980년대에 전문지에서 다룬 프로젝트는 독립기념관(1983)과 국립대구박물관(1989)이다. 국립대구박물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현상설계 개요를 다루거나(건축가, 1989.5) 당선 결과를 알리는 기사(건축가, 1989.9) 외에 ‘건축’지에서는 ‘건축설계 새로운 과제, 전통성과 상징성의 추구’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게재하였다.

1990년대에는 전쟁기념관(1990), 정부 제3청사(정부대전청사, 1992), 국립중앙박물관(1995)에 대한 논의가 전문지에 실렸다. 전쟁기념관에 대한 기사(건축, 1990.3)는 현상설계 및 당선안에 대한 비평을 담고 있으며, 정부 제3청사(공간, 1992.3) 관련 특집은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본 한국의 건축적 상황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관시행 현상설계가 한국 현대축에 미친 영향”, “현상설계와 로비의 함수관계”, “공공건축물, 언제까지 관건축인가, 대민건축의 시대를 열자”등의 기사에서는 당시 현상설계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다루었다.

2000년대는 백남준 미술관(2003), 서울시청사(2005), 국립아시아문화전당(2006), 행정 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2008), 한강 예술섬(2009),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201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백남준미술관은 UIA 국제현상설계공모로 진행되어 건축계의 관심을 끌었으며, 서울시청사는 도시설계, 역사보전, 발주방식 등 다양한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공간, 2006.5, 2008.3, 2012.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문화도시, 장소성, 상징성 등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이루어졌다(공간, 2006.1, 2015.9).

[표 3-11]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1967.5	정부종합청사 설계경기 응모작품 - 11개 제출작 작품소개, 심사규정 및 삼사방법, 심사평 및 작품별 성적	정부종합청사 (정부서울청사)	〈건축사〉
1967.6	정부종합청사 가작품설계 가작 입선작 3점에 대한 소개(설계설명서, 도판)	정부종합청사 (정부서울청사)	〈공간〉
1967.6	설계경기에 대한 기본적 고찰 (이승우) 설계경기에 대한 일반론적 설명 정부종합청사 설계심사과정 및 채점 결과	정부종합청사 (정부서울청사)	〈건축사〉
1968.1	정부종합청사설계가 정말 변경되나? (편집부, 나상기)	정부종합청사 (정부서울청사)	〈건축사〉
1968.1	정부청사 설계시비, 불신의 근거, 68년 미술계 전망 (편집부)	정부종합청사 (정부서울청사)	〈공간〉
1968.3	토론회-정부종합청사 설계에 관해서 김재철(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강대웅(이사) 나상기, 송민구, 백기완, 도상봉, 조영무, 김정수 (김종업, 김수근)	정부종합청사 (정부서울청사)	〈건축사〉
1968.3	외주는 역사의 반역행위다-정부종합청사 설계 및 건립에 관하여 (녹음으로 전함) (김종업)	정부종합청사 (정부서울청사)	〈건축사〉
1968.7	양케이트-의혹짙은 국회의사당 신축설계 - 본설계는 누가? 언제? 어떻게? - (성인영, 안인모, 흥봉의, 박영면, 배기형, 김만감)	정부종합청사 (정부서울청사)	〈건축사〉
1968.7	국회의사당: 설계안 모집의 문제점 (편집부) 국회의사당 신축설계안 일반공개요강 (국회사무처) 국회의사당 계획설계안 모집공고가 나오기까지(정동우) 건의서(김재철, 배기형, 이신복) 지명설계자 좌담회 (강명구, 김정수, 김종업, 김수근, 이광노, 이해성, 이신복) 자료: 여의도 개발, 국회의사당 대지에 관한 설명, 각국 국회의사당 (편집부) ⁶⁾	국회의사당	〈공간〉
1968.9	국회의사당 신축설계 입선작 - 안영배, 조창한	국회의사당	〈건축사〉
1968.10	국회의사당신축계획설계안 일반공모 및 지명작가설계안	국회의사당	〈공간〉
1969.2	국회의사당기본계획(원정수, 김정철)	국회의사당	〈공간〉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1969.3	신국회의사당건물의 고민 (정인국)	국회의사당	〈공간〉
1969.5	국회의사당 신축설계 – 용역계약에 대한 시정 건의	국회의사당	〈건축사〉
	제언–경기설계에 대한 소고		
1973.1.2	KBS청사 현상설계공모작품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	KBS청사	〈건축가〉
	KBS방송청사 설계공모 입선발표(편집부) 입상작		
1973.1	등외 응모작 (응모자의 변) KBS현상이 우리에게 준 문제(지순) * 당선작 없음	KBS청사 (KBS방송청사)	〈공간〉
	응모작품 심사요령, 당선작 발표		
1973.5.6	'2단계 현상설계 공모제를 제안하면서' (송종석) '심사에 대한 소감' (강병기) '시민회관 설계에 대하여' (엄덕문)	서울시민회관 (세종문화회관)	〈건축가〉
	시민회관 현상설계 입상작품발표(편집부) 시민회관 우수작(엄덕문 건축연구소)		
1973.5	시민회관 준우수작(홍익대학교) 시민회관 가직, 장려상 시민회관 현상설계 심사소감(강병기, 박윤성, 이정덕) 시민회관 현상설계 입상자의 변(고주석, 안영기, 나상기, 엄덕문, 홍순인)	서울시민회관 (세종문화회관)	〈공간〉
	1975년에 지어진 여의도 국회의사당(편집실) 국회의사당 준공에 즈음하여 그 당시를 되돌아본다(배기형) 어려운 바둑수 풀기보다 어려워(이해성)		
1975.10	국회의사당 설계전모(김정수) 다난했던 설계경로(안영배) 한국적 전형화(이상순) 한국적 절충주의의 시급한 정돈을 위하여(김원) 설계와 시공후의 문제점들(편집실)	국회의사당	〈공간〉
1975.12	증권거래소 청사 지명 현상 (특집)설계현상과 한국 건축문화의 오늘 시급한 현상설계 풍토개선: 진정한 의미에서 작품의 축제이기 위해 (김원) 당선작 (이승우, 나상기, 오승석, 원정수, 윤승중, 이호진) 심사소감 (김정수, 오휘영, 이정덕, 김수근)	한국증권거래소	〈건축가〉
1976.3	문화로서의 건축과 생활공간의 이해 : 증권거래소 현상설계가 남긴 문제점 (이규목, 김원석, 김양철, 민현식, 김원) 한국 증권거래소 현상설계 심사에 이의있다: 그 전시회를 보고 느낀 충격과 의문 (김수현)	한국증권거래소	〈공간〉
1982.9~12	독립기념관 건립을 앞두고 (최창규, 강철구, 송민구, 김정철, 송병희, 박영호)	독립기념관	〈건축사〉
1983.1.2.	독립기념관 건립 유감(최창규)	독립기념관	〈건축사〉
1983.2	독립기념관건립에 즈음하여(최창규)	독립기념관	〈건축사〉
1983.3.4	독립기념관 건립에 관한 공청회 등	독립기념관	〈건축가〉
1984.12	미성숙 문화시대의 현상설계 (승효상)	-	〈공간〉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공모 대구박물관 현상설계·박물관 건축계획 개론-서상우 대구박물관 현상설계: 건축설계경기의 주최와 의의-윤도근 1989.5.6 대구박물관 현상설계: 공간성이 풍부한 창의적 조형-안영배 국립대구박물관 현상설계 심사에 임하는 자세-김정철 국립대구박물관 현상설계 요강 국립대구박물관 현상설계 지침서		
	당선결과 박물관 현상설계 심사를 마치며-이광로 국립대구박물관 현상설계를 마치고-김인철, 송성진, 이재환, 장세 양. 최관영 1989.9.10 국립대구박물관 현상설계 입선작품평가서 국립대구박물관 현상설계 기술위원회 검토보고서 국립대구박물관 현상설계 심사보고서 현상설계 응모안		국립대구박물관 <건축가>
1990.3	(특집 : 건축설계 새로운 과제 : 전통성과 상징성의 추구) 국립 대구박물관 당선안에 대하여 (장세양) 국립 대구박물관 현상설계에 대한 소고 (박승)	국립대구박물관	<건축>
1990.3	전쟁기념관 현상설계 및 당선안에 대한 비평 (김창수) (특집) 한국 건축의 단면(편집부) 정부 제3청사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본 한국의 건축적 상황과 논리	전쟁기념관	<건축>
1992.3	(이범재, 김인철, 김영섭, 이종칠) 관시행 현상설계가 한국 현대건축에 미친 영향(최관영) 현상설계와 로비의 핵심관계(정기용) 공공건축물, 언제까지 관건축인가 대민건축의 시대를 열자(허정도)	정부 제3청사 (정부대전청사)	<공간>
1995.2	신 국립중앙박물관 국제 설계경기 공모(편집부) 국립중앙박물관장 정양모씨 (인터뷰 기사) 신 국립중앙박물관 국제 설계경기 공모	국립중앙박물관	<공간>
1995.4	새 박물관을 위한 국제설계경기-윤승중 대한민국 새 국립중앙박물관 국제설계경기-편집부 - 빌헬링 퀴커 - 이은영 - 가에 아우렌티 - 윤재원 - 앙리 시리아니의 건축 : 건축의 존재와 도시계획의 타당함-정인하 - 심사위원 인터뷰		
1995.5	대한민국 새 국립중앙박물관 국제설계경기: 심사위원 인터뷰 ⁶⁾		
	대한민국 새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국제설계경기 1 _주진경위, 건축 프로그램 (수상작) _1등 -김창일 _2등 -크리스티앙 드 포르짐박+김병년+신재순 _3등 -김현철+김용미+김상식+김석윤+김홍식 _4등 -베르너 크리스텐+곽영훈+이승우 _5등 -로랑 살로몽+김홍일	국립중앙박물관	<건축가>
1995.11			
1995.12	대한민국 새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국제설계경기 2 가작 -민현식+승효상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가작 -한규봉+Henry Gaudin+Bruno Gudin 가작 -김석철 가작 -박승+James G. Garrison+한현호+Robert Siegel 가작 -손두호+이영		
1999.3-4	특집좌담 : 새 국립중앙박물관, 국제설계경기 그 이후 (별주처-김봉건 과장, 시공-전형칠(동부건설이사), 설계-김진구 (정림건축 이사), 박승홍(정림건축 이사), 윤재원(유제건축대표, 전 시기획 설계), 건축가지-박영건(편찬위원장, 범건축대표), 민선주 (편찬위원, 위가건축대표), 송인호(편찬위원, 서울시립대 교수)		
2000.12	(스페이스 풀) 건축 코디네이터가 현상설계경기의 심사위원으로 참 가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천의영, 임재용, 이두열, 권문성, 윤인석, 이한종, 김영기, 박순관, 박혁준)	-	〈공간〉
2003.7	시론: 백남준 미술관 UIA 국제현상설계를 진행하며 (최재필)	백남준 미술관	〈건축가〉
2003.9	칼럼: 백남준 미술관 UIA 국제현상설계를 마치며 (김종성)	백남준 미술관	〈건축가〉
	서울공연예술센터 국제아이디어공모전(편집부)		
2005.9	문화와 강은 흘러야 한다(정다영) 수상작 : 안드레 폐레아, 안나 라노바 룬드스트롬, 김정곤, 후 리앙, 최성희+로랑 페리리아, 노들섬과 한강변의 여려 섬	서울시청사	〈공간〉
2005.10	서울시청사 그 방정식에 대한 해법 찾기(정다영) *기획의 글 서울시청사 증·개축의 도시설계적 조건들(김기호) 서울시청사 증·개축에 던지는 세 가지 이슈(편집부)	서울시청사	〈공간〉
	국립중앙박물관 (임진영, 최진이) *기획의 글 국립중앙박물관, 10년의 기록(임진영) 다시 한국성을 말하다.(박승홍, 임진영)		
2005.11	국립중앙박물관, 우리 현재의 모더니티(박길룡) 문화의 본당으로 거듭나다(이건무, 임진영) 용산, 뮤지엄컴플렉스 조성의 가능성을 읽다(서상우) 실속있는 박물관문화를 도모하다(박형식, 최진이)	국립중앙박물관	〈공간〉
	문화도시 만들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정다영) *기획의 글 2004~202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들여다보기(정다영) 송기숙 인터뷰 광주와 아시아, 신인본도시를 향하여(정다영)		
2006.1	도시는 프로세스다(정다영) 갤럭시티 광주(이종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선작, 빛의 숲(우규승)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가치의 발견(정인하)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공간〉
2006.5	서울시청사, 그 미래는 (정다영) 서울시청사 증개축 터키 (정다영)	서울시청사	〈공간〉
2007.12	(칼럼) 건축현상설계 (김종성)	-	〈공간〉
	중심행정타운, 행정도시의 현재를 말하다(김정은) *기획의 글 행정중심 복합도시 국제공모 당선안 돌아보기 (편집부)		
2008.1	시민 친화적인 정부청사 건설 (김종훈) 건축가에 의한 도시계획은 대안인가? (안건혁) 중심행정타운은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가? (온영태, 승효상, 조명래, 김인수)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정부세종청사)	〈공간〉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1단계 건립 국제 설계공모 (편집부) 수상작 순성 환상곡 (범건축) 메디에이트 폼 (희림건축) FORMing TALUS, WALKing STRIP, FINDing CELLS (공간 그룹)		
2008.3	서울 신청사, '디자인 서울'이 선택한 '서울의 상징'(정다영) *기획의 글 진정성의 회복 (이공희) 수상작 : 유걸, 박승홍, 류준수, 조민석	서울시청사	<공간>
2009.4	노들섬에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둔다 (이경은) *기획의 글 (인터뷰)마지막 '한강 예술섬' 공모전: 갑론을박 (이근창, 김정곤, 박승홍, 이종호) 수상작	한강 예술섬	<공간>
	winner_박승홍, second place_톰 메인, third place_이상림, participant_김정곤, participant_안나 라노바 쿤드스트롬, participant_폴 앙드류		
2010.3	고궁 옆 현대미술관 (이경은) *기획의 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아이디어 공모전 이모저모 당선작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김주원), 쉐이프리스 뮤지엄(민현준), 모도(신 춘규, 최윤정, 최춘웅), 어반 캔버스(정림건축) 퍼블릭 룸으로써의 국립현대미술관(M.A.R.U), 기무사 터의 미래를 그리다 (당선작 대담) 입선작 (박영일+피터 원스톤 페레토+박희령+김준성, 우의정+김태형+이 종호, 이승윤+최정우+강한샘+박해선, 이정훈, 최문규+가야건축)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간>
2012.8	서울시 새 청사를 '보다' (편집부) 서울시 새 청사, 한국 건축의 반영 (심영규) 서울시 새 청사 어떻게 진행됐나 (김광현, 흥평우, 이필훈, 이영범, 하태석) 시청사,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다 (김봉렬, 김종현, 조명래, 은병수, 이공희, 한은주)	서울시청사	<공간>
2014.3	(인터뷰) 중심행정타운의 완결성을 재문하다 (다이아나 발모리, 편집부) 찬란한 실험, 행복도시의 성장기(박계현) * 행정중심복합도시: 두 가지 행복을 위한 도시의 조건(특집)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정부세종청사)	<공간>
2015.9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의 새 장을 꿈꾸다(편집부) (인터뷰)장소성을 통한 상징성의 발현(우규승, 박계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개관, 그 꿈과 현상 (박계현) 글로컬 도시브랜드를 위한 문화경영 전략(이무용) 5개 원을 함께 모아 펼치다(김선정, 목진요, 김혁진, 김성희)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공간>

5) 오늘날의 설계공모 사전기획 보고서의 형식으로 추정된다. 공간사에서는 주요 사례를 정리하여서 설계공모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형식이었다.

6) 건축가지 1995년 4월호에 심사위원 인터뷰 중 늦게 제출된 가에 아우렌티의 답변 내용임.

3. 주요 공공건축물 선정

1) 일간지와 전문지 상의 주요 공공건축물

앞서 살펴본 일간지와 전문지 상에서 담론형 기사의 빈도수로 선정된 설계공모 공공건물은 다음과 같다. 일간지 상에서는 2건 이상의 담론형 기사가 있는 프로젝트는 총 13 건, 전문지 상에서 담론형 기사가 있는 프로젝트는 총 16건이다. 일간지의 경우, 1990년 대 이전에는 정부종합청사 1건이 해당하며,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1990년 대 이후임을 알 수 있었다. 건축전문지에서 다루어진 프로젝트들은 시기별로 골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일간지의 주요 공공건축물 목록

시기	프로젝트명	기사수
1 1967 ~ 1968	정부종합청사	3
2 1995 ~ 2003	국립중앙박물관	4
3 2003 ~ 2008	백남준미술관	11
4 2004 ~ 2009	아시아문화전당	20
5 2005 ~ 2010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8
6 2006 ~ 2008	서울시청사	4
7 2007 ~ 2008	동대문디자인플라자	7
8 2007 ~ 2009	전곡선사박물관	2
9 2008 ~ 2009	부산영상센터	6
10 2009	여수 세계박람회장	2
11 2010	안중근 의사 기념관	3
12 2010	경기도청사	3
13 201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3

* 국회의사당은 설계모집 등의 표현으로 진행되어 일간지에서는 검색이 진행되지 않음
예) 아리송한 국회의사당 설계모집(매일경제 1968년 6월 25일)

[표 3-13] 전문지의 주요 공공건축물 목록

	시기(개재)	프로젝트명	기사수
1	1967 ~ 1968	정부종합청사(정부서울청사)	8
2	1968 ~ 1969, 1975	국회의사당	18
3	1973	KBS청사	7
4	1973	서울시민회관(세종문화회관)	10
5	1975 ~ 1976	한국증권거래소	7
6	1983	독립기념관	4
7	1989 ~ 1990	국립대구박물관	17
8	1990	전쟁기념관	1
9	1992	정부 제3청사(정부대전청사)	5
10	1995, 2005	국립중앙박물관	6
11	2003	백남준 미술관	2
12	2005, 2006, 2008, 2012	서울시청사	12
13	2006, 20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4
14	2008, 2014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정부세종청사)	9
15	2005, 2009	한강 예술섬(한강공연예술센터)	3
16	201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3

2) 주요 공공건축물 종합

제4장에서 일간지와 전문지의 담론 기사를 심층있게 분석할 대상 공공건축물은 위에서 살펴본 일간지와 전문지의 프로젝트를 종합하여 총 22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표 3-14] 주요 공공건축물 종합

시기 (설계시기)	프로젝트명	기사건수	
		일간지	전문지
1 1960년대	1967 ~ 1968 1968 ~ 1969, 1975	정부종합청사(정부서울청사) 국회의사당	3 18
3	1973	KBS청사	7
4 1970년대	1973	서울시민회관(세종문화회관)	10
5	1975 ~ 1976	한국증권거래소	7
6 1980년대	1983	독립기념관	4
7	1989 ~ 1990	국립대구박물관	17
8	1990	전쟁기념관	1
9 1990년대	1992	정부 제3청사(정부대전청사)	5
10	1995 ~ 2003	국립중앙박물관	4 6
11	2003 ~ 2008	백남준미술관	11 2
12	2004 ~ 20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 14
13	2005 ~ 2012	한강 예술섬	8 3
14	2006 ~ 2008	서울시청사	4 12
15	2007 ~ 2008	동대문디자인플라자	7
16 2000년대	2007 ~ 2009	전곡선사박물관	2
17	2008 ~ 2009	부산영상센터	6
18	2008, 2014	행정중심복합도시 타운(정부세종청사)	9
19	2009	여수 세계박람회장	2
20	2010	안중근 의사 기념관	3
21	2010	경기도청사	3
22	201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3 3

제4장 주요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사회적 담론 분석

1. 1960년대 : 행정 및 입법시설
 2. 1970년대 : 사회 공공서비스 시설
 3. 1980년대 : 대규모 문화시설
 4. 1990년대 : 문화, 행정시설 재배치
 5. 2000년대 : 지자체 본격시행, 균형발전정책 등에 따른 공공건축 다양화
 6. 소결
-

□ 공공건축물 정리, 분석

본 장에서는 22개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한 개별분석을 진행하였다. 3장에서는 키워드 ‘설계공모’로 선정된 기사를 바탕으로 건축물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4장에서는 주요 공공건축물의 명칭으로 기사를 수집하였다.

각 건축물별 정리를 위하여 1차적으로 건축물의 개요를 정리하였다. 공공건축물 홈페이지나 AURUM건축도시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였다. AURUM에서는 건축자산 정보의 일환으로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요는 건축물 소개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건축물 연혁정보를 정리하였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표시하였고 서울, 경기도 등의 사업인 경우에는 당시 시장 및 도지사를 표기하였다.

건축물에 대한 사실정리가 필요하여 각 건축물과 관련한 기사를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운영단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각 기사들은 유사한 그룹을 바탕으로 소제목으로 표기하였다.

각 건축물별 소결에서는 전문지 및 일간지에서 다루는 차이, 설계공모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정리하였다. 담론의 수준은 건축물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론부분에서는 시대별, 매체별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표로 표현하였다.

1. 1960년대 : 행정 및 입법시설

1) 정부종합청사(정부서울청사)

① 건축물 개요

* 정부종합청사 (현. 정부서울청사)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대지면적 : 18,582m²
- 건물규모 : 지하 3층, 지상 19층
- 연면적 : 78,448m²
- 층고 : 기준층 3.5m, 최고7m(지상 1층)
- 최고높이 : 지상 82.8m
-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
- 공사기간 : 1967. 7. 29 ~ 1970. 12. 23 (3년 5개월)
- 총공사비 : 47억원



(건축배경)

정부수립 당시 1실 11부 4처였던 중앙행정기관은 구.중앙청(과거 조선총독부 건물, 이후 1983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다가 1995년 철거됨)을 중심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하였음 이후 정부기능의 다원화로 행정기구가 확대됨에 따라 청사부족으로 인하여 13개 기관이 일반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자체청사 보유기관도 목조시설 등 노후된 사무실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각 기관의 청사가 곳곳에 산재되어 행정능률 증진 및 대민 봉사행정 측면에서 문제점이 가중되었음 이에 산재되어 있는 각 부처를 집중수용함으로써 행정능률의 제고와 국민의 행정기관 이용편의를 증진하며, 청사 부족난의 해결과 청사 유지관리비의 절약을 위하여 대규모의 정부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

(건축경과)

1966년 정부청사조정 '특별회계법'의 공포로 건축재원 확보를 위한 기틀 마련 및 설계공모 응모작 25점 중 나상진 건축설계 사무소의 작품최종 선정

1966년 외국 용역 재설계 및 공사 착공

대규모 건축물 설계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국내 설계의 한계로 외국용역업체인 PAE·인터내셔널로 설계업체가 대체되었으며 시공업체로 풍전산업(주)을 선정하여 공사착공
1970년 준공

(건축특징)

기초 : 우물통식 콘크리트관을 지하 암반층까지 도달 시킨후 내부를 콘크리트로 채워 암반과 기초를 일체화하는 케이슨 (Cason)공법 사용

기둥(골조) : 실내공간에 기둥이 없는 내력벽(Bearing Wall)구조로 국내최초의 슬립폼 (Slip Form)공법 사용

평면 : 각 층의 서비스부분을 사무실부분에서 분리·집약시켜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한 코아(Core)시스템 사용 및 이동식 경량칸막이 시공으로 가변성 부여

설비 : 화재감지기, 경보기 등의 방재시설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중앙감시제어설비 설치

* 출처 :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hungsa.go.kr/chungsa/frt/sub/a02/b01/chungsainfo/screen.do?depths1=1&menu=2&smenu=1>(접속일 2017.6.21.)

<http://www.chungsa.go.kr/chungsa/frt/sub/a02/b01/historyMain/screen.do?depths1=1&menu=2&smenu=2>(접속일 2017.6.21.)

② 기획단계

□ 예산 및 입지

종합청사라는 명칭에서 당시에는 다양하게 분산배치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주로 중앙 청 건물과 현재의 미국대사관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청사건물이 주요 부서가 집적된 청사로서 활용되었고 그 외에 다양한 건축물이 청사로 사용되었다.

1966년에는 청사신축을 위한 다양한 계획이 마련되었다. 용산의 육군본부를 강남으로 이전시키고 현대식으로 개보수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66.2.21.) 서울시 미래상에 대한 좌담회(경향신문, 1966.2.26.)에서는 건설부도시과장, 서울시도 시계획과장, 화가, 건축가(윤정섭), 미술평론가, 기자 등이 참여하였다. 당시 서울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¹⁾과 연계하여 주요 공공건축물로서 민족문화센터, 종합박물관, 국회의사당, 정부청사 등에 대한 배치계획 등이 언급되었다. 경향신문(1966.7.18.)에 따르면, 한강이남으로 종합청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내무부, 감사원, 시경, 마포교도소, 대통령마포별장, 언커크, 전매청, 노동청, 표준국, 구중국청사, 원호청 등 11개 청사를 매각하는 재원과 일반회계 등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매일경제(1966.8.1.)에서는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 등을 통하여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특별회계 관리 및 국고지원 등에 대한 국회와 총무처간의 논의내용이 있다. 김포 및 안양 등이 논의되었으나 지가 폭등의 우려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남권역을 대상으로 고려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경향신문(1966.8.11.)에서는 새서울 백지계획이 소개되었다. 서울시가 4월부터 계획하였던 계획으로 무궁화 모양으로 구상되었다. 중심부에는 시청을 중심으로 대통령관저, 입법, 행정부, 사업부가 6km간격으로 배치되고 사이에 청사부속건물과 공공건물이 배치되는 형태로 계획되었다. 가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하는 백지계획의 특성상 구체적인 지역은 언급되지 않았다.²⁾

③ 설계단계

□ 설계공모 입선작 선정

일간지에서는 설계공모 이후의 결과에 대한 논란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처음으로는 설계공모 순위와 무관하게 2위 입선자에게 본 설계를 의뢰하였다는 것이었다. 동아일보

1) 1966년 5월에 서울도시기본계획(500만 인구의 현대적 도시건설 목표)이 수립되었고 8월에는 서울도시계획전시장을 개관하여 서울 도시계획을 공개하였다.

2)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자료에 한정하였을 때에는 강남개발 및 수도권 분산 등의 상황 속에서 현재의 정부청사 입지로 선정된 이유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67.5.18)에 따르면, 설계공모를 통하여 3개의 작품(순위별로는 이승우, 나상진, 엄덕문)이 선정되었는데 총무처의 입장에서는 “모두 완전하지 못하여 비교적 디자인과 외관이 좋은 나씨의 작품을 채택, 수정하여 본설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하면서 당선작이 없는 한 입선작 중 택일하는 것은 주관처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70.3.10.)에 따르면 당선작 없이 가작 3점을 선정하였다. 공모는 1차에 11점을 선정 후 2차 작품을 제출, 심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지에서는 공간, 건축사지 등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공간지(1967.5)에서는 설계공모 공고, 당선작발표, 당선작 소개를 진행하였다. 특히, 당선작 소개의 경우, 2차 제출작들과 심사과정, 심사방법, 심사총평, 작품별 성적(장단점) 등이 세부적으로 언급되었다. 다만, 별도의 비평가사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건축사지(1967.6)에서도 공간지 내용과 유사하게 입선작 3점의 설명서, 도판이 게재되었다.³⁾

□ 발주처와 설계자의 갈등

정부청사의 평면계획, 기초 및 구조방식 등에 대해서 발주처와 건축가는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1967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다양한 기사들이 다루어졌다. 이에 건축사협회에서도 조직적인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지를 통하여 자세히 소개되었다.

공간지 1968년 1월호에는 논단 ‘정부청사설계시비’에서는 주요한 문제점을 우리의 기술로 가능한것인가의 문제와 설계공모로 진행되었으나 당선작이 아닌 입선작 3점을 선정하여 절충하게 한 것이 건축가의 위상을 무너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⁴⁾

일간지에서도 1967년 11월 말에 건축계와 총무처의 갈등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다. 매일경제(1967.11.29.)에 따르면, 나상진의 설계에 대해서, 사무실 내부의 기둥, 지질조사 및 기초공법의 불합리, 콘크리트조립식을 통한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건축사협회는 “국내건축사들의 권위를 무시,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처사라고 결의, 시정해주도록 건의키로했다”고 한다.

매일경제(1967.11.30.)에서는 총무처장관이 건축사협회의 ‘매트파운데이션’ 공법에 대한 불안정함을 이유로 ‘케이존피아’식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검토 중이며, 계약조건에 총

3) 건축분야에서 담론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설계단계에서의 중요한 건축가의 매체는 설계공모의 경우, 설계설명서, 패널에 표현된 글과 도면, 투시도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체인 일간지, 건축전문지에서 인식되어진 건축물에 대한 것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더 세부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4) 현재에도 설계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계획안은 계약상으로는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따라 협상 이후에 차순위자에게 계약이 진행되기도 한다.

무처의 설계변경이 자의로 가능한 조건과 10월 30일까지 납품의 1/3만 제출하였다고 하고 있다.

동아일보(1967.11.30.)에서는 나상진은 평판기초 공법이 적합하고, 조립식 건축은 유럽, 미국 등에서 실험단계로 우리나라의 공장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유없이 총무처가 한국건축계를 불신하는 것을 작가적인 양심에서 규탄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발주처는 기초공법을 변경하고, 철근강구조에서 조립식공법으로 변경하며 내부평면에서도 기둥을 벽과 일치시켜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1967.12.1.)에 따르면 이러한 발주처와 설계자의 갈등 속에서 건축사협회 내의 갈등을 이번 일을 계기로 결집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발주처는 건축사에게 기초설계도만 제출되었고, 추가적인 시방서, 내역서, 구조계산서, 주차장설계도 등 계약에 제시된 도면을 내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건축사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있는 듯하게 말하고 있다.

□ 설계자 변경에 대한 발주처와 설계자의 갈등

1968년 2월에 발주처와 설계자의 갈등은 설계자가 PA&E로 변경되는 계약이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서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청사설계자문위원회들의 의견도 무시한 것에 대해서 규탄성명서 발표 및 성토대회 등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매일경제, 1968.2.17.)(동아일보 1968.2.17.) 건축가협회는 세계건축가연맹에 제소하여 조사단파견 등을 요청하였다.(1968.2.20.)

건축사지(1968.1)에는 정부청사에 대한 총무처의 지적에 대해서 건축의장, 재료, 구조, 시공 등 16명의 전문가로 건축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기초공법, 기둥처리, PS콘크리트, 코아의 변경문제 등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국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설계안의 적정성이 설명되었다. 또한, 좌담회 개최(1968.2.21) 등을 통하여 지적되어왔던 문제들을 공론화하고자 하였다. 주로 공법적인 문제와 안전성 등을 이유로 외국 PA&E건축사에게 설계권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기술적인 답변과 더불어서 한국의 전문가 집단과 외국과의 경쟁의 모습으로도 보여진다. 당시 좌담회에는 백기완 평론가, 조영무 청년건축가⁵⁾가 참여하였고, 김종업은 “외주는 역사의 반역행위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하였다.⁶⁾ 이후로 진행된 국회의사당 건립사업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언급은 더

5) 건축사지 1968.3에 당시 좌담회 정리된 글에 표기된 직책을 표기하였다.

6) 좌담회 당시 해외일정으로 녹음을 통하여 좌담회 장소에서 시연되었다.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사당 건립과정에서도 설계공모로 진행된 당선자에게 설계권이 부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과 설계공모 방식에 대한 오해 등으로 정부청사와 함께 언급된다.

④ 운영단계

□ 정부청사 입주 부서에 대한 논의

1968년 1.21 사태 등으로 인한 중앙집중보다는 분산배치 및 소산계획 등으로 인하여 정부청사에 입주하는 부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향신문(1970.2.7.)에서는 당초 광화문 일대에 정부청사와 동일한 제2청사를 마련하여 중앙청과 연결하는 지하도로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재정상의 이유로 무산되었고, 당초 대통령 집무실, 국무총리실 입주계획도 변경되었다.

□ 건축물 소개 : 정부청사는 우리나라 최대건물

정부청사의 소개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대건물’이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동아일보(1970.12.12.)기사에 다음과 같이 소개된다. “4,719평 대지, 지하 3층, 지상 19층, 탑상 3층으로 모두 이십오층으로 총 건평 이만일천삼백십팔평(높이 95m)의 우리나라 최대건물이 된다.”

□ 대형 업무용 공공건축물에 대한 거부감

경향신문(1970.12.23.)에서 제목으로 ‘44억원 들인 호화판 정부종합청사’라는 제목에서 10개 부처, 1개 청이 입주, 지상 19층의 규모, 공사비 43억9천만원, 2만1천3백18평의 규모, 재료 및 인력 등을 언급하고 있다. 최초로 진행된 대형 업무용 공공건축물에 수도권 비상시 소산계획, 수도권인구분산정책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지의 적정성부터 외산재료를 사용하였다는 점, 외부공간에 담장을 설치한 점 등을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다. 건축가 나상진도 지속적으로 슬립폼 공법이 창고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무실건축에 사용이 불합리함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지에서는 슬립폼 공법에 대한 소개 등을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소개도 진행하고 있다.(건축지, 1970.3)

□ 준공 이후 사고에 따른 종합적인 문제점 비판

준공 이후 화재 및 승강기 사고 등의 기사가 연속적으로 다루어졌다. 동아일보(1971.1.15.) ‘실수연발 정부종합청사’의 기사에 따르면, 김중업과 나상기가 참여한 진단에서 기본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용면적에 비하여 단일복도로 인한

통로가 좁아서 출입이 불편하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인데 평면이 철골로 되어 구조적인 문제, 기계적인 환기에 따른 공기오염 문제, 주차장 부족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하여서 기존에 습식공법에 익숙하였던 상황에서 건식공법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을 것이다.

□ 건축물과 주변환경과의 조화에 관한 문제

동아일보(1970.12.24.)는 특이하게 오늘날의 건축물의 경관적 차원으로 당시에는 “도시미”라는 표현으로 다루어졌다. “건물이란 높다고 중요하지 않고 좌우의 산천의 경계와 구조적인 균형을 이를 때에만 비로서 도시미와 건축미가 어울린다. (중략) 지금 청와대와 중앙청이 있는 경복궁 일대는 북안산과 북한연봉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그 자연미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미의 극치라고도 할 수 있겠다. (중략) 다시 한 번 우리의 수도 서울의 뒷배경과 능선들이 지나고 있는 고유미와 멋을 눈여겨 보라.”

⑤ 소결

□ 조성과정에 대한 담론

- 기획단계(발주처 총무처-(이용자)각 부처)

1966년부터 정부 각 부서가 동시에 입주하는 청사를 마련하게 되면서 위치, 사업예산화 보에 대한 기사가 주로 다루어진다. 기존 청사를 매각하면서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문제와 입지를 용산, 한강이남 등이 논의되었다.

- 설계단계(발주처 총무처-1차 설계자-건축계)

총무처에서는 고층업무시설을 진행하면서 구조적 안전성 등을 문제로 나상진에서 미국의 PA&E로 설계자를 변경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나상진과 대한건축사협회를 주축으로 하는 건축계와 논쟁을 펼친다. 주요 논의사항은 총무처의 설계불합리성에 대한 논리적 반발과 동시에 외국건축에 대한 국내건축법 위반, 이중계약 등의 법적 문제와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정부재정부담의 문제, 국내 건축가의 자존심 등에 대한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 운영단계(발주처 총무처-수요자 정부각부처-1차 설계자)

총무처에서는 입주할 부서를 결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운영단계에서 건축물은 “우리나라 최대건물”임이 강조되었다. 정부청사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건축물이 가지는 상징성을 나타낸다. 동시에 최대건물을 처음 경험하게 되면서 발생

한 문제점 및 이질적인 부분도 다루어졌다.

- 정부종합청사의 담론

주요담론⁷⁾으로 논의되었던 것은 설계안에 대한 발주처와 건축가 그리고 건축계의 논의였고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표 4-1] 정부종합청사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기획단계 (정부-총무처)	설계단계 (발주처-설계자, 건축단체)	운영단계 (정부-총무처)
일간지 청사건립 재원 및 입지	설계공모 입선작 선정 발주처와 설계자의 갈등 설계자 변경	정부청사 입주부서 건축물 소개 : 최대건축물 최대건축물에 대한 불신 호화청사 논란 준공이후 각종 안전사고 건축물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전문지	설계공모 입선작 선정 설계자 변경 발주처와 설계자의 갈등	슬립폼 공법 소개

*볼드 표시는 주요 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정부종합청사의 담론에 있어서 중요하였던 담론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종합청사 토론회에서 핵심적인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론회는 설계자가 나상진에서 PA&E로 바뀌었다는 기사가 나면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건축계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다. 당시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다만, 정부종합청사라는 건축물의 담론적 차원에서 주요한 발주처와 건축사의 논의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행사였다.

당시 참석자는 설계자인 나상기, 건축가협회장 송민구, 평론가 백기완, 화가(건축미술) 도상봉, 청년건축가 조영무, 연대건축과 교수 김정수, 김중업(녹음자료발표), 김수근(대통령 각하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이다. 김정수는 총무처장관 기술고문으로도 활동하여 총무처에서 진행되었던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총무처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행하였다. 지속적으로 설계안에 대해서 진행이 합리적인지 총무처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⁸⁾ 이전에 정부종합청사 건축대책위원회에도 대한건

7) 정부종합청사의 사회적 담론은 주로 개별 담론 수준에서 다루어졌다. 어느 한 주체만의 일방적인 이야기는 개별 담론의 수준이었고, 개별 건축물의 담론구조의 주요 주체들 간에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을 주요 담론.

8) 나상진, PA&E, 김정수, 윤장섭, 총무처의 대안이 검토되었다. 설계자 외에도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 총무처는 차문위원(윤장섭) 및 설계공모 참여자(김정수), 기초설계자(PA&E)를 통해서 검토하였다.

축사협회 김재철, 강대웅, 강봉진, 강진삼, 강명구, 김수근, 김동규, 김중업, 배기형, 송민구, 이천승과 교수⁹⁾로는 김정수, 김희춘, 변보협, 함성권, 홍봉휘가 참여하였다. 건축학회 차원에서의 대응보다는 개별 건축가 자격으로서의 논의가 있었다.

[표 4-2] 정부종합청사 주요 담론

발주처	건축사(+건축사협회)
기초공법 케이슨공법	매트파운데이션공법 (지질단면도, 사례2개소), 경제적 효율성
평면 (기둥처리) 코아변경	기둥을 외벽에 맞추도록 함 건물외관디자인 재설계 필요 (구조적 불안정(무량판 구조))
단일복도	2중 복도 (일반층 CORE분석, 모듈)
공법 PS콘크리트 W.T형 법 사용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효과 없음 (구조상 약점)

*대한건축사협회(1968.3), 토론회, 정부종합청사 설계에 관해서, 건축사지 3권 6호, p11-26
대한건축사협회(1968.1) 정부종합청사설계가 정말 변경되나?, 건축사지 제3권 5호, p39-44 재구성

9) 교수로 구분한 것은 앞서의 사람들은 “회원”이라는 명칭으로 추정하였을 때 설계, 구조 등의 전문가 자격도 있겠으나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표 4-3]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정부종합청사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1967.5	정부종합청사 설계경기 응모작품 - 11개 제출작 작품소개, 심사규정 및 삼사방법, 심사총평 및 작품별 성적	정부종합청사 (정부서울청사)	〈건축사〉
1967.6	정부종합청사 가작품설계 가작 입선작 3점에 대한 소개(설계설명서, 도판)	정부종합청사 (정부서울청사)	〈공간〉
1967.6	설계경기에 대한 기본적 고찰 (이승우) 설계경기에 대한 일반론적 설명 정부종합청사 설계심사과정 및 채점 결과	정부종합청사 (정부서울청사)	〈건축사〉
1968.1	정부종합청사설계가 정말 변경되나? (편집부, 나상기)	정부종합청사 (정부서울청사)	〈건축사〉
1968.1	(논단)정부청사 설계시비, 불신의 근거, 68년 미술계 전망 (편집부)	정부종합청사 (정부서울청사)	〈공간〉
1968.3	토론회-정부종합청사 설계에 관해서 김재철(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강대웅(이사) 나상기, 송민구, 백기완, 도상봉, 조영무, 김정수 (김중업, 김수근)	정부종합청사 (정부서울청사)	〈건축사〉
1968.3	외주는 역사의 반역행위다-정부종합청사 설계 및 건립에 관하여 (녹음으로 전함) (김중업)	정부종합청사 (정부서울청사)	〈건축사〉

2) 국회의사당

① 건축물 개요

* 국회의사당

- 위치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 건축면적 : 21,877m²
-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 층수 : 지하1층, 지상 7층
- 설계자 : 김정수
- 시공자 : 현대건설(주), 대림산업(주)

(건립연혁)

- 1948 제헌국회 의사당(구 중앙청)
- 1950 경남도청 무덕진(임시의사당)
- 1954 태평로 국회의사당
- 1959 남산 국회의사당 설계공모 (당선자 김수근 팀)
- 1961 사업 취소
- 1968 국회의사당(여의도) 설계공모 - 아이디어 공모
국회의사당 설계공모 - 지명공모(김중업, 이광노, 김정수, 이해성, 강명구, 김수근)
- 1969 착공
- 1975 준공

※ 출처 : 경향신문 블로그 향이네
<http://h2.khan.co.kr/201510030030431>

② 기획단계

□ 사업기획

국회의사당 건립과 관련하여서 해외시찰단(현오봉 국회의사당건축위원회 위원장, 유청부위원장 민중당 국회의원, 윤장섭 교수)과 박정희 대통령 청와대 접견에서 주요사항으로 남북통일에 대비, 양원제 실시에 적응, 민주주의의 상징, 역사적인 대규모건물, 국내 기술진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다.¹⁰⁾

□ 입지

1966년 서울시에서는 최종 후보지로 사직공원을 제시하였다. 당시 남산, 종묘, 용산(삼각지), 말죽거리, 김포 등이 검토되었다.¹¹⁾ 이후에 다시 후보지는 서울컨트리클럽이 제

10) 경향신문 1966년 5월 6일 국회의사당건립 5개년계획 추진.

11) 동아일보 1966년 3월 14일 사직공원을 최종 결정, 경향신문 1966년 3월 14일 14층의 새국회의사당.

시되었다. 당시 후보지는 사직공원, 서울중고등학교, 종로 3가와 4가사이, 철도청과 서빙고역 중간, 해병대사령부, 김포일대, 제3한강교일대 등이었다.¹²⁾

국회의사당 건립위원회는 국회의사당 입지를 여의도로 확정하고 건립계획을 마련하였다. 총예산규모 및 건축물 규모, 주요 용도가 소개되었고 공사기간 등이 소개되었다.¹³⁾

당시 국회건설과에서 의사당설계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규모와 계획안을 제시하였으나 정부측이었던 이석재 총무처장관은 입지는 위임하되 설계는 공모해야 함을 주장하고 국회에서 마련한 설계안은 참고자료로 사용하기로 하였다.¹⁴⁾

□ 여의도 계획

여의도는 1968년에 6월 1일 1단계 윤증제가 완성되었다. 국회의사당 외에도 시청사, 박물관 등 다양한 공공건축물과 고층아파트 등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1969년 1월 여의도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었다. 주요내용은 국회의사당, 서울시청, 외국공관, 상업지역, 주거지역, 교육시설, 후생시설, 유보지 등이 계획되었다. 서울시청권에는 시민박물관, 도시관, 민족의 광장, 공원 등이 계획되었다. 토지매각대금 70%는 서민아파트 이촌동 건립자금, 30%는 상하수도 연료공장설비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¹⁵⁾

③ 설계단계

□ 설계공모

1968년 5월 31일 국회사무처에서 설계공모가 공고되었다. 당시 명칭은 국회의사당신축계획설계안 모집공고였으며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2개월의 공모기간(마감기간 8월 10일)이 주어졌다. 참여자에게는 국회의사당건립기본계획기준 등이 제공되었다.¹⁶⁾

1968년 6월 한국건축가협회에서는 공모의 부당성이 지적되었다. 저작권 불인정, 본설계참여와 이의제기 불가, 당선작 없는 우수작 선정, 2개월의 짧은 기간, 과소한 상금 등에 대한 사항이었다.¹⁷⁾ 설계공모 당시에는 일반공모 외에도 6명의 건축가에 대한 지명

12) 경향신문 1967년 12월 19일 의사당 후보지로 모진동.

13) 동아일보 1968년 2월 15일 국회의사당 여의도 확정, 매일경제 1968년 2월 15일 국회의사당 76년 준공.

14) 동아일보 1968년 2월 15일 새벽 영시반 청와대에 전화 중 국회의사당 관련 내용 정리.

15) 동아일보 1969년 1월 21일 여의도 토지이용계획 확정.

16) 매일경제 1968년 6월 3일 설계안현상모집 국회의사당신축.

17) 경향신문 1968년 6월 19일 저작권 침해 항의.

설계공모도 진행되었다. 협회에서는 설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모하지 말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국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장점을 취하여 설계하기 위한 것이며 사용되는 안에 대해서는 공동저작권을 인정할 것임을 밝히기도 하였다.¹⁸⁾

이렇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배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도 기사화가 되었다. 첫째, 지명설계자 6명의 선정과 관련하여서, 이광로(서울대), 김정수(연세대), 강명구(홍익대), 이해성(한양대)의 추천과 김수근은 기존 남산국회의사당의 경험, 김중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윤장섭은 건립위원회 상임위원, 기술자문위원, 작품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축연구소에서 2년간 설계안을 마련하여왔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기술자문위원, 지명설계자 6인이 이면교섭을 진행하여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이다.¹⁹⁾

1968년 8월 일반공모의 응모작은 8작품으로 학생과 신진작가들이었다. 지명설계공모에 김수근, 이해성은 참여하지 않았고 제출은 8월말로 연기되었다.²⁰⁾ 당선작은 안영배, 조창한의 합작품이 선정되었다.

당시 설계공모는 현재의 아이디어 공모의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대규모 건축물이라는 점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 되는 형식이어서 오해가 있었다. 또한, 1967년 정부종합청사(정부서울청사) 건립과정에서 설계자변경 등이 있었던 상황 등에서 건축계에서 이슈가 되었다.

전문지 건축사지 1968년 7월호에는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국회의사당 본 설계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주제였다. 6명의 건축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계안 공모에 대한 만족, 저작권 문제, 작업시간, 상금의 적정성, 공개공모와 지명공모의 동시진행 등에 대한 질문이 제시되었다.

공간지 1969년 3월호에 정인국은 2월에 신문화관에서 진행된 국회의사당건물설계도안의 종합 전시회 후기를 게재하였다. 건축물의 표현과 가치판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어서 무난한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독창적인 의지를 표현할 것을 요구하였다.

건축사지 1969년 7월호에는 설계에 참여한 안영배의 ‘은근과 끈기-국회의사당을 설계하면서’가 게재되었다. 많은 관심을 가졌던 국회의사당의 경우, “한 명의 건축가에게 절대적인 권의를 인정하기 전에는 한사람이 주도해 나가기에는 벅찬 감이 없지 않다”고 이

18) 매일경제 1968년 6월 25일 아리송한 국회의사당 설계모집.

19) 매일경제 1968년 6월 28일 설계비 1억 쟁탈의 서곡.

20) 매일경제 1968년 8월 16일 국회의사당설계 8명 응모, 매일경제 1968년 9월 4일 국회의사당설계 입선작 3점 선정.

야기하고 있다. 즉, 다양한 주체들인 사무당국, 국회의원 등 참여와 논의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건축지 1970년 9월에는 윤장섭의 ‘국회의사당건립계획에 관하여’가 게재되었다. 1970년 7월에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에 발표된 내용으로 건립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추진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설계공모 이전에 ‘의사당건립기본계획²¹⁾’에서 가상의 대지에 30만평 규모를 가정하여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건립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내용 등을 밝히고 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일괄되게 건축물을 이끌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 까지 공공건축물이 가지는 이러한 모습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세종청사의 마스터플랜, 서울시청의 최종 설계공모 당선안 등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반복하여서 확인할 수 있다.

설계공모 당선안은 그대로 지어져야 하는가?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라는 시사점은 현재에도 계속된다.

□ 설계안 확정과 둠

1969년 5월 13일 국회의사당 설계가 확정되었다.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기본설계의 지붕이 타협을 의미하는 8각형 둠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공사비가 85억으로 결정되었다.²²⁾

5월 말에는 국회의사당 지붕 ‘돔’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의사당설계안에 대한 권위가 없다는 여론에 따라 건립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반영되었다. 이에 대하여 건축계에서는 많은 반대가 있었다.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덧붙여진 것이라는 부당성(한국건축가협회), 둠 양식은 콜로니얼스타일로 민주의 전당에 적합하지 않은 것(안병의)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치권력이 건축예술에 개입하였다 는 지적이 있었다.²³⁾ 건립위원회 상임위원 윤장섭 교수는 “돔은 여야의 대립을 조화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서 신용남 의원은 “무덤과 같은 인상이 풍긴다”고 평하거나 주원(전 건설부장관)은 “국민에 군림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겠느냐”는 의견 등이 있었다.²⁴⁾

21) 당시 자료는 국회의사당건립기본계획기준(국회사무처, 1967)으로 발간되었다.

22) 경향신문 1969년 5월 13일 의사당 설계확정.

23) 경향신문 1969년 5월 28일 「돔」을 언져야하나.

24) 경향신문 1969년 5월 30일 기사.

④ 공사단계

□ 공사주관 : 국회위원과 사무처

당시 국회의사당 공사비는 87억원으로 정부종합청사 32억원의 두 배로 큰 사업이었다. 국회의사당건립위원회에는 국회위원이 주도가 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사무국에서는 건립위원회에는 자문기구이므로 집행은 사무국 주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²⁵⁾

□ 기공식 및 준공식

1969년 7월 17일 기공식과 1975년 9월 1일 준공식 개최소식이 단신으로 다루어졌다.

□ 공사 철강제 입찰

공사추진 과정에 철강제 사용과 관련하여서 조달청입찰이 진행되었다. 당시 최저가격 입찰로 국내 업체가 선정되었음에도 시공경험 및 신용 문제 등으로 가격보다 제품이 품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신일본제철이 낙찰되었다.²⁶⁾

⑤ 운영단계

□ 건축물 조성과정

공간지 1975년 10·11월호에는 준공시점에 당시 심사위원, 설계자 등이 다시 조성과정을 기록하였다. 배기형(설계공모 당시 한국건축가협회장)은 설계공모의 부당성에 따라 심사위원을 사퇴하였던 사유와 당시의 분위기를 밝히고 있다. 당시 설계공모 제도의 부당성만 강조되었으나 국회의사당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언급하고 있다. 남산국회의사당 건립이 4.19혁명으로 무산되면서 새로운 민중의 대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사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으나 제한된 설계공모의 형식에 대한 비판이었다. 또한 설계경기가 시작된 시점은 1968년은 1963.12.「건축사법」이 제정된 이후로 건축계 내부의 분열에 대한 우려도 지적되어서 당시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제명하기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공모의 우수작으로 설계에 참여하였던 안영배는 '다난했던 설계경로'를 통하여 당시를 기록하고 있다. 설계공모에 응하는 '온건론'과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론'으로

25) 동아일보 1968년 11월 15일 87억짜리 의사당 주관싸움.

26) 경향신문 1970년 11월 28일 입찰에 이기고도 판정에 져 의사당철강제 일본회사에 낙찰 내정.

구분하고 있다. 당시 문장에서는 참여자로서의 괴로움이 표현되어 있다.

“강경론과 온건론과의 대립은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목적에 대해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어느쪽이 더옳다고 하는 것은 판별하기는 힘들다. 이럴 때마다 항상 강경파는 온건파를 원망했지만 괴로움을 무릅쓰고 일을수 습하려고 노력한 것은 온건파이기도 했다. 講經濟論者는 이것을 「글욕」이라고 했고, 穩健論者는 이것을 「극복」이라고 했다.”²⁷⁾

추진과정에서는 설계경기위원회가 조직되었고 기술자문위원회 인사로 김충기, 윤장섭과 도시설계 주원 및 작품을 제출한 김중업, 이광로, 안영배로 구성되었다. 원정수도 제출하였으나 외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계획의 큰 방향으로 중앙공간을 마련하고 좌우로 상하양원 회의장을 두고 주변으로 사무실을 둘러싼 장방형으로 결정되었다. 다양한 건축가들이 참여하여 하나의 안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기본설계 추진과정에서는 김중업, 이광로, 안영배가 참여하였다. 당시 대학교수는 계약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광로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김중업, 이광로가 계약자였다. 본 설계에서는 김정수, 김중업, 안영배가 계약자가 되었다. 안영배는 교수직을 사임하였고, 이광로는 사직서가 반려되어 계약자가 되지 못하였다. 기본설계과정에서는 기능보다는 외형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국회의 요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중앙청간물보다 높이도 높고, 길이도 큰 석조간물로서 주랑이 있고 중앙에 둠이 있는 위엄있는 건물, 이것이 바로 국회의사당에 요구되는 건물의 이미지였다.”²⁸⁾

설계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하여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것을 국회 사무처에서 요구한 것이었고 한명의 건축가에 의해서 이러한 설계과정이 가능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진다. 건축계에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건축가는 건축가의 고귀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건축가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사회적인 여건조성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²⁹⁾

실무를 진행하면서 겪어야 하였던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김원은 ‘한국적 절충주의 시급한 정돈을 위하여’를 통하여 국회의사당에 대하여 다음과

27) 안영배(1975.10.11.), (특집) 1975년에 지어진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 ‘다난했던 설계경로’, 공간지 101호, p.350.

28) 전제서, p36.

29) 전제서, p37.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쉽게 두 개의 과정상의 오류를 간파할 수 있다. 그 하나는 ‘한국적’과 ‘현대건축’의 중간에 선 절충적 발상이며, 또 하나는 ‘중지를 모은다’는 피상적 합리성이다”³⁰⁾

□ 의사당 지붕 변경

1998년에 의사당 지붕의 돔을 철거하고 기와로 계획하는 방안이 잠시 언급되었다. 건축물 진단결과 지붕 붕괴위험이 제기되어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비가 예산이 반영되면서 촉발되었다.³¹⁾ 당시에는 경제가 좋지 않았던 상황으로 경제가 예산낭비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1년 후 좀 더 자세하게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비판 기사가 게재되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설명은 돔의 철거가 아니라 의사당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한국조형미’의 특성을 담은 구조변경을 검토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건축계는 공공건축물에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³²⁾

건축계에서도 건축가의 독창적인 예술성이나 정부의 요구와 맞서서 설계안을 관철시키는 것이 옳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인지, 예술인 혹은 지식인으로서의 건축가의 안목과 진단을 믿을 것인지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담론의 주제이다.

당시 건축문화의 해 특집으로 마련되었던 동아일보 연재기사에서 서현은 ‘우리 거리’읽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건축가에게 요구하는 사회도 문제이지만, 그 것에 부합하는 건축가들도 문제이므로 건축가들에 책임을 물으라 이야기한다.³³⁾

⑥ 소결

□ 일간지 및 전문지

국회의사당은 일간지에 전체 조성과정별로 지속적으로 소개되었다.

전문지에서는 설계공모 시점인 1968년에 설계공모 참여작을 소개하였고, 준공시점 시점인 1975년에 건축물 조성과정에 대하여 다루어졌다.

30) 김원(1975.10.11.), (특집) 1975년에 지어진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 ‘한국적 절충주의의 시급한 정돈을 위하여’, 공간지 101호, p35.

31) 한겨레 1998년 12월 26일 의사당 돔 헐고 기와 올리기로 예산낭비 비난 일어.

32) 한겨레 1999년 2월 6일 사회 속 건축, 건축 속 문화 3 과시욕과 상투성이 빚어낸 ‘사생아’들.

33) 동아일보 1999년 7월 6일 서현의 ‘우리 거리 읽기’ 황폐해진 도시 후손에 물려줄순 없다.

□ 설계공모

1968년은 1967년 진행되었던 정부종합청사 사업에서 건축사가 변경되는 것으로 이슈가 되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으로의 설계공모 제도가 시도되었다. 지명초청공모와 공개공모가 동시에 진행되고 심사는 같이 진행하는 방식이었으나 당시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익숙했던 상황에서는 생소한 방식으로 논란이 있었다. 특히, 설계과정에 교수가 참여하면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표 4-4] 국회의사당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기획단계	설계단계	공사단계	운영단계
일간지	사업기획 입지 - 후보지 - 여의도개발	설계공모 -저작권 지붕 둘 설치 -정치의 건축 관여 -식민주의양식	공사주관 기공식 공사 재료입찰	의사당 지붕변경
전문지		설계공모 -운영방식관련 논란 (저작권, 상금, 기간 등)	건축물의 표현, 가치 판단의 문제	설계과정 전반 검토 - 설계공모 과정 - 설계, 시공과정 및 의미 - 절충주의 문제

*불드표시는 주요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표 4-5]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국회의사당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1968.10	국회의사당 신축계획설계안 일반공모 및 지명작가설계안	국회의사당	〈공간〉
1968.8	앙케이트-의혹질은 국회의사당 신축설계	국회의사당	〈건축사〉
1969.2	국회의사당기본계획(원정수, 김정철 ³⁴⁾)	국회의사당	〈공간〉
1969.3	신국회의사당건물의 고민 (정인국)	국회의사당	〈공간〉
1969.5	국회의사당 신축설계 - 용역계약에 대한 사정 건의	국회의사당	〈건축사〉
1969.7	은근과 끈기-국회의사당을 설계하면서(안영배)	국회의사당	〈건축사〉
1970.9	국회의사당 건립계획에 관하여	국회의사당	〈건축〉
1975.10	1975년에 지어진 여의도 국회의사당(편집실)		
	국회의사당 준공에 즈음하여 그 당시를 되돌아본다(배기형)		
	어려운 바둑수 풀기보다 어려워(이해성)		
	국회의사당 설계전모(김정수)	국회의사당	〈공간〉
	다난했던 설계경로(안영배)		
	한국적 전형화(이상순)		
	한국적 절충주의의 시급한 정돈을 위하여(김원)		
	설계와 시공후의 문제점들(편집실)		

34) 김정철은 한국외한은행 기사 자격으로 '국회의사당 기본계획' 공개전시회 이후의 소감을 작성.

□ 조성과정에 대한 담론

기획단계에서는 위치할 여의도에 대한 기사와 연계하여 일간지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설계단계에서는 발주처로서의 국회의원 및 사무처직원과 건축가 관계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공사단계에서는 공사업체 및 기공식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운영단계에서는 최근에 지붕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 1970년대 : 사회 공공서비스 시설

1) KBS청사(한국방송공사청사)

① 건축물 개요

* KBS청사(한국방송공사 청사)

· 위치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건립개요)

1972 설계공모 진행

1973.3 제일방송에서 공사로 전환

1974.4 착공

1976.10 준공

② 기획단계

□ 사업소개

1973년 한국방송공사가 출범하면서 1974년 착공하게 되었다. 사업비는 건축비 81억원
이 방송장비는 차관으로 7백50만달러가 도입되었다.³⁵⁾

□ 청사이전

남산에 위치하였던 기존 KBS건물에는 국토통일원이 장충동에서 이전하였고 국립공보
관이 여의도에서 영화진흥공사 내 건물로 이전하였다.³⁶⁾

③ 설계단계

□ 설계공모

건축가지 1973년 1/2월호에서 KBS청사 현상설계공모작품이 소개되었다. 설계공모 경
과 및 규모, 설계 제출작 등이 소개되었다. 당시 심사에서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못하였다.

35) 동아일보 1976년 10월 28일 방송공사여의도종합청사 11월에 방송개시.

36) 경향신문 1977년 1월 14일 통일원청사 이전 구KBS건물로.

동아일보 1977년 1월 11일 중앙청주변.

매일경제 1977년 5월 21일 공보관청사 이전.

일간지에서는 설계공모가 언급되지 않았다. 당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설계경기와 관련하여서 국제기준 등을 바탕으로 건축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한국건축설계경기 규준이 제정되어 게재되었다.

공간지에서도 설계공모 수상작이 소개되었다. 당시 설계공모에 참여하였던 지순은 설계공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④ 공사단계

□ 준공식

당시 준공식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하였다. 당시 건축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KBS시설을 규모있게 크게자은 것은 의사당 건립과 마찬가지로 하나씩 국력을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³⁷⁾

⑤ 소결

□ 일간지 및 전문지

일간지에서는 단신기사로만 다루어졌다. 반면, 전문지에서는 설계공모 진행과정과 사업개요, 전시회 당시 제출되었던 작품을 소개하는 정도로 진행되었다.

□ 설계공모

설계공모와 관련하여서 당시 심사에서는 선정작이 선정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설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계공모에 참여자였던 지순은 공간지를 통해서 문제점일 지적하고 있다.

□ 조성과정에 대한 담론

주요한 담론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획단계에서는 기존 청사건물들의 이전관련한 사항이 다루어졌다. 준공식 등에 대통령이 참석한 사실정도만 언급되고 있다.

37) 경향신문 1976년 12월 2일, 한국방송공사 준공식서 박대통령, 이신민대표와 환담.
동아일보 1976년 12월 2일, 매일경제 1976년 12월 2일 기사도 내용이 동일하다.

[표 4-6] KBS청사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기획단계	설계단계	공사단계	운영단계
일간지	사업규모 청사재배치	-	준공식	-
전문지	-	설계공모	-	-

*볼드표시는 주요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표 4-7]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국회의사당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1973.1.2	제언-경기설계에 대한 소고 KBS청사 현상설계공모작품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	KBS청사	〈건축가〉
1973.1	KBS방송청사 설계공모 입선발표(편집부) 입상작, 등외 응모작 (응모자의 번) KBS현상이 우리에게 준 문제(지순) * 당선작 없음	KBS청사 (KBS방송청사)	〈공간〉

2) 서울시민회관(세종문화회관)

① 건축물 개요

* 서울시민회관(세종문화회관)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1번지 3
- 대지면적 : 3,460평
- 건축면적 : 9,000평

(연혁)

1973.1.23 설계공모 공고(서울특별시 건설국 영선과)
1973.4.20. 제출마감
1973.5.1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1978. 4 개관

* 출처 : 설계공모 공고문(서울특별시공고 제7호, 1973.1.23.)

② 기획단계

□ 시민회관 건립계획

1972년 12월 초, 기존의 시민회관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1973년 1월 22일에 서울시는 시민회관건립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시민회관과 예총회관 부지에 객석 오천석의 대강당, 육백석 규모의 순수음악당, 오백석 규모의 소강당, 미술 및 공보전시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건립위원회와 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설립계획을 추진하고 23일 설계공모를 공고하였다. 착공은 8월 15일, 75년 12월말 준공예정, 공사비는 38억원, 예총회관은 철거된다.³⁸⁾

③ 설계단계

□ 설계공모

일간지에서는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엄덕문이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단신으로 다루어졌다.³⁹⁾

38) 동아일보 1973년 1월 22일, 3천4백평에 객선 5천으로 시 예총회관도 헬어 시민회관 신축.
경향신문 1973년 1월 22일, 설계도 현상모집 불탄 시민회관 자리에 연9천평 새건물.

39) 동아일보 1973년 5월 3일, 시민회관 신축설계 공모서 최우수작 엄덕문씨.

건축가지 1973년 5.6월호에는 서울시민회관 설계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게재되었다. 응모작품, 심사과정, 당선작으로 구성되었으며 설계공모에 참여하였던 심사위원장이 심사소감, 당선자의 작품설명 등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송종석은 ‘2단계 현상설계 공모제를 제안하면서’를 통하여 1970년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설계공모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과 지명설계자의 수준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2단계 공모방식을 통하여 1단계에 대략적인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2단계에 구체적인 지침을 통한 설계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정한 방식임을 주장하였다.

공간지 1973년 6월호에는 수상작의 도면들이 소개되었고, 심사위원의 심사소감과 수상자들의 참여소감이 게재되었다. 심사소감은 주요 심사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등이 제시되었다.

④ 공사단계

□ 건립계획 확정

1973년 8월 시민회관 건립계획이 최종확정되었다. 용도에 대해서는 연초에 발표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규모로 기사회되었다. 공사는 3단계로 구분되어 1차공사는 지하공사, 2차공사는 건축골조와 설비 및 배관공사, 3차 공사는 건축골조 및 내부공사설비완성공사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⁴⁰⁾

□ 착공 및 준공

1973년 10월 착공하였고 1978년 4월 준공하였다. 준공시점에 서울시립문화회관의 명칭을 문화계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립 세종문화회관으로 변경하였다.⁴¹⁾ 준공 과정에 대한 소개도 진행되었다. 공사과정이 50%정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적인 표현을 한 건축물이라는 소개와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언급이 되었다.⁴²⁾ 1976년에는 서울의 마천루라는 매일경제 기획기사로도 다루어졌다. 제목처럼 건축물의 주요규모에 대한 소개와 주요 시설인 파이프오르간 등이 소개되었다.⁴³⁾

40) 동아일보 1973년 8월 16일, 60억투입 구천명 수용 서울시민회관 건립계획 확정.

41) 동아일보 1978년 2월 6일, 시립문화회관명칭 세종문화회관으로.

42) 동아일보 1976년 7월 17일, 과학과예술의전당 서울시민회관 신축공정 50%진척.

43) 매일경제 1976년 1월 12일, 서울의 마천루 그 규모와 시설을 본다(7) 시민회관.

매일경제에서는 1월 5일에 기획기사를 기획하면서 임대빌딩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변화된 서울의 모습과 관련하여 당시 추진되었던 건물들을 소개하였다. 15일까지 9개의 건축물-대우센터빌딩, 방산종합시장,

⑤ 운영단계

□ 건축물 평가

개관시점에는 동양최대 규모의 객석을 갖춘 건축물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김병총은 그 동안의 문화와 달리 높은 입장료, 동양 최대 규모의 시설에 대하여 고급문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⁴⁴⁾ 또한, 정부에서 요구한 한국적 건축에 대해서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하여 건축가가 관철시킨 사례로도 평가되기도 하였다.⁴⁵⁾ 대한건설진흥회(주원 회장)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정한 10대 명건물에 2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⁴⁶⁾ 건축물의 특징을 전통건축양식을 재해석하여 한옥의 ㄷ자형 배치법으로 전통 속에 현대적 기능을 담았다고 평가한다.⁴⁷⁾

⑥ 소결

□ 일간지 및 전문지

일간지 및 전문지에 비교적 적은 기사가 다루어졌다. 일간지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고 전문지에서 설계공모 당선작이 소개되었다. 시민회관의 프로젝트 성격보다는 설계공모로 진행된 것에 집중하여 전문지에서 다루어졌다.

□ 설계공모

공간지에서는 지속적으로 설계공모에 있어서 심사위원의 관점과 참여자의 관점을 동시에 수록함으로서 담론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담론의 내용은 주로 제도적인 측면, 설계공모, 심사과정의 합리성을 위한 방법론을 고민하는 형식적인 측면에 머무르고 있다.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설계공모지침의 적정성부터 논의되어야 하지만, 관련지침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 조성과정에 대한 담론

화재사고의 발생으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었다. 한국적인 표현을 한 건축물, 동양최대 규모의 객실을 갖추었다는 등이 언급되었다.

44) 동방빌딩, 현대빌딩, 호텔롯데, 서울 프라자호텔, 시민회관, KAL신관, 코리아나백화점-이 소개되었다.

45) 동아일보 1978년 5월 11일, 서울요철(23) 세종문화회관-광화문에선 동양최대…… 고급문화시대가 오려나 가난한 문화애호자엔 겹나는 전당.

46) 한겨레 1999년 2월 6일, 사회 속 건축, 건축 속 문화 3 과시욕과 상투성이 빛어낸 '사생아'들.

47) 경향신문 1985년 5월 21일, 10대명건물선정.

48) 경향신문 1985년 3월 19일, 한국의 명건물(21) 세종문화회관.

[표 4-8] 서울시민회관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기획단계		설계단계	공사단계	운영단계
일간지	건립계획	설계공모 당선 소개 (단신)	건립계획 착공 및 준공	건축물 평가 - 전통성
전문지	-	설계공모 당선작 소개 참가작 소감	-	-

*볼드표시는 주요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표 4-9]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서울시민회관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1973.1.2	응모작품 심사요령, 당선작 발표 '2단계 현상설계 공모제를 제안하면서' (송종석) '심사에 대한 소감' (강병기) '시민회관 설계에 대하여' (엄덕문)	서울시민회관	〈건축가〉
1973.1	시민회관 현상설계 입상작품발표(편집부) 시민회관 우수작(엄덕문 건축연구소) 시민회관 준우수작(충의대학교) 시민회관 가작, 장려상 시민회관 현상설계 심사소감(강병기, 박윤성, 이정덕) 시민회관 현상설계 입상자의 변 (고주석, 안영배, 나상기, 엄덕문, 흥순인)	서울시민회관	〈공간〉

3) 한국증권거래소

① 건축물 개요

※ 한국증권거래소

- 위치 : 서울 영등포구 의사도동 33
- 대지면적 : 27,081m²
- 건물규모 : 지하 2층, 지상15층
- 연면적 : 48,282m²
-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 설계자 : 종합건축(이승우), 정림건축

(사업추진)
1975 설계공모

※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http://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num=490#.WeGxt00Ulzk>

② 기획단계

□ 한국증권거래소(명동) 건축물 매각

1980년 4월 1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시기 만들어진 건축물로서 당초 영구 보존할 계획이었으나 여의도건물 신축사업에서 예산부족 등으로 제일투자금융에 매각되었다.

③ 설계단계

□ 설계공모

건축가지에는 설계공모에 개요가 소개되었다. 당시 설계공모는 지명설계로 오웅석, 이승우, 이호진, 윤승중, 나상기, 원정수 6명이 선정되었고 최종 당선작으로는 이승우가 선정되었다.

공간지 1976년 3월호에는 특집으로 '설계현상'과 한국건축문화의 오늘이 기획되었다. 설계참여자들의 설계안에 대한 설명과 김원의 설계공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급한 현상설계 풍토개선'과 의미에 대한 검토와 설계공모 과정에 대한 문제점, 설계참여자의 소감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당시 증권거래소 설계공모의 코디네이터로 김원이 참여하였다. 이규목, 김석철, 김원

석, 민현식, 김원이 참여하여 ‘문화로서의 건축과 생활공간의 이해-증권거래소 현상설계가 남긴 문제점’이라는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당시의 주요지적은 다음과 같으며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④ 운영단계

□ 건축물 소개

1985년 3월 26일 경향신문에 ‘한국의 명건물’⁴⁸⁾ 중 하나로 한국증권거래소가 선정되었다. 여의도라는 곳에 도시적 환경을 고려한 건축물로 계획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설계자의 말이라는 코너로 같은 면에는 설계자인 이승우(종합건축)의 글이 소개되었다. 건축물은 ‘거래소 건물’과 회사가 들어서는 ‘타워형 건물’ 두 개로 구분된다. 기능에 따른 형태적 구분에 대한 설명 뿐이다.

⑤ 소결

□ 일간지 및 전문지

일간지에서는 초기단계에 기존 명동에 있던 건축물에 대한 매각관련 기사만 있고, 이후로 ‘한국의 명건물’ 중 하나로 소개되었다.

전문지에서는 당시 설계공모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진행되었다.

[표 4-10] 한국증권거래소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단계
일간지	이전 (명동에서 여의도)	-	-	우수건축물로 소개
전문지	-	설계공모 심사관련 -심사소감 -설계공모 문제점 -참여자단상	-	-

*불드표시는 주요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48) 경향신문에서 1984년 10월부터 1985년 5월까지 매주 화요일 총 30회의 기획기사로 마련되었다. 1984년 10월의 최초기사에 따르면, 1885년의 인천 대불호텔을 시작으로 서양건축이 소개된지 100년이 된 기념으로 기획되었고 88올림픽에 건축문화를 보여주기 위하여 건축가 30명이 선정한 건축물을 소개하였다. 건축가 30명에 대한 명단은 없다. 당시 기사는 강병국 기자가 사진은 손광호 기자가 진행하였다. 소개된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대한성공회성당, 운현궁, 서울역사, 목포시립도서관, 명동성당, 구벨기에 영사관, 덕수궁석조전, 전주 전동성당, 대한의원 본관, 연세대 언더우드관, 한국은행 본점, 고려대학교 본관, 주한프랑스대사관, 자유센터, 구제주대본관, 절두산 순교기념관, 삼일로 빌딩, 공간사옥, 경주박물관, 세종문화회관, 한국증권거래소, 신라호텔, 마산 양덕성당, 외환은행 본점, 대한교육보험빌딩, 울산대 대학회관, 전주시청사, 잠실올림픽스타디움, 국제그룹사옥-대한생명빌딩.

[표 4-11]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증권거래소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1975.12	증권거래소 청사 지명 현상	한국증권거래소	〈건축가〉
1976.3	(특집)설계현상과 한국 건축문화의 오늘 시급한 현상설계 풍토개선 진정한 의미에서 작품의 축제이기 위해(김원) 당선작 (이승우, 나상기, 오웅석, 원정수, 윤승중, 이호진) 심사소감(김정수, 오휘영, 이정덕, 김수근) 문화로서의 건축과 생활공간의 이해 : 증권거래소 현상설계가 남긴 문제점(이규목, 김원석, 김양철, 민현식, 김원) 한국 증권거래소 현상설계 심사에 이의 있다: 그 전시회를 보고 느낀 충격과 의문(김수현)	한국증권거래소	〈공간〉

□ 설계공모

공간지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당시 김원이 코디네이터로 참여하여 6명을 지명설계 공모하여 진행하였다.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본 설계공모의 의의와 각각의 안에 대한 토론이 다루어졌다. 일부는 심사의 공정성과 작품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심사소감의 형식으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정수는 심사방식에서 투표제로 진행됨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하며 공정한 심사방식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선정된 안은 기능적, 구조적, 미적 환경면에서 우수하며 무난한 작품이라고 언급하였다.

□ 조성과정에 대한 담론

설계공모 제도에 대한 이슈가 주요하게 다루어졌고, 조성과정에서 주요 담론은 없었다. 기획단계에 기준의 명동에서 여의도로 이전하는 것이 다루어졌다. 설계단계에서는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한 문제점 제기 등이 이루어졌다. 유지단계에는 일간지에서 선정한 ‘명 건축물’로 소개되었다. 여의도의 도시환경을 고려한 건축물로 언급되었다.

주요하게는 설계공모가 공정하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공간지’에서 다루어졌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던 김수근은 회고에 따르면, 2단계로 진행된 심사에서 1단계에서 탈락작을 선정 후 2단계 후보작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김수근은 1단계는 참여하지 못하였고, 2단계에 참여하였는데 탈락시키기 아까운 작업을 다시 올리고자 하였으나 심사의 공정성 문제로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서는 심사에 있어서 작품의 가치판단에 대한 문제와 적정성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면서 다루어졌다.⁴⁹⁾

49) 윤승중 구술집(마티, 2014), p334에서는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다.

3. 1980년대 : 대규모 문화시설

1) 독립기념관

① 건축물 개요

* 독립기념관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230
- 대지면적 : 910,417m²
- 건물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건축면적 : 40,581m²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설계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디앤드지 김기웅, 전형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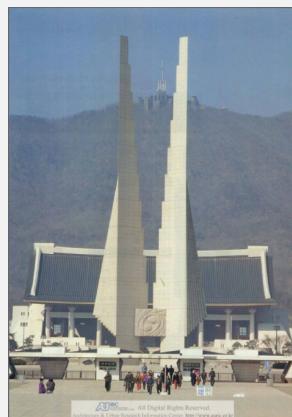
(설립목적)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근거는 독립기념관법(법률 제3820호)

(기관연혁)

- 1982. 10. 05. :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설립
- 1986. 05. 09. : 독립기념관법 공포시행
- 1987. 08. 15. : 독립기념관 준공 및 개관(법인설립 '87. 08. 20.)
- 2005. 05. 18. : 소관부처 이관(국가보훈처)



*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urum 홈페이지

<http://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num=40#.WUon9evyhFE>(접속일 2017.6.21.)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홈페이지

<http://www.alio.go.kr/popReport.do?seq=2017041101399801&disclosureNo=2017041101399801>(접속일 2017.6.21.)

② 기획단계

□ 독립운동의 가치와 유공자들을 위한 독립기념관 건립 필요

1970년대에는 민족박물관설립을 추진하면서 독립기념관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예산 부족, 국민공감대 형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행되지 않았다. 1982년 일본교과서 한국사왜곡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의 필요성 및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건립자문위원회 논의내용 기사화

건립자문위원회에서 전시관을 본관으로 하고, 부설로 독립운동사연구소 자료관 도서관이 있어야하며 강당 관리사무소로 구성을 제시하였다.

독립기념관 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다만, 전국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부지 선정 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결정하거나 성금모금 현황이 국무회의 때 보고되는 등 국가적인 지원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 범국민적 차원에서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국민성금 모금

사업비를 국민성금으로 모금하게 됨에 따라 일간지의 성금모금 현황 등이 1면에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다양한 성금모금 사연 등이 소개되면서 독립기념관 건립을 국가적인 차원의 이벤트로 진행하였다. 사업추진 주체도 국가가 아닌 범 국민적 차원의 조직인 건립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순수한 민간주도의 사업이기 보다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위원장 선임과 사업추진과정에 관여는 하게 되었다. 부지는 정부에서 제공하게 되면서 최종 후보지를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⁵⁰⁾

□ 명칭논란

독립이라는 것에는 일제강점기를 인정하면서 그것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점에서 광복이라는 용어가 적정하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한 건축분야의 담론

건축사지 1982년 9월부터 12월호에는 ‘독립기념관 건립을 앞두고’라는 프리즘 코너에서는 6명의 건축가(최창규 신진건축 대표⁵¹⁾, 강철구 동우건축설계사무소 대표, 김정철

50) 동아일보 1982년 11월 22일, 전대통령, 헬기로시찰 독립기념 천원목천면 유력.

51) 최창규는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정립건축, 안병의 김중업합동건축연구소, 김기석 아름건축연구소, 박영호 의전건축연구소)의 의견이 게재되었다. 전통성에 대한 해석에 대한 논의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⁵²⁾

최창규(1983)⁵³⁾는 건립과정과 관련하여서 종합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건축계에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설계공모와 관련하여서 구체적인 제약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외국건축사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 현상설계경기규정 준수를 요구하였다.

“독립기념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평소 이름난 저명한 건축가들의 제안이나 발언이 없음은 무슨 까닭이고 건축 3단체가 건축계의 종합된 의견이나 질문·발언이 없음은 웰까?
표현은 안하지만 만일 당선이 된다면 그 명예와 이권이 막대한 데도 왜 침묵만 지키는 것일까?”

③ 설계단계

□ 설계공모 공고 당선작 선정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1983년 5월 9일 제8차 이사회를 통하여 독립기념관 건립 현상 설계공모안을 확정하였다. 2단계로 공모로 1단계에서는 배치계획과 기본설계공모를 2단계로는 10개안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⁵⁴⁾

설계안에 대해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었다”는 정도로 언급되었다. 당시 빠른 건립이 필요하였던 상황으로 설계에 대한 시비 등이 논의될 상황은 아니었다.

④ 공사단계

□ 화재사고로 인한 화재원인 및 복구 관련

개관 직전에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화재원인 및 복구와 관련한 많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과는 동명이인이다. 중앙일보 1992년 8월 21일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로 순국선열 유족회장, 11,12대 국회위원을 역임하고 1992년 독립기념관장으로 활동하였다.

52) 최창규, 강철구(1982.9), 독립기념관 건립을 앞두고, 대한건축사협회, pp.6-8.

송민구(1982.10), 독립기념관 건립을 앞두고, 대한건축사협회, p8-13

김정철, 송병희(1982.11), 독립기념관 건립을 앞두고, 대한건축사협회, pp.12-17.

박영호(1982.12), 독립기념관 건립을 앞두고, 대한건축사협회, pp.14-15.

53) 최창규(1983.2), 독립기념관건립에 즈음하여, 대한건축사협회, pp.9-11.

54) 매일경제 1983년 5월 10일 독립기념관 설계 현상공모안 확정.

⑤ 운영단계

□ 누수문제의 원인 관련

개관이후 누수원인과 관련하여 설계의 문제 등에 논의가 진행되었다.

□ 명칭논란

기획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명칭관련 논란이 운영단계에서 다시 제기되었다.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독립기념관법」이 공표되면서 독립이라는 용어에 대한 적정성이 광복이라는 용어와 비교되었다.

□ 이용률저조 및 주변개발문제

개관이후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해지면서 마스터플랜 상에 계획되었던 독립기념관 좌우측으로 청소년연수시설 등에 대한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⑥ 소결

□ 일간지 및 전문지

일간지에서는 독립기념관의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건립이 확정된 이후에는 기대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의 모습이 있다. 독립기념관의 성격과 관련하여서도 독립이냐 광복이냐의 문제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일간지에서는 절대적으로 성금모금과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다루어졌다. 시공 및 운영단계와 관련하여서 화재원인 및 복구, 누수 등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전문지에서는 건축사, 건축지 등에서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 설계공모

설계공모안 확정에서 진행일정 등 설계공모 추진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등으로 당선안이 언급되었다.

□ 조성과정에 대한 담론

건축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아주 높았다. 민간차원의 광복회를 중심으로 한 독립기념단체, 국가 등에서 건립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명칭 등과 관련하여서도 독립, 광복이 기획단계와 개관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성금모금과 관련하여서 모금현황, 기부자의 안타까운 사연 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모두가 참여하는 건축물이라는 담론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담론은 이후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누수문제 등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게 되었다.

[표 4-12] 독립기념관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기획단계 (민간)	설계단계 (건축사)	공사단계 (시공사)	운영단계 (독립기념관)
일간지	건립필요성 건축물에 대한 기대 성금모금 명칭논란	설계공모 공고 당선작 선정	화재	누수 명칭논란 주변개발 문제
전문지	건축계 건의사항	당선작 선정		

*볼드 표시는 주요 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다만, 특정 주체들 간의 의견대립과 같은 담론은 형성되지 않았다. 건축 단행본 등에서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과 관련하여 ‘거대한 기와집’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건축물을 소개하고 있으나 일간지, 전문지 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4-13]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독립기념관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1982.9~12	독립기념관 건립을 앞두고(최창규, 강철구)	독립기념관	〈건축사〉
1982.10	독립기념관 건립을 앞두고(송민구)	독립기념관	〈건축사〉
1982.11	독립기념관 건립을 앞두고(김정철, 송병희)	독립기념관	〈건축사〉
1982.12	독립기념관 건립을 앞두고(박영호)	독립기념관	〈건축사〉
1983.1.2.	독립기념관 건립 유감(최창규)	독립기념관	〈건축가〉
1983.2	독립기념관 건립에 즈음하여(최창규)	독립기념관	〈건축사〉
1983.3.4	독립기념관 건립에 관한 공청회 등	독립기념관	〈건축가〉

2) 국립대구박물관

① 건축물 개요

※ 국립대구박물관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산41일대
- 대지면적 : 99,000m²
- 건물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연면적 : 12,736m²
- 구조 : 철근콘트리트라멘조, 철골트러스
- 설계 : 1989, 준공 : 1994

※ 출처 : 장세양(1990.3) 국립대구박물관 당선안에 대하여, 건축, p28 정리

② 기획단계

□ 설계공모

일간지에서는 1989년 4월 15일 동아일보 광고로 게재된 ‘국립대구박물관 현상설계공모’ 공고가 게재되었다.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현상설계운영위원회이며 심사 위원은 김정철, 서상우, 송성진, 유희준, 이광노 5인이었다.

전문지에서는 1990년 3월 건축지에 ‘건축설계의 새로운 과제 : 전통성과 상징성의 추구(장세양, 공간건축)’라는 특집⁵⁵⁾의 일환으로 당시 작품이 소개되었다. ‘박물관의 소개’, ‘건축적 해결’에서 전통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건축적 해결로 형태적인 차용보다는 전통적 정신을 찾고자 하였다. 같은 호에 ‘국립대구박물관 현상설계에 대한 소고’(박승, 삼우건축)에서는 설계공모로 선정된 국립대구박물관에 대한 당부의 글이 게재되었다.

55) 임창복의 기획으로 진행된 특집에는 현대건축 사조와 전통성 구현문제(송민구), 현대건축 사조와 전통성의 구현(성인수), 이념추구와 자기표현으로서의 전통구현(김성우), 한국현대건축의 전개과정에서 본 전통구현의 자세와 작품경향(김경수), 한국현대건축의 전개과정에서 본 전통구현의 반성과 과제(김난기), 국립대구박물관당선안에 대하여(장세양), 국립대구박물관 현상설계공모에 대한 소고(박승), 국립부여박물관(한규봉), 대법원청사설계소문(윤승중, 변용), 전쟁기념관 현상설계 및 당선안에 대한 비평(김창수) 등이 게재되었다.

임창복은 기획의 글에서 다양한 설계공모로 진행된 프로젝트들이 전통성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가들의 작품론과 비평을 통하여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있었다.

③ 운영단계

□ 전시 소장품 및 박물관 성격

중앙일보 1994년 8월 8일 기사에 따르면, 1994년 3월 준공 이후 전시유물이 부족하여 타 박물관에서 이관하거나 지역소재의 대학 소장품에 대한 당초 이관계획이 학계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소개되었다. 당시 지역에서는 역사박물관 형태가 아닌 유물이 없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박물관형식이 제시되었으나 그대로 진행되었다.

□ 운영인력의 부족 문제

경향신문 1994년 3월 16일 기사에는 박물관의 인력부족문제에 대한 기획 기사가 다루어졌다. 당시 개관을 준비 중이던 국립대구박물관과 관련한 신규 직제가 마련되지 않고, 기준의 국립박물관 인력을 활용하거나 지자체로 관리를 이양 요구가 정부로부터 있었다.⁵⁶⁾ 당시 김영삼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인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④ 소결

□ 일간지 및 전문지

국립대구박물관에 대한 담론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간지에서는 운영단계에 개관 시점에도 인력 및 유물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다루어졌고, 전문지에서는 1990년대 진행된 대표적 설계공모 작품으로 선정되어 다루어졌다.

[표 4-14] 국립대구박물관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운영단계
일간지	-	-	-	개관시점의 유물확보 문제나 인력운영 문제
전문지	-	전통성과 상징성	-	1990년대 진행된 대표적 설계공모 작품 평가

*불드표시는 주요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56) 당시 김영삼 정부는 작은정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정부기구의 축소와 공무원 인원 축소 등을 추진하였다. 「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4249호(1994. 5. 4. 일부개정)을 통하여 국립대구박물관 직제가 마련되었다.

국립대구박물관 설계공모 관리가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진행되었다.⁵⁷⁾ 따라서 설계공모부터 당선까지를 건축가지에서 다루었다.

[표 4-15]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 _ 국립대구박물관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공모 대구박물관 현상설계: 박물관 건축계획 개론-서상우 대구박물관 현상설계: 건축설계경기의 주최와 의의-윤도근 1989.5.6 대구박물관 현상설계: 공간성이 풍부한 창의적 조형-안영배 국립대구박물관 현상설계 심사에 임하는 자세-김정철 국립대구박물관 현상설계 요강 국립대구박물관 현상설계 지침서		
1989.9.10	당선결과 박물관 현상설계 심사를 마치며-이광로 국립대구박물관 현상설계를 마치고 -김인철, 송성진, 이재환, 장세양, 최관영 국립대구박물관 현상설계 입선작품평가서 국립대구박물관 현상설계 기술위원회 검토보고서 국립대구박물관 현상설계 심사보고서 현상설계 응모안		국립대구박물관 <건축가>
1990.3	(특집 : 건축설계 새로운 과제 : 전통성과 상징성의 추구) 국립 대구박물관 당선안에 대하여 (장세양) 국립 대구박물관 현상설계에 대한 소고 (박승)	국립대구박물관	<건축>

□ 설계공모

설계공모 초기단계에 박물관, 설계공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다루어졌다. 건축물을 소개하면서 전통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형태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였다는 언급이 있었다.

□ 조성과정에 대한 담론

설계과정에서 전통성과 상징성의 관점에서 설계자와 참여자의 의견이 기사화되었다.

57) 공간(1992.3) 정부 제3청사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본 한국의 건축적 상황과 논리, p53.

3) 전쟁기념관

① 건축물 개요

* 전쟁기념관

- 위치 :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
- 대지면적 : 113,265m²
- 건물규모 : 지상 4층, 지하 2층
- 건축면적 : 18,835m²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설계자 : 이성관, 곽홍길, 양재현

(전당개요)

전쟁기념관은 민족의 호국전쟁에 관련된 귀중한 유3무형의 자료들을 발굴하고 수집하여 영구히 보존할 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주변이 자연녹지임을 고려하여 공원에 위치한 기념관이 되도록 자연경관과 조화시켜 전체대지를 쾌적한 도시고원으로 만든다는 전제를 세웠다. 대지중앙의 남북 중심축을 주요기념공간으로 연출하고, 경관이 우수하고 조용한 동측부분에 옥외전시장을 배치하였으며 진입광장과 기념관 양쪽으로 회랑을 형성하여 기념비적 장소가 되도록 하였다. 전쟁기념관으로서 지녀야 할 상징성과 기념성을 조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각 방향이 정면성을 지니면서 중심축에 대해 좌우대칭이 되도록 배치하여 경건함과 장엄함을 표현하였다.

전통건축의 구성요소인 수평기단부를 채택하여 본관의 거대한 매스의 중량감을 완화시키면서 안정감 있게 표현하고 친밀감을 갖도록 하였다.

※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num=389#.WdcS91u00UK>(접속일 2017.6.21.)

② 기획단계

□ 육군본부 이전 부지를 활용한 기념관 건립 사업

동아일보 1989년 3월 3일에 따르면, 육군본부 부지를 주공에서 마련하여 주어서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공원조성 요구에 따라 국방부에서 전쟁기념사업회 등을 통하여 전시장 및 광장을 조성하게 되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지시로 전쟁기념사회가 발족되었고, 이후로 「전쟁기념사업회법」이 1988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건립이 추진되었다. 건립당시에 장교들의 봉급에서 일정액을 성금으로 진행하였다.

③ 설계단계

□ 설계공모 당선

경향신문 1989년 10월 10일에 일간지에서 유일하게 전쟁기념관 설계공모 당선 사실이 단신으로 다루어졌다. 현상공모 공고도 1989년 2월 28일에 다루었다. 건원과 한울의 공동작품으로 전쟁기념관 설계공모 당선작이 선정되었다. 주최는 전쟁기념사업회(회장 이병형)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 용도변경 검토

경향신문 1993년 6월 15일 기사에 따르면 전쟁기념관을 확대하여 국립종합박물관으로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한바 있다. 민자당 사회개혁특위 외교안보 소위에서 6월 14일 회의가 진행되었다. 동아일보 1993년 6월 15일 기사에서는 문민정부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주요사업으로 전쟁기념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이전에 동의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사화하였다.

이후 17일에 대통령에 주례당무보고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김종필 대표에게 완공 단계인 기념관의 설계변경은 어려우므로 전용계획이 백지화되었다. 당시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사화되었다.

이후에 동아일보 1993년 7월 31일 독자의 편지란에 소개된 독자의 기사는 좀 더 추가적인 시대를 이야기하여 준다. 당시 총독부 건물에 있었던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에 대한 이전이 필요한 상황⁵⁸⁾에서 전쟁기념관을 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당초 목적이 기념관 용도였기 때문에 박물관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여의치 않았다.

□ 전통성과 상징성

건축지 1990년 3월에 전쟁기념관에 대한 김창수(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⁵⁹⁾ 대표)의 글이 게재되었다. 현상설계 당선안에 대한 감상으로 건축지 특집으로 다루어졌던 ‘건축설계 새로운 과제 : 전통성과 상징성의 추구의 글’들 중 하나로 다루어졌다.

58) 조선총독부 건물은 1993년 8월 9일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정기 회복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조선총독부 청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국립중앙박물관을 국책사업으로 건립하라고 지시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joseonChong.do>, 2017.10.6.) 이후로 1993년 10월에 문화체육부에서는 철거계획이 보고되었고, 1995년 8월 15일에 철거기공식이 진행되었다.

59) 당시 삼우설계는 설계공모에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용산지역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꾸는 상황에서 전쟁기념관은 호국의 상징으로서의 기념관 성격이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어려운 사업이었다. 건축가기 계획하였던 다양한 상징성 들이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테일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④ 운영단계

□ 1995년 제13회 서울시건축상 금상 수상

서울시건축상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당시 심사평으로는 “평면구성과 배치가 뛰어나고 전시실내부의 연결공간등이 기능적으로 잘 처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기존 안보교육 기능을 하던 여의도 안보전시장 경남 사천으로 이전

용산전쟁기념관 개관하면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던 여의도 안보전시장이 경남 사천으로 이전되었다. 전쟁기념관 등으로 이전 등이 논의되었으나 삼성항공 부지로 이전하게 되었다.

□ 각종 행사의 장소로 활용

용산 웨딩홀은 고현정의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다양한 행사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용산공원 건립과 관련한 토론회 등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 명칭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

전쟁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6.25전쟁에 대한 역사적 판단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서 내전의 성격이 있는 상황에서 기념과의 적정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평해전의 참수리호 모형, 북한의 잠수함 동해안 침투 당시의 배들이 전시되기도 하였다.

⑤ 소결

□ 일간지 및 전문지

일간지에서는 설계완료시점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의 활용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기사회되었다. 기존에 유사한 역할을 하였던 여의도 안보전시장 등과의 관계가 언급되었다.

□ 설계공모

설계공모에 대한 논의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 조성과정에 대한 담론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건립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1994년 문민정부로 넘어와서 개관한 사업이다. 왜 전쟁기념관이 필요하였고 무엇을 기념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잠시 있었다.

주요 담론은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철거 및 이전 문제와 기존의 여의도 안보전시장 이전 등의 문제가 좀 더 많이 언급되었고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표 4-16] 전쟁기념관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기획단계 (정부, 전쟁기념사업회)	설계단계 (건축사)	공사단계 (시공사)	운영단계
일간지	국립중앙박물관 이전	-	명칭논란 여의도 안보전시장 이전 서울시 건축상 수상
전문지	전통성과 상징성		

*볼드표시는 주요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표 4-17]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전쟁기념관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1990.3	전쟁기념관 현상설계 및 당선안에 대한 비평 (김창수)	전쟁기념관	〈건축〉

4. 1990년대 : 문화, 행정시설 재배치

1) 정부 제3청사(정부대전청사)

① 건축물 개요

* 정부 제3청사(정부대전청사)

- 위치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 대지면적 : 525,764m²
- 건물규모 : 지상 20층, 지하 2층
- 건축면적 : 26,927m²
- 용도 : 업무시설
- 설계자 : 전동훈, 김창수(삼우종합건축사)

(전당개요)

수도권 인구분산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에 청단위 기관을 이전키로 하고 1991년 실시한 공모전에 당선된 프로젝트다. 설계의 기본방침은 정부의 상징적 건물인 만큼 이용하는 국민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주변환경과의 조화, 동선 및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이 배려되도록 하였다.

배치계획에 있어서 주공간, 부공간, 매개공간을 기능적,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한편, 중심공간을 중앙에 두고 개방시켰으며, 업무동을 4개로 분산하여 새로운 형태의 마름모꼴로 배치하여 어느 방향에서나 같은 모양이 되도록 독창적인 외관을 갖도록 하였다.

차량과 보행자 동선이 교차되는 것을 배제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대강당이나 다목적홀 등의 특수공간은 별동으로 배치하였다. 주 건물공간은 대민업무 기능과 공동사용 공간인 중앙부를 저층에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하였고 순수 업무공간은 관리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각각 분산시켜 배치하였다.

또한 저층 중앙부에 열린 중앙홀과 아트리움을 조성하여 시각적, 심리적으로 쾌적함을 느끼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첨단정보시스템 적용이 편리하도록 설계되었다.

*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num=565#.Wdc4M00UmmQ>

② 기획단계

□ 이전계획

한겨레신문 1990년 9월 26일 기사에 따르면, 25일 대통령보고를 통하여 정부부처 이전 및 제3청사 설립계획을 보고하였다. 이전기관은 국가통치권과 연관성이 적고 타기관과 업무협조가 적은 청단위 기구 11개를 1996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③ 설계단계

□ 설계공모

동아일보 1991년 11월 30일 기사에 따르면, 40여점이 출품되었고 9인의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김창수 삼우종합건축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총무처의 심사평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했고 장래에 대비, 최대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예산은 1,125억이며 1992년 착공하여 199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전 규모는 공무원 4,200여명이다.

공간지 1992년 3월호에는 기획특집으로 '한국건축의 단면'으로 정부제3청사 설계공모를 통한 한국건축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관련한 좌담회와 기사들이 게재되었다.

④ 공사단계

□ 착공지연

당초 1992년 착공예정이었으나 1991년 예산이砍감되면서 잠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1993년에 착공되었다. 동아일보 1991년 9월 10일 기사에 따르면, 대전 제3청사 외에도 외부 및 감사원 청사 신축사업비 97억원을砍감하여 사업비나 재해대책비로 활용하는 경제현안종합대처방안이 마련되었다.

□ 1500억 규모의 사업자 선정, 서광산업 컨소시엄 선정

매일경제 1993년 7월 23일 기사에 따르면, 서광산업이 선경건설, 현대건설, (주)대우와 공동응찰하여 수주하였다. 단독응찰 15개사와 공동응찰 15개사가 참가하였다. 단일공사로는 국내 최대규모로 총공사비는 2천 62억 8백만원이었다.

⑤ 운영단계

□ 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위한 어려움

당초 중앙부처와 협업이 없는 청 단위 조직을 이전하였으나 각종 예산관련 협의를 위한 국회업무 및 경제부처 및 사정기관과 협의하는 중소기업청과 관세청 등 부처기관장이 부재인 상황 등이 기사화 되었다.

□ 이전

1998년 7월 정부청사 이전이 진행되었다. 당시는 IMF상황으로 이전 행사를 간소화했다.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의 집이 매각되지 않는 상황과 ‘고단한 출퇴근’과 주변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되었다.

⑥ 소결

□ 일간지 및 전문지

일간지에서는 각 조성단계별로 간단한 사업 추진과정이 소개되었다. 전문지에서는 설계공모 제도의 문제점이 제시되었고, 공공건축물이 가져야 할 가치에 대한 지적이 기사화되었다.

[표 4-18] 정부대전청사 조성단계별 담론, 주제

	기획단계	설계단계	공사단계	운영단계
일간지	제3청사 보고	설립계획 설계공모 당선자 및 심사평 소개	당선자 및 심사평 소개 시공사 선정	기관이전
전문지	-	설계공모 제도 공공건축물의 성격	-	-

*볼드표시는 주요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표 4-19]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정부제3청사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1992.3	(특집) 한국 건축의 단면(편집부) 정부 제3청사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본 한국의 건축적 상황과 논리 (이범재, 김인철, 김영섭, 이종칠) 관시행 현상설계가 한국 현대건축에 미친 영향(최관영) 현상설계와 로비의 힘수관계(정기용) 공공건축물, 언제까지 관건축인가 대민건축의 시대를 열자(허정도)	정부 제3청사 (정부대전청사)	〈공간〉

□ 조성과정에 대한 담론

조성과정 전반에 단편기사만 다루어졌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역할과 설계공모를 통한 한국적 상황이 언급되었다.

2) 국립중앙박물관

① 건축물 개요

* 국립중앙박물관

- 위치 :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 대지면적 : 307,227m²
- 건물규모 : 지상 6층, 지하 1층
- 건축면적 : 49,117m²
-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설계자 : 박승홍, 김진구

(개요)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시설로서 고유한 프로그램과 관람객의 체험구조가 밑그림이 된다. 그 밑그림 위에 두 개의 성벽이 세워짐으로써 최초의 문곽이 형성되었다. 이후는 외부와 내부, 그리고 경계의 문제이다. 여기서 경계는 스스로를 소멸시켜 외부와 내부를 모호하게 만들기도 하며, 내?외부와의 관계를 벗어나 자신의 물질적 존재감을 들풀시키기도 한다.

성벽을 모티브로 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장대한 외벽은 전체를 지배하고 개념을 표현하는 뚜렷한 요소이다. 성벽의 느낌을 살린 패턴과 그 속에 개입하는 디테일한 양감들은 면에 입체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특히 외벽의 하부에서 상부로 전개되는 질감/양감의 점층적 소멸과 패턴의 변화는 기운 생동하는 벽면의 힘을 끌어내고 있다. 패턴과 질감을 통한 접근이 종적인 변화를 야기했다면 획적인 변화에는 좀더 실제적인 건축적 요소들이 작용한다. 긴 외벽에 돌출된 요소와 틈들은 내부의 기능상 요구이기도 하지만 차치 긴 길이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한 구성이기도 하다. 수직과 수평의 요소들이 적당한 비율로 화면을 분할하며 재구성하는 것은 길이의 강한 힘을 잊지 않고 이끌어 가는 동인이기도 하다. 질감과 요소의 개입, 두 가지 접근으로 장대한 면의 균질함은 파괴되면서도 힘을 유지한다.

박물관 후면은 전면의 구성과는 다소 다르다. 단일한 면의 내부적인 접근이 아니라 다층적 면들이 만들어내는 중첩과 패턴들의 차이, 즉 상호 대응하는 요소들의 관계를 통해 공간이 전개되고 있다. 순차적인 접근과 전개로 인해 만들어진 몇 개의 면들이 전면과는 다른 분위기를 조장한다.

이런 견고한 존재감 사이에 위치한 열린마당과 로툰다는 그래서 반대로 자신의 존재감을 은폐시키면서 외부와 내부, 과거와 현재를 위한 소통을 이뤄내고 있다. 그리고 이 소통은 역사의 거리에 와서야 유물들과 어우러져 완성된 공간을 이뤄낸다. 열린마당과 로툰다에 비해 역사의 거리는 상대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로툰다에 살짝 걸쳐있는 계단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구성은 절대적 축을 갖고 있지만 양쪽으로 펼쳐진 파노라마면의 다층적인 구성과 역동적인 공간전개로 상대성을 갖게 된다. 여기서 라임스톤의 고고한 색채는 역사의 거리를 공간적으로 한정할 수 있는 상징적인 차이를 제공하며 공간을 각인시킨다.

외부에서부터 접근과 경험은 순차적인 공간의 전이에 따라 인도된다. 그 과정 중에서 열린마당의 계단은 이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장치이며,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넉넉한 공간이 된다. 그곳은 객석이 되기도 하고, 때론 남산을 배경을 한 무대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시름과 그리움을 떨쳐버리는 사유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성벽이라는 거대한 물상과 은유가 전체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처럼 작고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가며 전체를 구성하고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시장으로, 역사의 거리로, 로툰다로, 열린마당으로, 다시 전시장으로, 소로툰다로, 문화공간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요소들의 열개는 각자의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의 흐름을 잊지 않는다. 추상성과 구체성이 반복되어 경험된다. 400m의 지루한 일자형 배치를 한국적인 스펙터클한 공간감으로 이어나갔다는 외부의 평가는 다양한 요소들의 전환과 변화와 더불어 벽면의 적절한 오프닝, 재료와 패턴들의 연속성과 차이들이 모두 종합되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가치이다. 일족다 다족일(一即多 多即一). 부분이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부분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벽면의 작은 패턴에서부터 각 공간의 이미지, 그리고 전체의 모습에서 우리는 동일한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외부공간은 이 같은 박물관의 구조를 체험하기 위한 시퀀스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그 중심엔 거울못이 있다. 사실 거울못은 공간이라기보다 하나의 면에 불과하지만 어느 무엇보다 우리의 몸에 와 닿는다. 외벽과 연못이라는 부동과 유동의 잔상들이 어울리면서 물상이 현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거울못으로 인해 휘어진 공간은 전체를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체험케 하며 고정된 물상의 풍경이 아니라 움직이고 항상 변하는 현상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전통문화유산이 우리 고유한 감성의 산물이라면 그것을 담는 집 또한 감성의 집이어야 마땅하다. 비가 내리는 흐린 날 이곳에 들린다면 먹물에 젖은 듯 가리앉은 외벽의 텍스처와 하늘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열린마당을 지나치는 바람을 느끼며 남산타워에 걸려 꼼꼼 못하는 구름 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건축은 현상으로서 비로소 완성된다.

글/ 정림건축

*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num=380#.WdgCX1u0OUk>

② 기획단계

□ 사업추진

1982년 3월 16일~19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16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정부청사 재배치 계획이 확정되었다. 과천 제2청사(현재 정부과천청사)가 1982년 말 준공됨에 따라 부처간 이동이 이루어졌다. 당시, 중앙청을 중앙박물관으로 활용하고 경복궁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85년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기존의 국립중앙박물관(현재 국립민속박물관)은 소장유물에 비하여 전시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전두환 정부의 4대 국정지표 중 하나였던 '문화창달을 통한 민족문화의 중흥' 정책의 일환과 동시에 88올림픽 유치에 따른 박물관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⁶⁰⁾

동아일보 1982년 7월 13일 기사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청 건물 이전 공청회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당시 진홍섭(이대박물관장), 김중업(건축가), 안휘준(홍대박물관장)이 각각 '기능획층방향', '중앙청건물 개수', '박물관과 국민교육'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토론에서는 철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이전에 따른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이전은 1990년 10월 25일⁶¹⁾ 노태우 정부시절 이어령 문화부장관에 의해서 한 차례 추진된 바 있다. 한겨레 1991년 1월 24일 기사에 따르면, 중앙박물관 이전계획을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이어령 장관이 발표한다. 조선총독부를 철거하여 경복궁을 복원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부지를 선정하며 국립중앙박물관 완공 이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로 1993년 4월 민족정기 회복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총독부 청사를 철거하고 박물관을 이전하라는 지시에 따라 시행된다. 2005년 10월 노무현 정부에서 개관하였다.

60) 1983년 초에 예술의전당, 국립현대미술관, 국악당 건립,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이전, 국회도서관 신축 등의 사업계획이 발표되었다. 또한 지역별 문화거점을 위하여 진주박물관, 청주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안동민속박물관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동아일보 1983년 1월 25일)

61)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 관저 준공식에서 "일제침략의 상징인 구 중앙청 건물을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옮겨 그 역사적 교훈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출처 : 건축은 없다?(간향미디어, 1995), p246 재인용.

□ 조선총독부 철거문제

공간지 1990년 12월에 김정동(목원대학교 교수)은 조선총독부 철거와 관련하여서 일본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기 보다는 한국인도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건축물로서 보존 및 재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의 기사를 정리한 부분이 흥미롭다. 1980년대 초반부터 기사를 통하여 철거주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다만, 1982년 중앙청을 박물관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서 다시 활용에 대한 기사가 다수 언급된다.

건축지 1991년 3월에는 특집으로 서울 600년의 건축적 사건들을 통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송민구는 ‘구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문제-이축을 제안함-’을 통하여 건축물의 가치를 생각하여 이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장기인은 ‘조선총독부 청사’을 글에서 경복궁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철거를 주장하였다. 이상해는 ‘경복궁 경희궁 복원과 옛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문제’에서 문화재복원의 당의 성과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복원을 위한 연구, 경복궁의 건축물 축과 대로의 ‘축’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보존을 주장하고 있다.⁶²⁾

공간지 1991년 5월에 승효상은 근대건축물 보존을 문화적 감상주의로 언급하였다.

경향신문 1991년 6월 14일에 따르면 국민여론조사를 진행결과 72%가 희망하는 것으로 밝히며 10월 심포지엄과 대토론회 등을 통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후 철거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1991년 6월 14일에 이정덕(고려대, 건축과 교수)은 건축적인 관점에서 보존을 주장하는 글이 기사화되었다.

한겨레 1991년 6월 21일에는 김정동 교수(건축)와 이현희 교수(한국사)가 조선총독부 철거문제에 대한 전문가 찬반글이 게재되었다. 각각 역사적 가치를 파괴한다는 입장과 민족자존심의 회복문제가 제기되었다. 1996년 12월 말에 완전 철거되었다.

건축가지 1991년 8월에 김정동(목원대, 건축과 교수)가 게재되기도 하였다.

당시 철거반대에 대한 건축미술전문가들의 발언을 수집한 단행본 ‘건축은 없다?’(간향미디어, 1995)이 발간되었다.



[그림 4-1] 건축은 없다?

62) 이후로 철거에 따른 경복궁 복원과 관련한 자료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최종덕(2003.9), 경복궁 복원의 의미, 건축역사학회 제12권 3호 통권 35호, pp.194-202.

□ 유물보존 문제

기존의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면서 기존에 수장고에 보관중인 유물들을 공사기간 중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었다. 서울역사박물관 부지를 사용하는 방안과 당시 신축 중이었던 전쟁기념관을 전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기도 하였으나 일부는 현재의 고궁박물관으로 이전하고 지방의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분산배치된다.

□ 입지선정

1992년 4월 11일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용산 미군부지에 대한 예술단지(뮤지엄타운) 계획을 문화부에서 수립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자연사박물관, 국립극장 및 국립 현대미술관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1993년 11월 6일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11월 4일 국립중앙박물관 신축을 위한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하여 박물관 후보지 중 용산가족공원을 부지로 확정하였다.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에 따라 임시로 사회교육관 건물을 증축하여서 전시관으로 활용하였다. 1996년 12월 13일 개관하였으며 이 건축물은 현재 고궁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년 11월 5일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입지선정에 대한 기사와 동시에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통하여 타당성 조사 및 설계공모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설계공모

1995년 3월 참가접수 및 7월 작품접수가 진행되었다. 1995년 8월 15일 조선총독부 건물의 해체작업이 시작되었다. 1995년 10월 20일 당선작으로 김창일(정림건축)이 선정되었다.

동아일보 1995년 10월 21일 기사에서는 16일부터 최종본선 5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19일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심사과정은 5작품에 대한 장단점을 심사위원들이 각각 표현 후 무기명투표로 최종작을 선정하였다. 김정철(회장, 정림건축), 김창일(부회장, 정림건축), 박승홍(정림건축)의 인터뷰를 통하여 산과 물의 조화, 저지대라는 특성을 고려한 연못 계획, 한계의 초월로서의 성벽을 제시하고 성벽 내에 설비를 설치하여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겨레 1995년 10월 22일 인터뷰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적인 자연관과 건축정신

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전력투구”하였고 이를 위하여 답사를 통하여 ‘불국사 축대의 자연과 인공의 조화’, ‘부석사 대석축의 자연과 인공의 하나됨’, ‘일자형 종묘 건축의 정밀성’ 등을 건축언어로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빌헬름 쿠커 심사위원장(뮌헨대 교수)의 심사평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스케일에 잘 어울리는 구조이며, 문화유산이 풍부한 나라인 한국의 이미지를 잘 표현했다”였다.

공간지에서는 1995년 2월에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다.⁶³⁾ UIA인증으로 진행되는 국제공모의 취지, 국립중앙박물관 취지, 부지관련 논의, 향후 확장 가능성, 기능적 고려사항,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 인상적인 박물관 등이 언급되었다.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설계공모 지침 및 심사위원의 소개가 진행되었다.⁶⁴⁾

③ 설계단계

□ 국립중앙박물관 국제설계에 대한 회고

건축가지 1999년 3.4월호에는 특집좌담으로 ‘새 국립중앙박물관, 국제설계경기 그 이후’가 게재되었다.⁶⁵⁾ 발주처, 설계자, 시공자, 편집자가 참여하여 조성과정 전반에 관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추진과정에서의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 장기적인 계획으로서의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및 심사과정, 전시기획, 박물관건축 유형에 대한 논의, 시공과정에서의 주요 고려사항, 재료선택의 문제, 외부공간의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당시의 논의사항은 현재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20여년 전에 설계공모 지침 등을 통해서 제시되었던 용산공원 내의 박물관단지 개념은 한글박물관 건립, 민속박물관의 이전논란, 용산공원 박물관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박물관단지 등과 연계하여 지속되고 있다.

좌담회에서는 건축가의 위상과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언급되었지만, 이것이

63) 편집부(1995.02), 국립중앙박물관장 정양모씨, 공간지, p18.

64) 1995년 3월호에도 국립중앙박물관 관련 특집기사가 게재되었다. 김성우 교수는 한국적 상황에 대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기획의 글에서 소개하고 있다.

편집부(1995.03), 신 국립중앙박물관 국제 설계경기 공모, 공간지, p25.

65) 한국건축가협회(1999.3.4.), 특집좌담 : 새 국립중앙박물관, 국제설계경기 그 이후, 건축가, p20~37
좌담회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시 : 1999년 2월 19일(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장소 : 새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현장 건립추진기획단 회의실

참석자 : 발주처-김봉진 과장, 시공-전형철(동부건설이사), 설계-김진구(정림건축 이사), 박승홍(정림건축 이사), 윤재원(뮤제건축대표), 전시기획 설계), 건축가지-박영건(편찬위원장, 범건축대표), 민선주(편찬 위원, 위가건축대표), 송인호(편찬위원, 서울시립대 교수)

향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 이러한 점이 본 연구 이후에 필요한 연구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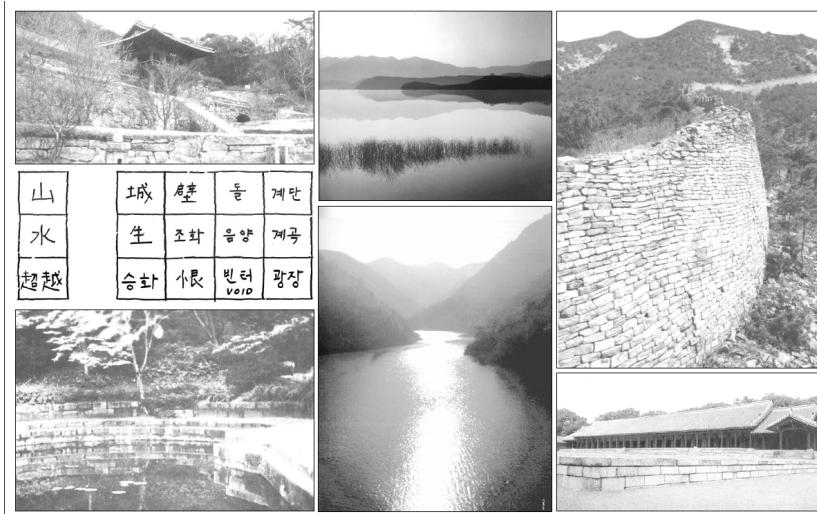
“김진구 : 그런 부분은 ‘건축가가 사회적으로 올바르고 충실하게 역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여건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건축가협회를 비롯한 건축단체들이 먼저 시작해야 할 것 같다.”

□ 문화부장관 설계변경 지시와 건축가의 반대

한겨레 2003년 12월 18일 기사⁶⁶⁾에 따르면,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이 외부공간이 딱딱하고 권위적인 느낌이 있어서 시민들을 위한 공원의 성격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설계사무소에서는 국제공모전으로 진행된 설계안이며, 설계의 기본틀을 바꾸게 되는 것으로 반발하였다고 한다.

□ 건축개념 – 한국성, 산과 물 그리고 초월

2005년 건축의 날 행사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설명을 박승홍 사장이 진행하였다. 당시 행사 소식은 건축지 2005년 10월호에 게재되었는데 건축개념에 대한 설명자료로 산과 물을 초월하는 것과 이미지 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2] 국립중앙박물관 건축개념과 이미지 (출처 : 건축, 2005.10, p81)

66) 한겨레 2003년 12월 18일, 이창동 장관, 새 중앙박물관 설계관여 ‘뒷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0037663>

□ 개관시점에 설계 건축가 인터뷰

경향신문 2005년 10월 30일 ‘국립박물관 설계 건축가 박승홍’ 기사에 따르면, 한국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영주 부석사에서 자연미를 살린 질감과 공간배치 등을 참고로 성벽을 연상케 하는 벽이 디자인되었다. 외부공간인 연못과 마당 부분에 대해서도 거울 역할과 통일의 상징임과 동시에 관람객들에게 생각의 공간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연못과 마당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바꿀 수 없었고 김영삼 대통령 퇴임 전까지 설계를 독촉받았던 상황 등을 인터뷰하였다.

④ 공사단계

□ 시공사 선정

매일경제 1997년 10월 18일 기사에 따르면, 동부건설, 현대, 대우, LG, 선경이 3,000억에 수주하였다.

□ 부실우려 지적 및 개관연기

동아일보 2001년 2월 21일 ‘새 박물관 부실우려... 2003년 개관 차질 빚을 듯’ 기사에서는 박물관 건립과정에 있어서 개관시점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내실을 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자은 설계변경과 해외 유사사례에 비하여 짧은 기간이라는 문제점, 예산부족, 전문인력의 부족, 부지 확보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 문광위에서 3월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 문화관광부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3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 사무관(전승일)이 해명자료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주요내용은 부실화 우려에 대해서 공사비 조정은 물가승비 및 신기술, 신소재 도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개관일정도 확정보다는 추이에 따라 조정하고 있으며 전시 설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4월에 국회보고서(국립중앙박물관 건립지원 소위, 위원장 이미경 민주당 위원)가 제출되었다. 개관시점에 얹매이지 않도록 18개 개선사항이 제시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사업 재검토, 공기 및 예산의 조정, 헬기장 이전 등 주변환경 마스터플랜 설정, 전시설계의 내실화 등이다.

동아일보 2001년 9월 6일 ‘새 중앙박물관’ 개관 연기 졸속 설계-공사 서둘러 봉합‘에 따르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부실 지적이 제기되었고 당초 2003년 12월에서 2005년 6월 이후로 개관을 연기하였다.

⑤ 운영단계

□ 건축물 활용 : 국제행사의 무대

2010년 G20정상회의 당시 환영리셉션 및 만찬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만찬장으로 사용되었다.

⑥ 소결

□ 건축물 관련 주요 이슈에 의견수렴 진행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건축물이다. 중앙박물관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건축물이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의견수렴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검토사항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의견수렴, 논의절차가 좀 더 진행되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점에서 국회에서의 지적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었다.

□ 설계공모

UIA인증 국제공모로 진행되어 전문지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국제심사위원회가 참여하게 되면서 생소할 수 있는 이들을 국내에 소개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 조성과정에 대한 담론

초기단계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옛 조선총독부 철거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설계단계에는 외부공간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공사단계에서는 국회와 추진단 간의 무리한 공사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회에서는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요구하면서 별도의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공기 조정 등이 이루어졌다. 운영단계에는 국제정상회의 등의 개최장소로 활용되었다. 시공과정에서 발주처, 시공사, 설계자가 참여한 토론회를 통하여

[표 4-20] 국립중앙박물관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기획단계 (전문가 찬반)	설계단계	공사단계 (국회-추진단)	운영단계
일간지	조선총독부 철거 - 철거여부 - 철거시기(유물보존대책) 설계공모 개념소개 -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과 현대의 조화	문체부장관 외부공간 디자인 개선 검토	내실있는 사업 추진 - 공기 및 예산 조정, 주변환경 마스터플랜, 전시공간 내실화 등	국제행사의 무대
전문지	조선총독부 철거	-	-	-

*볼드표시는 주요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표 4-21]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 _국립중앙박물관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1995.2	신 국립중앙박물관 국제 설계경기 공모(편집부) 국립중앙박물관장 정양모씨 (인터뷰 기사) 신 국립중앙박물관 국제 설계경기 공모		국립중앙박물관 <공간>
1995.3	신 국립중앙박물관 국제 설계경기 공모(편집부) 세 가지 여건(김성우)		
1995.4	새 박물관을 위한 국제설계경기-윤승중 대한민국 새 국립중앙박물관 국제설계경기-편집부 - 빌헬링 퀵커 - 이은영 - 가에 아우렌티 - 윤재원 - 양리 시리아니의 건축 : 건축의 존재와 도시계획의 타당함- 정인하 - 심사위원 인터뷰		
1995.5	대한민국 새 국립중앙박물관 국제설계경기: 심사위원 인터뷰 ⁶⁷⁾		
1995.11	대한민국 새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국제설계경기 1 _추진경위, 건축 프로그램 (수상작) _1등 -김창일 _2등 -크리스티앙 드 포르잠박+김병년+신재순 _3등 -김현철+김용미+김상식+김석윤+김홍식 _4등 -베르너 크리스텐+곽영훈+이승우 _5등 -로랑 살로몽+김홍일		국립중앙박물관 <건축가>
1995.12	대한민국 새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국제설계경기 2 가작 -민현식+승효상 가작 -한규봉+Henry Gaudin+Bruno Gudin 가작 -김석철 가작 -박승+James G. Garrison+한현호+Robert Siegel 가작 -손두호+이영		
1999.3~4	특집좌담 : 새 국립중앙박물관, 국제설계경기 그 이후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발주처-김봉건 과장, 시공-전형철(동부건설이사), 설계-김 진구(정림건축 이사), 박승홍(정림건축 이사), 윤재원(뮤제건 축대표, 전시기획 설계), 건축가지-박영건(편찬위원장, 범건 축대표), 민선주(편찬위원, 위가건축대표), 송인호(편찬위원, 서울시립대 교수)		
2005.11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의 글(*임진영, 최진이) 국립중앙박물관, 10년의 기록(임진영) 다시 한국성을 말하다.(박승홍, 임진영) 국립중앙박물관, 우리 현재의 모더니티(박길룡) 문화의 본당으로 거듭나다(이건무, 임진영) 용산, 뮤지엄컴플렉스 조성의 가능성을 읽다(서상우) 실속있는 박물관문화를 도모하다(박형식, 최진이)	국립중앙박물관	〈공간〉

67) 건축가지 1995년 4월호에 심사위원 인터뷰 중 늦게 제출된 가에 아우렌티의 답변 내용임.

5. 2000년대 : 지자체 본격시행, 균형발전정책 등에 따른 공공건축 다양화

1) 백남준미술관(백남준아트센터)

① 건축물 개요

※ 백남준미술관(백남준아트센터)

- 위치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146
- 대지면적 : 154,681m²
- 건물규모 : 지상 3층, 지하 2층
- 건축면적 : 1,857m²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설계자 : 김병현(창조종합건축)

(개요)

예술활동의 즐거움 우리는 백남준아트센터의 콘셉트가 그의 작품에의 공헌이라고 생각한다. 백남준의 작품에서 가장 특기할만한 점은 바로 끝없는 진보와 창조적인 진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드러나지 않는 개방성과 끝없는 변화야말로 백남준 아트센터에 관한 아이디어의 토대이다.

이 건축 공간은 문화 유목민 백남준의 전 세계적인 전시/작업 공간을 상징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공간이라야 했다. 우리는 아트센터가 하나의 오브제트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큐레이터와 아티스트와 방문자들이 창조적 작업을 위해 이용해야 할 또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건축적 도구는 극도로 개방되고 유동적인, 최적의 공간과 구조적 잠재력을 지닌 공간이어야 했다.

장소의 즐거움 우리는 이론상이나 존재하는 선형 공간을 원하지 않았다. 상상의 결과물은 여러 가지 테마와 기능, 큐레이터와 예술가들, 설치물, 환경,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와 다양한 방문자들의 체험들이 끝없이 엮어내는 결합들로 채워진다. 이는 공간적 복합성을 지닌 매트릭스이다. 이 구조는 예술 체험의 즐거움에 대한 모색이다.

우리는 아트센터 부지의 성격을 '뉴욕의 센트럴 파크', '스톡홀름의 스케프슬먼', '베를린의 티어르가 텐/쿨투어 포룸'처럼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갖춘 도심 한 가운데의 녹지로 보았다. 이는 마치 도심지구의 확장이 공원을 둘러싸고 이루어져 주거지역의 기능과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하나의 조경이자 공원을 구성하는 새로운 부분으로서, 건물을 짓는 작업만이 아닌 숲의 음영이 드러나는 아트센터를 정의하는 작업으로 흥미를 가졌다. 부지공간의 이러한 특성 및 분위기는 그 장소가 주는 유희의 형태에 대한 모색이다. 우리는 약 77m의 높이의 소나무들로 시작되는 숲의 가장자리에 펼쳐져 있는 부지 전체에 프로그램을 펼쳐놓았다. 이 숲의 가장자리는 자연 조경과 인공조경, 그리고 숲과 아트센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로서 작용한다.

스스로 발견하고 즐기는 방문자 이곳은 백남준의 예술과 호기심 많은 방문자들과 그들의 활동이 만나는 조경 중심의 인테리어 공간으로 제안됐다. 누구나 이곳에서 자유롭게 그들만의 경험을 결정하고 발견하며 탐구할 수 있다. 이곳이야말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num=724#.WdgdwVu0OUk>

② 기획단계

□ 사업추진 과정

동아일보 2002년 4월 8일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이 용인시에 2004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백남준미술관 건립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시 임창렬 도지사는 백남준과 미술관 건립과 작품 구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설계과정에 있어서 백남준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설계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③ 설계단계

□ 설계공모

당시 설계공모에는 43개국에서 439점이 응모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03년 8월 29일 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되었고 당선자인 크리스텐 슈멜(Kirsten Schemel)가 10월에 방문하면서 건축가 및 건축개념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소개되었다. 관람객에게 상상력을 제공하여서 관객이 자유롭게 공간을 선택하도록 하고 전시공간도 곡선형태로 만들어 산을 오르는 것처럼 관람하도록 계획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⁶⁸⁾ 2006년 백남준이 작고하였다.

건축가지 2003년 4월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공모전이 소개되었다. 공모전은 UIA(국제건축가연맹)에서 공인한 국내 3번째 공모전이었다. 대한건축학회의 추천으로 최재필 교수가 전문위원으로 진행하였다. 2003년 10월호에는 당선작 및 수상작 발표와 심사진행과정에 대하여 소개되었다.

공간지 2003년 10월호에는 당선작 현지인터뷰, 수상작 작품설명 및 이미지들이 소개되었다. 인터뷰 중에 당선작인 “매트릭스(MATRIX)”의 중요한 개념으로 장소가 가지는 풍경을 수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④ 공사단계

□ 착공과 감사

2006년 5월 착공식이 개최되었다. 경향신문 2006년 4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 실학박물관, 용인 어린이박물관 등이 착공되었다.

68) 허문영, 동아일보 2003년 10월 13일 독 세멜 방한 “관객들 상상력 자극하도록 설계”

2006년 9월 14일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로 김문수가 7월에 취임하면서 대형사업에 대한 감사대상 중 하나로 백남준미술관이 진행되었다. 이는 대형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었다.

⑤ 운영단계

□ 개관

개관식에는 공동설계자인 마리나 스탠코비(Marina Stancovic) 이 방문하여 작품을 설명하였다. 설계공모 당시의 개념보다는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2008년 건축문화대상 본상을 수상하였다. 최근에는 백남준이 살았던 창신동에 백남준 기념관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개관하였다.

⑥ 소결(각 단계별 주체와 논의들)

□ 일간지와 전문지

일간지에서는 사업을 추진한 경기도지사의 정책기조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표 4-22] 백남준미술관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기획단계	설계단계	공사단계	운영단계
일간지	사업추진			
	설계자 소개	-	-	-
	설계개념 소개 - 관람객에서 상상력 제공			
전문지	설계공모 소개			
	설계개념 소개	-	-	-
	- 자연과 인공의 조화			

*볼드표시는 주요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표 4-23]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백남준미술관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2003.7	시론: 백남준 미술관 UIA 국제현상설계를 진행하며 (최재필)	백남준 미술관	〈건축가〉
2003.9	칼럼: 백남준 미술관 UIA 국제현상설계를 마치며 (김종성)	백남준 미술관	〈건축가〉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① 건축물 개요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일원
- 대지면적 : 110,243㎡
- 건물규모 : 지상 4층, 지하 4층(최고높이 20.3m)
- 건축면적 : 22,324㎡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설계자 : 우규승(KSWA),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개요)

ACC는 아시아 과거-현재의 문화예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념이 만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국제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교류기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May 18 Democratic Movement)의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여 2015년 11월 개관한 ACC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아시아 각국과 함께 동반성장하고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입니다.



* 출처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

hhttps://www.acc.go.kr/ac_c/intro/facilities(접속일 2017.6.21.)

https://www.acc.go.kr/ac_c/intro/view(접속일 2017.6.21.)

② 기획단계

□ 기존 건축물 보존 및 철거

옛 전남도청 일대를 사업부지로 선정하면서 부지가 가지고 있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장 소성 등과 결합하여서 기존 건축물의 보존 및 철거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③ 설계 및 공사단계⁶⁹⁾

□ 기존 건축물 보존

5.18민주유공자동지회, 5.18기념재단 등은 설계공모가 공고된 이후에 지침서 상에 상무관을 철거 후 상징적 의미를 지닌 기념공간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남겨 이용하거나 철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다.(한겨례, 2005.6.30.)

설계공모를 통하여 건축사에게 일부 건축물의 보존여부 및 방식 등을 제안하도록 한 취지였으나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 설계공모 당선작 설계시비(중앙정부 문화부-광주광역시장-시민단체)

당선작이 선정과 동시에 중앙정부 문화부와 지자체(광주광역시)간의 지하화, 랜드마크 등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었다.

□ 설계개념

설계자인 우규승의 '빛의 숲(forest of light)'의 설계개념은 지속적으로 일간지에서도 소개된다. 랜드마크와 관련한 담론에 있어서 상권형성을 위한 랜드마크 보다는 기존의 랜드마크인 무등산을 유지하는 문화재생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동아일보2008.6.3.)

“설계에서 중요한 건 광주라는 장소성과 민주화의 역사적 기억이었죠, 건축은 사람이 사는 그릇을 짓는 일입니다. 산업과 경제 논리가 아닌 문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중앙일보2008.9.6.)

앞서 살펴본 정부종합청사, 독립기념관은 설계안에 대한 개념 등이 일간지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선작에 대한 개념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해서 발주처가 아닌 건축사가 직접 설계안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69) 아시아문화전당사업의 경우, 설계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이 진행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여서 앞서 설계, 시공의 구분 없이 단계를 통합하였다.

④ 공사단계

□ 기존건축물 보존 및 철거

5.18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부상자회, 5.18기념재단은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요구하였다.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별관이 철거된다고 하였고 준공일정, 재설계 문제, 설계 및 착공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립이 있었다. (한겨레, 2008.7.22) 수위실 철거 문제로 다시 전남도청 별관 보존문제 등 5.18관련 유적으로서 보존이 필요함을 시민단체에서 제시하였다. (동아일보 2013.8.16.)

□ 전당 시설 개요 및 설계개념 소개

기준이 각 시설들에 대한 구성 및 당선작에 대한 개념이 반복된다.

⑤ 운영단계

□ 안정적인 운영 등의 문제 : 기관장선정, 콘텐츠 등

개관시점에 임박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확보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장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관련 콘텐츠들에 대한 기대와 방향들이 논의되었다.

□ 전당 시설 개요 및 설계개념 소개

건축물에 대한 프로그램, 규모, 설계자, 예산규모, 성격 등 객관적인 사실만이 반복되어 설명된다. 국립중앙박물관보다 큰 “국내 최대 문화시설” 등의 기사가 언급된다.(매일경제, 2015.2.24)

“예술극장,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문화원 등 5개 원이 들어서는 문화전당은 옛 전남도청 자리로 전체 부지면적이 13만4815m²(연면적 16만1237 m²)에 이른다. 건축물은 재미 건축가인 우규승씨가 설계했고 총 7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문화전당은 문화콘텐츠를 창작·제작하는 복합문화기관이자 공간으로 역할하게 된다. 기획부터 창작·제작, 구현까지 일원화된 시스템과 공간을 갖춘 것이다. 여기에 아시아 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문화예술인들이 이곳에 머물며 창작·제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장르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예술적 실험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경향신문, 2015.11.20.)

□ 정치적인 프로젝트로서의 성격

2015년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당리당략적 혈세 낭비사업”이라는 지적 등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조선일보, 2016.12.1.)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에 대한 여야간에 쟁점사항이 기사화되었다. 주요 내용은 야당에서는 전당을 법인이 아닌 국가소속기관으로 하고 국가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하였으나, 여당에서는 타 사업과의 형평성, 콘텐츠 질, 경영효율성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매일경제, 2015.2.24.)

⑥ 소결

광주민주화운동의 장소라는 특수성으로 기존의 건축물의 보존 및 철거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여러번 전당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건축가가 직접 설명하는 것 외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성격 등이 반복되는 수준이며, 주요 담론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은 랜드마크, 건축물 보존 등이다.

광주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사업추진이 여부가 주요하게 사회적 담론으로 논의되었다.

□ 랜드마크 및 건축물보존 과정에서의 건축사 참여

사업진행 전 과정에서 광주시민단체에서는 건축물보존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당선작 선정이후에는 지하화된 건축물을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잠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문화부)와 시민단체의 논의과정에 우구승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설계안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 아시아문화전당 시설구성 및 설계개념에 대한 지속적인 기사화

아시아문화전당의 시설개요와 설계자의 개념과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격 등과 관련한 개요들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진다.

[표 4-2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기획단계 (시민단체)	설계 및 공사단계 (5.18관련단체-우규승-문화부)	운영단계 (광주아시아문화전당)
일간지	건축물 보존 (상무관)	랜드마크 논의 건축물 보존 (도청별관, 수위실) 개관지연	전당 콘텐츠 전당 운영문제 (관련법, 기관장 등)
전문지		당선작 선정	

*불드표시는 주요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특정주체들간의 논란은 설계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만들어졌다. 설계공모 지침 등에서 명확하게 보존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고, 사전에 본 공공건축물 사업추진과정에서 시민대토론회⁷⁰⁾ 등 개최되었다.

토론의 주요내용을 당시의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민대토론회 찬반

발제	찬성	발제자	반대
정기용	막대한 국가예산을 쓴는 공사가 다시 지연 돼서는 안 되고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황평우	옛 도청 별관은 시민군이 진압군을 향해 최초로 사격을 시작한 장소로 역사적 의미
박홍근	문화전당은 여러 건물이 실핏줄처럼 연결 되도록 설계돼 있다	김정동	“문화전당이 광주에 들어서는 것은 ‘광주정신’의 상징인 5·18 사적지가 있기 때문” “건물이 사라지면 기억에서 잊힐 것”
이병훈	보존방안 제안 - 별관을 철거한 후 부자재를 전국에 나누어서 기념하는 방안 - 랜드마크에 별관의 역사성을 담는 방안 - 본관 내부에 별관 축소 모형을 전시	윤광장	도청 별관을 반드시 사수하겠다

* 김권(2009.9.23.) (광주/전남)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시민대토론회 찬반 팽팽, 동아일보 재구성

<http://news.donga.com/3/all/20081120/8660340/1#csidx508558373db5ca88f158391190120d7> (2017.6.20.)

7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옛 도청 별관에 대한 시민대토론회(2008.11.18.)

[표 4-2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담론(도청별관 보존 문제)

	발주처	지역사회 (5.18관련단체)	건축사
절차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음 (20차례 협의과정)	도청별관 해체 불가	
설계	설계공모로 진행되었던 내용 변경 불가 재설계에 따른 공사지연 및 추가비용 발생		지하철역 설계변경 등 현실 적으로 불가능
보존방식	별관모양 축소 별관을 분리 보존	수용불가	

* 당시 관련기사 재구성

[표 4-27]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2006.1	문화도시 만들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정다영) *기획의 글 2004~202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들여다보기(정다영) 송기숙 인터뷰 광주와 아시아, 신인본도시를 향하여(정다영) 송기숙 인터뷰 광주와 아시아, 신인본도시를 향하여(정다영) 도시는 프로세스다(정다영) 갤럭시티 광주(이종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당선작, 빛의 숲(우규승)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가치의 발견(정인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간〉
2015.9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의 새 장을 꿈꾸다(편집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우규승 아키텍츠) (인터뷰)장소성을 통한 상징성의 발현(우규승, 박계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개관, 그 꿈과 현상 (박계현)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위한 문화경영 전략(이무용) 5개 원을 함께 모아 펼치다(김선정, 목진요, 김혁진, 김성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간〉

3) 한강 예술섬(서울공연예술센터, 노들꿈섬)

① 건축물 개요

※ 한강 예술섬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6, 146일대
면적 : 119,854.5m² (상단부: 60,818.4m², 하단부: 59,036.1m²)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높이: 12층 이하)

(개요-한강예술섬 추진경위)

- 2005.1. 노들섬 문화단지 조성계획 결정
- 2005.4. 노들섬 예술센터 국제아이디어 공모
 - 1등 안드레 페레아, 안나 라노바 룬드스트롬, 김정곤, 후리아, 최성희 등(2005.7)
- 2005.6. 노들섬 매입 완료 (주식회사 건영)
- 2005.11.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명에 관한 조례 제정
- 2006.1. 노들섬 예술센터 1차 지명초청 설계경기 공모
 - 1등 장 누벨, 공동2등 김정곤, 안나 라노바 룬드스트롬(2006.7. 발표)
 - 지명초청 설계경기 당선인(장 누벨) 계약 피기(2008.5.)
- 2007.3. 노들섬 문화공연예술센터건립 여론수렴 시행계획
- 2007.3. 노들섬 문화공연예술센터 전문가 여론조사
- 2008.10. 노들섬 공연예술센터 2차 지명초청설계경기 공모
 - 박승홍 건축가, “춤” 당선 (2009.3. 발표)
- 2009.3.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설계용역 시행
- 2010.2.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변경 결정
- 2010.7. 한강예술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0.9. 한강예술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 2012.5. 한강예술섬 조성사업 보류

※ 출처 : 노들섬 홈페이지 중 한강예술섬 추진경위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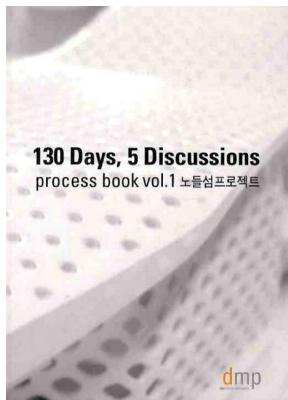
http://nodeul.org/citizen_competition/archive/

② 기획단계

□ 서울시장의 정책방향

2005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노들섬오페라하우스(서울공연예술센터)사업이 시작되었다. 건립계획 이후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착공을 다음 시장에게 미루게 되었다. 시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간에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초기에는 서울시재정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기도 하였으나 상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방안으로 진행되었다. 2006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였다. 2009년 하이서울이라는 정책에 따라 문화시설사업단이 신설되

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노들섬 문화예술 콤플렉스 사업, 서울시 신청사 건립, 국가상징거리 사업 등이 주요과제로 진행되었다.



[그림 4-3] 노들섬프로젝트
-설계사무소DMP 발간 책자 표지

□ 서울시장-서울시의회의 건립 시행 방안 검토

2010년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되었고, 서울시 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이 되었다. 한강예술섬은 서울시장이 발의하였으나 서울시의회에서 사업시행에 대한 적정성이 지속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기존의 건축물들이 대통령 등의 지시 등을 통하여 정해지는 방식이었다면 진행과정에서 적정성이나 동의절차를 통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서울시의회 외에도 시민단체 및 투자심사 보류 등 사업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 설계공모

아이디어공모전에는 장누벨의 설계안이 당선되었다. 설계비용 산정에 때한 갈등으로 재공모를 진행하였다. 2005년 11월에는 사업방식이 아이디어공모와 턴키를 결합한 지명초청현상설계경기로 변경되었다. 서울시청의 건립과정도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상황에 비추어 검토가 필요하다.

6명의 건축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지명설계공모에서 심사위원장에는 이근창 건축사와 독일의 Michael Trieb가 진행하였다. 당선작에는 박승홍 건축사가 선정되었다.

2009년 3월 초, 복합예술시설의 이름을 ‘한강 예술섬’으로 선정하였다. 당시 기자회견을 통하여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당시의 기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당선작 작품은 ‘춤’이며 ‘한국 전통 춤의 이미지를 형상화했으며 특히 지붕구조를 포함해 건축물의 측면 디자인에 전통 춤사위를 표현했다’. 심사평으로는 ‘섬 전체와 건축물이 유연하게 조화를 이룸으로써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예술성이 뛰어나고 한국의 정서를 잘 표현해 냈다’

이후로 2010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10년 말에 착공하여 2014년 말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착공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 운영과 공간 관련 3단계 공모방식으로의 진행(2015년)

2011년 8월 오세훈시장은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사퇴하게 되면서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10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였다.

2015년 사업방식을 3단계로 공모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1단계로 운영구상 공모(15년 6월-8월), 2단계는 운영계획 및 시설구상 공모(15년 9월-11월), 3단계는 공간 및 시설 조성 공모(16년 2월-7월)를 진행하여서 선정된 운영자에게 공간 및 시설계획부터 운영까지를 맡기는 방식이다.

또한, 여론 수렴을 위한 방안으로 ‘노들섬 포럼’과 각종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3년 8월부터 구성 및 운영된 노들섬 포럼은 도시건축, 생태환경, 역사문화, 시민 참여 분야의 전문가 23명이 2년여간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되었다. 총괄계획가는 서현 교수가 진행하였다.

운영계획 및 시설설계 현상공모 관리용역은 도시설계학회에서 2015년 4월 20일부터 2016년 7월 19일까지 진행하였다.⁷¹⁾

2차 공모인 운영계획 및 시설구상에는 Band of nodeul_사람 숲 그리고 음악라는 제목으로 김정빈(서울시립대), 오성희(서울프린지네트워크), 김병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 선정되었다. 최종 설계공모 당선작으로는 Studio MMK(맹필수, 김지훈, 문동환), 박태형이 선정되었다. 당시 심사위원은 민현식, 온영태, 정욱주, 최문규, 최신현, 플로리안 베이겔, 리켄 아마모토, 조남호 였다.⁷²⁾

③ 소결

□ 일간지 및 전문지

일간지에서는 사업초기부터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었다. 전문지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사업추진과정이 정리되거나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지적되었다.

□ 설계공모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설계공모가 진행되었다.

71) 서울시 서울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내 노들섬 공모관리용역 준공기한 연기의뢰(공공개발센터-4611, 2016.5.12.). <http://opengov.seoul.go.kr/sanction/8456212>

72) 노들섬 공식 홈페이지 http://nodeul.org/citizen_competition/archive/

[표 4-28] 한강예술섬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기획단계 (서울시청-시의회, 시민단체)	설계단계
일간지	건립필요성, 예산확보방안	-
전문지	-	설계공모 방식(아이디어-던카), 건립필요성, 여론수렴 새로운 공모방식 수행

*볼드표시는 주요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표 4-29]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_노들섬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2009.4	<p>노들섬에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묻다 (이경은) *기획의 글 (인터뷰)마지막 '한강 예술섬' 공모전: 갑론을박 (이근창, 김정곤, 박승홍, 이종호) 수상작 winner_박승홍, second place_톰 메인, third place_이상림, participant_김정곤, participant_안나 라노바 쿤드스트롬, participant_풀 앙드류</p>	한강 예술섬	〈공간〉

4) 서울시청사

① 건축물 개요

* 서울시청사

(사업추진 과정)⁷³⁾

2004 현재 자리에 신축하기로 결정(이명박 서울시장)
2005.4. 새 청사 건립 계획 발표 (현 청사 본관을 존치하고 증·개축)
2005.6.28. 공청회(구청사 본관을 존치하고 1차 아이디어 공모 후 2차 턴키로 시공사 선정 방침 결정)
2005.8 아이디어 공모 공고
2005.9 아이디어 공모 결과 발표(33작품 응모)
- 원양건축, 정림건축, 무영건축, 삼우건축, 원도시건축, 시아플랜건축, 창조건축 7작품 선정
2005.10 2차 턴키 공모
2006.2 철거시작
2006.4 2차 턴키 삼성컨소시엄(삼우+희림+KMD) 당선
* 공간지에서는 설계사무소를 중심으로 표현되었지만, 건설사로는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쌍용건설
2006.7 오세훈 시장 취임
2006~2008 6차례 디자인 변경
- 2006. 6. 10. 11 3차례 심의 부결
- 2007.3.16. 문화재위원회 조건부 통과
- 2007.10.29. 서울시 신청사 디자인 원점 재검토(오세훈)
2008.2 지명설계공모(4명-유걸, 박승홍, 류춘수, 조민석)
2008.5.20 신청사 착공
2011.7 시공 완성도를 위한 TF팀 구성, 유걸 마스터플래너 선정
2012.10 개청식
2013.2 준공



※ 출처 : 공간지 2012.8, 서울시 새 청사, 한국 건축의 반영, p62-63 및
한겨레 2016.1.6. 기사 재구성

73) 서울시청의 설계변경 과정들과 관련하여서 명확하게 정리된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New Seoul city hall : meet&communication(2013,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진행과정과 건축물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의회의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시청사건립 등 촉구 건의안’이 2005년 3월 29일 채택된 것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② 기획단계

서울시청의 신축문제는 오랫동안 새로운 장소가 모색되어 왔다. 여의도의 안보전시관 부지 및 용산 등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진행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000년대 들어와서이다.

③ 설계단계

□ 아이디어 공모 및 2차 턴키 공모

일간지에서는 설계공모 당시에는 기사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2006.4.10에 한겨레에서 새청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 장소성, 사업추진 기간의 적정성, 주변과의 조화 등을 언급하면서 잠시 언급되었으며 구체적인 안들이 소개되지는 않았다.

반면 전문지 공간에서는 2005년 10월 아이디어 공모결과 이후 턴키진행시작과 2006년 5월 당선작과 2008년 3월 지명설계공모의 결과단계에도 당선작 소개와 사업에 대해서 다루었다. 건축사지에서는 2005년 6월 서울시청사 증개축 턴키 기사가 게재되었다. 각 설계안에 대한 설계사무소의 설명서를 요약하여 게재하여서 당시 어떻게 각 설계안을 설명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지명설계공모

당시 4차례의 문화재위원회 부결이 있었고 2007년 10월 5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신청사 건립계획안이 통과되었다. 10월 말 오세훈 시장은 심의를 통과한 디자인인 서울의 랜드 마크에 어울리지 않아서 디자인을 폐기하고 다시 디자인을 마련하여 심의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명설계공모를 통하여 2008년 2월에 다시 유걸(아이아크 대표)의 설계 작품을 최종 디자인으로 선정하였다. 당시 기사에는 “한옥 쳐마와 곡선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통과 미래를 표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옛 서울시청 본관 철거 관련

경향신문 2008.8.28 기사에는 서울시청 본관의 철거관련 서울시장의 입장이 제시되었다. 건축물의 안전진단에 따라 문제가 된 공간에 대한 해체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2008.8.25. 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중앙홀과 돔, 시장집무실은 보존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 태평홀은 D급 판정을 파사드는 E급 판정을 받아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에서는 서울시청을 근대문화재로 가지정하여서 주요시설을 원형 보존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④ 공사단계

□ 시청부지에서 조선시대 화포 출토

시청사 공사 중에 조선시대 화포가 출토되었다. 보도자료를 통하여 언급되었던 사항으로 당시 문화재계에서는 발굴된 유적지를 보존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겨레 2009년 12월 2일 기사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층에 다양한 기둥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공사 등에서도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보존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현재 서울시청 지하공간안 시민청에는 당시 유구현장을 복원하여 군기시유적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다.

□ 뜬구조 공법

경향신문 2010년 8월 29일 기사에 따르면 본관건물을 뜬구조공법으로 시공하여서 기존의 본관건물을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지하층을 개발하여 공간을 확보하였다. 동아일보 2010년 8월 30일 기사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기사화되었다. 시공기술 등이 일간지에 소개되는 것은 매우 드문일이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본관을 보존하면서 건립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수단으로 활용한 것이었다.⁷⁴⁾

□ 친환경건축물

조선일보 2011년 6월 2일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건축을 강조하게 되면서 기사에서도 친환경건축물을 강조하는 기사가 다수 다루어졌다. 에너지효율 1등급 건물을 짓기 위하여 이중외피, 처마효과, 태양광 집광판 설치 등을 비록하여 내부에는 수직정원 조성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도 마련되었다.⁷⁵⁾

□ 디자인논란과 턴키공사방식 논란

한겨레 2012년 5월 30일 기사에 따르면, 턴키공사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유결(건축설계

74)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홈페이지에서 신청사로 기사를 확인한 결과, 2010.8.29.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된바 있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이용(2009.8.23.), 화포 출토(2009.11.30.), 에너지효율 1등급(예비인증) 획득(2010.07.08.), 서울시청사 펜스(2010.8.11.), 환기구 디자인(2010.11.12.), 지열 이용한 친환경 건축물(2011.4.26.), 친환경 랜드마크(2011.6.1.) 등도 배포하였다.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list/2/cntPerPage=10&srchText=신청사

75) 당시 기사도 서울시의 보도자료인 친환경 랜드마크(2011.6.1.)를 참고로 제작된 것이다.

사무소 아이아크 공동대표)은 토텔디자인마스터플래너(MP)로 참여하게 된다. 법령상 으로는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⑤ 운영단계

□ 서울시청에 대한 가치평가

공간지에서 준공시점에는 2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⁷⁶⁾ 1차는 조성과정, 공공 건축물이 가져야 할 가치, 건축계의 역할과 책임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2차는 기존건축물과 새로운 건축물의 관계, 상징성, 시청사의 가치로서 시민을 위한 공간과 업무공간으로서의 성격, 랜드마크, 장소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⑥ 소결(각 단계별 주체와 논의들)

□ 일간지 및 전문지

일간지에서는 설계공모의 과정들보다는 단신으로 어떤 작품이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기사가 반복적으로 게재되었다. 전문지에서는 공간지에서 초기에 증개축 설계경기 단계에서부터 준공이후에 청사에 대한 문제점을 돌아보는 등 지속적으로 서울시청사를 다루어왔다.

□ 설계공모

설계공모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되는 상황 등이 소개된 정도였고, 최종적인 계획안이 마련된 이후에 형태적인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기사화되었다. 준공시점에서 형태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발주방식이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전문지에서도 과정을 소개하고 서울시청 사업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언급되었으나 이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반적인 영역으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 보도자료

공공건축물의 조성과정에 관해서 제시되는 보도자료는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

76) 공간지(2012.8) 서울시 새 청사 어떻게 진행됐나(김광현, 황평우, 이필훈, 이영범, 하태석), 시청사,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다(김봉렬, 김종현, 조명래, 은병수, 이공희, 한은주).

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서울시청사 건립되는 2000년도에 이러한 보도자료에 기반한 기사들이 등장한다. 서울시청의 경우에는 공사과정 중에 문화재 출토, 친환경건축 요소, 시공기법 등이 소개되었다.

[표 4-30] 서울시청사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기획단계	설계단계 (서울시청·문화재위원회)	공사단계	운영단계
일간지	입지선정	문화재위원회 부결 -고궁과의 디자인부합 (양각규정 준수)	친환경건축물 문화재 출토 기존건축물을 보호를 위한 뜬구조 공법 적용	발주방식(던키)의 문제점 -건축가의 위상문제
전문지	-	설계공모 단계별 당선작 및 사업 소개	-	공공건축물의 조성과정 문제점 건축적 가치에 대한 논의 -공공성, 의견수렴, 건축가의 위상

*불드표시는 주요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표 4-31]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서울시청사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2005.10	서울시청사, 그 방정식에 대한 해법 찾기(정다영)		
	*기획의 글		
	서울시청사 증·개축의 도시설계적 조건들(김기호)	서울시청사	<공간>
	서울시청사 증·개축에 던지는 세 가지 이슈(편집부)		
2006.5	서울시청사, 그 미래는 (정다영)	서울시청사	<공간>
	서울시청사 증개축 던키 (정다영)		
2006.5	설계경기-서울시청사 증개축 터티	서울시청사	<건축사>
2008.3	서울 신청사, '디자인 서울'이 선택한 '서울의 상징'(정다영)		
	*기획의 글		
	진정성의 회복 (이공희)	서울시청사	<공간>
2012.8	수상작 : 유걸, 박승홍, 류준수, 조민석		
	서울시 새 청사를 '보다' (편집부)		
	서울시 새 청사, 한국 건축의 반영 (심영규)		
	*기획의 글		
	서울시 새 청사 어떻게 진행됐나 (김광현, 황평우, 이필훈, 이영범, 하태석)	서울시청사	<공간>
	시청사,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다 (김봉렬, 김종현, 조명래, 은병수, 이공희, 한은주)		

5) 동대문디자인플라자(동대문역사문화공원)

① 건축물 개요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281 DDP(20필지, 옛 동대문운동장 터)
- 대지면적 : 86,574 m²
- 건물규모 : 지상 4층, 지하 3층(최고높이 29m)
- 연면적 : 86,574 m²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설계자 :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공사 : (주)삼성물산
- 운영기관 : 서울디자인재단

(개요)

여성 건축가로서는 최초로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한 DDP는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입니다.

자하 하디드의 DDP설계안에는 동대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토대 위에 새로운 미래적 가치와 비전을 더한 동대문의 새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하 하디드는 이론 새벽부터 밤이 저울 때까지 쉴 새 없이 변화하는 동대문의 역동성에 주목해 곡선과 곡면, 사선과 사면으로 이뤄진 특유의 건축 언어로 자연물과 인공물이 이음새 없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콘셉트를 기반으로 DDP는 동대문이 갖는 상징성에 새로운 풍경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 출처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홈페이지

<http://www.ddp.or.kr/page/102/detail?menuId=3>

② 기획단계

□ 2006년 오세훈 시장의 동대문운동장 공원 공약과 실행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북도심 부활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주요 사업이 세운상가와 동대문운동장을 공원화하거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었다. 노점상 이주대책이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었다. 당시 동대문운동장에는 풍물시장으로 청계천에서 노점상이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기존의 운동장 기능은 구의동에 새 야구장 건립계획이 마련되었다. 기존의 구의정수장을 철거하고 사용하면서 디자인 정책에 있어서 기존 유산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2009년에 국제산업디자인단체 총연합회(ICSID)가 선정하는 세계 디자인 수도(WDC, World Design Capital)⁷⁷⁾로 서울시가 최초로 선정되었다.

77) 이후로 핀란드 헬싱키(2012),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2014), 대만(2016), 멕시코의 멕시코시티(2018)가 선정되었다.

<http://wdo.org/programmes/wdc/>

□ 2007년 국제지명초청현상설계경기 개최 – 환유의 풍경 당선

2007년 국제지명초청현상설계경기가 진행되었다. 총 8개팀이 참여하였다. 국내에는 유걸, 조성룡, 승효상, 최문규이고 해외에서는 자하하디드, FOA, 스티븐 훌, MVRDV였다. 8월 13일⁷⁸⁾, 당선작으로 ‘환유의 풍경’ 자하하디드의 계획안이 당선되었다.

한겨례의 2007년 8월 13일 단신기사에 따르면 “공원과 건축물이 분리된 개체라기보다는 조경과 건축의 성공적인 결합을 보이고 있다”고 심사평하였다.

□ 문화재청-서울시

경향신문 2006년 12월 11일 ‘동대문운동장 철거 신중해야’라는 사설⁷⁹⁾에 따르면 서울시의 계획에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주요 주체들로는 노점상은 생존권을, 문화재청에서는 동대문운동장이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여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것을, 축구계에서는 대체 구장 건립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역사적인 장소로서의 의미를 생각하여서 보존에 대한 방안과 노점상 대책을 요구하였다.

□ 과잉의 디자인-파사드

경향신문 2013년 2월 22일 건축과 삶이라는 연재기사에서 양상현(순천향대 건축학과 교수)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디자인만이 강조되면서 보여주기 위한 건축물인 ‘파사드의 과잉’으로 지칭하고 있다.

□ 전문가의 역할

한겨례 2007년 10월 29일에 사설칼럼으로 이경훈(국민대 건축학과 교수)의 글이 게재되었다. 합리적인 의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축가 보다는 일부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담론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전문가는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자하 하디드의 설계안이 새로운 도시의 인상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현대건축의 관계성으로서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동아일보 2010년 7월 7일 기사에서 황두진의 한옥관련 기사 중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78) 2007년 8월 8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된다는 공식발표가 있었다. 당초 8월말로 준비되었으나 북한의 수해로 10월로 연기되었다. 13일에는 텔레반에 역류되었던 여성 2명이 석방되었다. 20일에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 선거에서 이명박이 선출되었다.

7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12111809191&code=990101

언급하며 형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현대건축을 이해하는 것은 오해되고 있으며 기능보다는 관계를 중시하는 특성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③ 설계단계

□ 설계비 및 공사비 증액

경향신문 2008년 11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설계자의 요청으로 기존의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설계비는 당초 79억에서 136억으로 변경되었고 공사비는 현상공모 당시 2,274억에서 2007년 계약 시 3,441억, 2008년 3,758억으로 변경되었다.

④ 공사단계

2008년 말 공사부지에서 오펜수문 및 서울성곽 흔적이 발굴되었다. 2009년 4월에 착공이 되었다.

□ 2009년 동대문디자인파크 홍보관 개관

동대문디자인파크 홍보관이 개관하여 운영되었다.

⑤ 운영단계

2014년 3월 31일 개관하였다. 개관 1주년이 된 시점의 기사에 따르면, 비교적 방문객이 많은 상황이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비엔날레가 개최되었고 UIA 2017 세계건축대회가 개최되었다.

□ 건축물 평가 : 2013년 한국 최악의 현대건축 20선 중 5번째

동아일보에서 진행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동대문디자인프라자가 선정되었다. 당시 1위는 서울시 신청사 건물이었다.⁸⁰⁾

80) <http://news.donga.com/3/all/20130205/52820465/1>

⑥ 소결

□ 일간지 및 전문지

일간지에서는 조성과정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제시되었다.

전문지에서는 설계공모와 관련하여서 동대문의 입지에 외국건축사가 선정되어서 역사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정도의 언급만 진행되었다.

[표 4-32]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기획단계	설계단계	공사단계	운영단계
일간지	서울시장 공약사항 - 한양도성 보존, 노점상 이주대책 전문가(건축가)의 역할	사업비 증액 (설계비, 공사비 등)		
전문지				

*볼드표시는 주요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6) 전곡선사박물관

① 건축물 개요

※ 전곡선사박물관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443번길 2
- 대지면적 : 72,410 m²
- 건물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
- 건축면적 : 3,484m²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설계자 : X-YU Architects, 서울건축



(개요)

- 2004.3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기본계획 승인(문화재청)
- 2005.6 도립박물관 건립 방침 결정
- 2005.6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 2005.12 국제공모 공고-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국제설계 공모
 -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구, 한국박물관건축학회) 진행
- 2006.4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프랑스 데마지에르)
- 2009.3 기공식
- 2011.4 박물관개관(경기도, 경기문화재단)

※ 출처 : 전곡선사박물관 홈페이지 내 건립배경

<http://jgpm.ggcf.kr/about-us/construction>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num=2469&page=1#.WguP1k0UmUk>

② 기획단계

□ 운영방안

경향신문 2006년 3월 12일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국제학술심포지엄’이 3월 17일 개최되었다. 전곡선사박물관 건립의 의미와 해외박물관들의 운영사례와 발전방향에 대한 것이었다.

③ 설계단계

□ 설계공모⁸¹⁾

경향신문, 동아일보 2006년 4월 4일, 5일 단신으로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사유적지로 통하는 문’이 선정되었다고 소개되었다. 당시 손학규 경기지사는 전곡리 선사유적지의 관광명소를 고고학적 가치를 살려낸 박물관으로 만들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공간지 2006년 5월호에는 당선작 소개와 설계자 인터뷰가 기사화되었다. 당시 경기도가 진행하였던 백남준미술관 당선작 사례와 같이 처음과 달라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전문위원으로 이경훈(국민대 교수)이 참여하였다.

설계공모 지침상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담았는지에 대한 평가보다는 프로젝트가 가지는 특수성과 건축적인 접근방법, 태도, 개념이 주로 언급되었다.

□ 사업적정성 검토

조선일보 2007년 10월 15일 기사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3월경 관광객 유치효과를 지적하며 박물관 규모 및 과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추가적으로 체험공간을 계획하여 계획설계에 반영하였다.

④ 시공단계

□ 기공식

경향신문 및 동아일보 2009년 3월 23일 착공관련 기사가 게재되었다. 건축물에 대한 면적, 예산규모, 설계공모로 추진된 사항이 언급되었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소개와 전곡리 유물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당시 행사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참석하였다.

□ 개관식

2011년 4월 개관시점에 건축물을 소개하는 기사가 다수 다루어졌다.

81) 전곡선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는 건립과정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이 소개되어 있다. 사업의 추진경과와 국제설계공모의 일정 및 주요일정, 심사과정에 대해서도 콘텐츠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http://jgpm.ggcf.kr/about-us/construction>

⑤ 소결

□ 일간지 및 전문지

설계단계에 설계공모 수상작이 소개된 정도로 다루어졌다. 설계공모 공고, 기공식, 개관식 정도만 일간지에서 다루어졌다. 각 단계별로 건축물에 대한 규모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었다.

전문지에서는 설계공모 당선작이 소개되었다. 설계공모에 UIA인증을 받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였음에도 건축물에 대한 담론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다.

□ 설계공모

설계공모 공고에 대한 단신과 당선작 발표를 통한 작품소개가 진행되었다. 설계과정에서 규모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체험공간이 추가되었다. 본 건축물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손학규 도지사때 시작되었고 이후 김문수 도지사 시절 재검토가 진행되었다.

백남준미술관 건립과정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된 적이 있다. 당시 김문수 도지사는 재정 절감 차원에서 기존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되었다.

[표 4-33] 전곡선사박물관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운영단계
일간지	-	설계공모 공고 당선작 발표 사업적정성 검토	기공식 - 건축물 개요 소개	개관식 - 건축물 개요 소개
전문지	-	설계공모 수상작 소개	-	-

*불드표시는 주요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표 4-34]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전곡선사박물관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2006.5	전곡선사박물관 국제현상설계 축적된 시간에 대한 건축적 은유(정다영) 수상작(당선작, 2등작, 3등작)	전곡선사박물관	<공간>

7) 부산영상센터(두레라움, 영화의 전당⁸²⁾)

① 건축물 개요

* 부산영상센터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467번지
- 대지면적 : 32,137m²
- 건물규모 : 지상 9층, 지하 1층
- 건축면적 : 22,140m²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설계자 : Coop Himmelblau(Wolf D. Prix),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정영균;이목운;고원도)

(개요)

영화의전당은 뛰어난 조형성과 해체주의의 건축미학이 구현된 건축물로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오스트리아 '쿱 힘멜브라우'의 설계안으로 2008년 10월 2일부터 2011년 9월 29일까지 사업비 1,679억원(시비 1,078.5억원, 국비 60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되었다.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 '영화의 전당'은 6개 상영관, 야외 상영장, 영상 문화관, 시청각실, 시네마테크, 사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나선형 지지대에 얹혀진 초대형 트러스트 구조물로, 85m 초대형 캔틸레버(Cantilever)의 고난도 공법을 적용했다. 캔틸레버에 태양열 집적판을 설치하고, 자연 통풍, 채광을 유도하는 등 친환경 디자인을 구현했다.

비정형 건축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의 전당'의 가장 큰 특징은 초대형 캔틸레버 지붕으로 구성된 빅 루프(Big Roof)다. 캔틸레버(Cantilever: 기둥 없이 걸쳐진 구조물)라는 고난이도 공법을 적용하여 기둥 없이 스스로 지지되는 구조물로 모든 방향에서 보행자가 진입할 수 있다. 길이차이가 있지만 양쪽 무게를 비슷하게 하여 하단에 견고한 구조물로 안전하게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했고 초대형 태풍에 대비하여 순간최대풍속 70m/s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이 빅 루프는 길이가 162m 폭은 60m로, 기둥 하나로 지탱하는 건물 중 세계 최장이어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기도 했다.

또한 세계적인 영상문화시설에 걸맞게 영화 연극 오페라를 감상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영상, 음향, 조명 등 서비스도 최고 수준으로 갖췄다. 부산국제영화제 개·폐막식이 개최될 4200석 규모의 야외극장 벽면에는 가로 24m, 세로 13m로 국내 최대의 야외스크린이 설치됐고 모든 상영관과 공연장이 7.1채널을 완벽히 구현하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빅 루프 하부에는 약 42,600개의 LED 전구가 설치되어 다양한 빛 공연과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해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http://www.dureraum.org/bcc/contents/contentsView.do?rbIdx=194>

*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num=2252#.WdsEkE0UmmQ>

② 기획단계

□ 입지선정 및 사업규모

동아일보 2004년 9월 22일 기사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로 입지를 선정하였다. 초기의 계획으로는 국비 230억, 시비 230억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로 예정되었다.

82) 사업초기단계에는 부산영상센터로 진행되었으나 2005년 명칭공모를 통하여 두레라움이라는 명칭을 선정하였다가 개관시점인 2011년 영화의 전당으로 변경하면서 두레라움은 애칭으로 사용하였다.

□ 설계공모

일간지에서는 설계공모에 대한 기사가 다루어지지 않았다. 공간지 2005년 11월호에서는 우리 도시의 문화정체성이라는 주제⁸³⁾로 부산영상문화도시의 관점에서 부산영상센터가 다루어졌다. 단일 건축물의 관점에서 도시와 연계한 기획으로서 의미가 있다. 단일 건축물로서가 아닌 도시정책과의 관점에서 건축물의 담론을 다루고자 한 시도이다. 2006년 1월호에는 한국의 외국건축가들이라는 특별기사로 부산영상센터에 참여한 5개 해외건축가들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국제초대공모전에 대한 개요, 영상과 건축이 결합된 프로젝트의 소개, 그리고 1차 수상작 소개 및 공모방식과 진행에 대한 논의점 등이 제시되었다.

건축가지 2006년 6월호에는 국제설계경기로 진행된 여러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면서 언급되었다. 프로젝트의 취지와 공모진행과정에 대한 소개, 당선작에 대한 작품설명이 소개되었다.

③ 시공단계

□ 예산확보 문제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실행과 관련하여서 공사비 확보와 관련한 예산문제가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다.

한겨레 2008년 8월 18일 ‘부산영상센터 건립 강행’ 기사에 따르면 건립비용이 1,624억으로 책정되었으나 총사업비를 691억으로 정하여 345억만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지속적인 국비지원이나 부산시 재정으로 진행하도록 되었다. 비용에 따른 설계변경 보다는 설계안을 실행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동아일보 2010년 4월 6일 ‘공정 28% ’두레라움’ 국비지원 늘려야’ 기사에 따르면, 당시 2차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다. 2008년 6월 1차 타당성 조사에 따라 691억으로 축소되었으나 시에서는 별도의 설계변경 없이 2008년 10월 기존 계획으로 착공을 진행하였다.

83) 공간지에서는 이후로 안양(2015.12), 광주(2006.1), 전주, 경주(2006.4)가 다루어졌다. 당시 문화예술정책의 일환으로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부산은 영상문화중심도시를 전주와 경주는 각각 무형문화와 유형문화의 유산중심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④ 운영단계

□ 건축물 평가 : 해체주의 건축물

2011년 9월 개관시점에 다양한 기사⁸⁴⁾에서 이 건축물에 대한 개요설명과 함께 많이 언급된 것은 ‘해체주의 건축물’이라는 설명과 구조적 안정성과 공연장 및 지붕천장 등 시설물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⑤ 소결

□ 일간지 및 전문지

일간지에서는 설계공모로 진행된 계획안의 실현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추진하려는 부산시와 예산집행을 최소화하려는 기재부의 논의가 주로 다루어졌다. 개관시점에는 건축물 소개와 관련하여 해체주의 건축물이라는 독특한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구조, 지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전문지에서는 설계공모 참여작 소개 및 설계공모 진행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 설계공모

전문지에서는 예산확보의 문제와 설계공모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외국 설계사무소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점, 당선작 선정을 1차 심사에서 유보한 것, 프로젝트에 대한 의미가 시민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었다.

[표 4-35] 부산영상센터 조성단계별 담론, 주제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부산시-기재부)	운영단계
일간지	입지선정	-	설계안 실현을 위한 사업비 확보	건축물에 대한 소개 -해체주의
전문지	-	수상작 소개 설계공모 과정에서 문제점 제시	-	-

*볼드표시는 주요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84) 동아일보 2011년 9월 27일 센텀시티에 명물 ‘영화의 전당’... 아시아 영화의 심장으로 우뚝
<http://news.donga.com/3/all/20110926/40612512/1>

[표 4-36]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부산영상센터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2006.1	부산영상센터(우동주) *한국의 외국건축가들, 한국이 사랑한 건축가 기획의 일환으로 프로젝트 참여 건축가 작품 소개	부산영상센터	〈공간〉
2005.11	시네포트 부산의 구현체, 부산영상센터(정다영) - 부산영상센터 국제초대공모전 *우리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의 기획의 일환	부산영상센터	〈공간〉
2005.10	아이디어는 죽고, 합리성만 남았다. (임진영)	부산영상센터	〈공간〉

8) 정부세종청사(중심행정타운)85)

① 건축물 개요

※ 정부세종청사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대지면적 : 596,283m²
 - 건물규모 : 지상 8층, 지하 1층
 - 연면적 : 629,145m²

노무현
(03.2-08.2)

이명박
(08.2-13.2)



2005.10 이전계획 고시

2012.9 입주시작

2014.12 정부세종청사 완공

(개요)

정부수립 당시 1실 11부 4처였던 중앙행정기관은 구.중앙청(과거 조선총독부 건물, 이후 1983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다가 1995년 철거됨)을 중심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하였음

이후 정부기능의 다원화로 행정기구가 확대됨에 따라 청사부족으로 인하여 13개 기관이 일반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자체청사 보유기관도 목조시설 등 노후된 사무실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각 기관의 청사가 곳곳에 산재되어 행정논리를 좁지 및 대민·봉사 행정 측면에서 문제점이 가중되었을

이에 신사되어 있는 각 부처를 집중수용함으로써 행정능률의 제고와 국민의 행정기관 이용편의를 증진하며, 청사 부족
나의 해결과 청사 윤지관리비의 절약을 위하여 대규모의 정부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



※ 출처 : 정보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hungsa.go.kr/chungsa/frt/sub/a02/b04/sejongInfo/screen.do?depths1=1&menu=1&smenu=1>
<http://www.chungsa.go.kr/chungsa/pdf/2helplocation.jpg>

85) 정부세종청사는 2012년 7월 31일 명칭을 조정하면서 사용되었다. 설계공모 단계에는 '중심행정타운'으로 사용되었다.

② 기획단계

신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기획단계에서 기관이전 대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이전대상 기관 등에 대한 이슈는 2004년 후보지선정 및 이전대상기관 등이 논의되었으나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위헌 판결 등이 이슈가 되었다. 2005년에 도시개념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개최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세종시 수정계획에 대한 논란이 기사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중심행정타운에 대한 기획단계에 대한 기사는 없다.

③ 설계단계

□ 설계공모

일간지에서는 2007년 1월 19일 중심행정타운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이 발표되었다. 경향신문, 한겨레, 동아일보에서 관련 소식을 기사화하였다. ‘수평으로 펼쳐지는 캔버스형 도시’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기존의 수직도시의 개념에서 벗어나 기존지형과 자연 환경을 살렸다고 언급하고 있다. 당시 보도자료⁸⁶⁾에도 해당문장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전문지 공간지에서는 2008년 1월(통권482호)에 중심행정타운 1단계 공모 결과를 발표되는 시점에 다루어졌다. 기획의 글에서는 1단계 공모에 대해서 “실험적인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안전핵은 ‘건축가에 의한 도시계획은 대안인가?’라는 글을 통하여 도시설계자의 관점에서 마스터플랜의 문제점과 마스터플랜이 실현되는 과정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좌담회에서는 ‘중심행정타운은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온영태, 승효상, 조명래, 김인수가 참여하였다. 주요내용은 건축, 도시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 마스터플랜의 실현가능성, 설계공모의 문제점, 전문가 역할 등 제도적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86) 정부세종청사(중심행정타운)과 관련하여서 공모실시(2006.8.29.), 참가등록마감(2006.9.22.), 작품접수 마감(2007.1.11.), 시상식(2007.2.13.)에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공모실시 및 작품접수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일간지에서는 기사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표 4-37] 중심행정타운 간담회 참여자별 주요 내용

	중심행정타운 마스터플랜	도시계획시스템의 경직성	행정타운의 구성 및 전문가의 역할	마스터플랜 실행
운영태	건축을 통한 도시만들기로 마스터플랜	도시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합계획의 관점에서 도시계획 시스템이 존재 관료적 절차와 계획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오브제로서의 건축물이 됨	행정기능과 도시기능과의 연계가 필요함 설계공모 이전단계에 사회적 담론과정을 통한 다양한 가능성 이 논의되어야 함	관리자의 관점에서 재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는 사회구조임 도시만들기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져야 함
승효상	기존도시에 대한 반성 참여자가 전반적인 도시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	초기 도시개념이 훼손되어 기능적 분류와 중심을 만들어냄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형태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화를 수용해야 함	위원회의 형식보다는 도시를 일괄되게 코디네이트할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마스터플랜 당선자가 세부설계까지 관여 담론 생성이 풍부해야 함
조명래	수평적도시와 인간과 자연을 통합하는 것은 행정도시의 개념에 부합함 다만, 실행단계에 관료화된 절차가 우려	도시구조 속에서 행정타운은 일상적인 삶과 분리되어 있음	중앙부서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논의 등 건축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가능성이 필요함	마스터플랜의 재해석의 가능성이 있어야 함 오랜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성을 확보해야 함 추진위원회가 재해석의 역할을 해야 하며 자치단체가 역할을 할 수 있음
김인수	기존의 지형과 연결된 생태, 환경적인 계획		초기단계에 담론을 주도할 사람보다는 기술적인 전문가 참여의 문제	재해석의 주체가 건축 가여야 함

* 공간(2008.01), 중심행정타운은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가, 좌담회, p102-105 재구성

④ 운영단계

□ 건축물 평가

중앙일보 2013년 7월 24일 기사⁸⁷⁾에 따르면, 23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발언이 기사화되었다. 당시 발언내용은 "건물은 미와 실용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 용을 형상화했다는데, (세종청사는) 하늘에서 봐야 용이지 땅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청사가 실용성이 없어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몇십 분 걸리는데, 이건 정말 잘못

87) 중앙일보(최준호, 2013.7.25.), 정 총리 “세종청사 멋만 실컷 부려, 잘못됐다”

<http://news.joins.com/article/12163431>

된 것", "멋만 실컷 부렸지 실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등의 별언이 소개되었고 주변 아파트 등에서 청사 내부가 보일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당시, 중앙일보를 제외하고는 설계자는 용을 형상화하였다고 언급된 기사도 확인할 수 없다. 청사시설의 상징적인 대표자라 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었다.

□ 마스터플랜의 실행

전문지 공간지에서는 2014년 3월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의 모습을 다루며 정부세종청사의 운영단계에 모습을 기사화하였다. 조명래 교수는 '세종시 속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원고를 통하여 새로운 신도시의 모델로서 시작부터 논의과정을 통하여 세종시와 행복도시간의 특별한 관계를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첫마을, 호수공원을 통하여 진행과정 중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성과정을 살펴보았다. 마스터플랜에 있었던 플랫시티와 링크시티의 개념은 옥상 및 청사로의 자유로운 진입이 보안상의 문제로 구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마스터플랜의 참여업체였던 다아이나 발모리와의 인터뷰에서는 마스터플랜의 실행과 관련한 이슈들이 제기되었다. 질문에서부터 마스터플랜이 도시종합계획으로 지적에 도시위원회와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을 지적한다. 건물의 가이드라인인 잘 준수되었으나 주변지형의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안이 강조된 상황이며 향후 2030년까지 지속됨에 있어서 수평적 어바니즘이 지켜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조항만은 2014년 4월(통권556호)에서 마스터플랜의 이상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좀 더 살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⑤ 소결(각 단계별 주체와 논의들)

□ 조성과정

정부세종청사는 행정청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2004년 신행정수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논란, 대통령후보들의 공약 등 세종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설계단계에 대한 기사가 일부 있으며 공사단계의 기사는 세종시의 위상문제와 관련하여서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되는 기사 정도이다. 유지관리단계에서는 청사이전 등에 대한 기사들이 대다수이며 운영단계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평가와 마스터플랜의 실행과정에 대한 기사가 다루어졌다. 하지만, 마스

터플랜이 어떤 과정의 변화를 거쳐서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지적은 명확하게 다루어진 적은 없다.⁸⁸⁾

□ 일간지와 전문지

일간지에서는 정부세종청사 건축물에 대한 기사는 설계공모 당선작 소개만 진행되었다. 전문지 공간에서는 건축과 도시설계의 문제에서 이러한 지점을 다루고 있다. 다만, 청사가 가져야 할 공간의 적정성보다는 건축, 도시분야의 전문가 사이의 제도, 전문가의 역할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전문가의 논의로 사회적 담론으로 다루어진 것은 없다.

□ 설계공모

마스터플랜에 대한 설계공모 당선작 소개가 간단하게 기사화되었다. 20세기의 고밀도 수직도시의 개념에서 수평적인 도시로 건축, 도시, 조경이 통합되는 계획으로서의 플랫 시티, 링크시티와 환경 친화적인 제로 시티의 개념이 설정되었다. 전문지에서는 건축과 도시설계의 관점에서 제도적 문제와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표 4-38] 정부세종청사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기획단계	설계단계	공사단계	운영단계
일간지	신행정수도 관련 논의	당선작 소개	-	이전관련 기사
전문지	-	당선작 소개 건축과 도시설계의 제 도적문제와 개선방안	-	마스터플랜의 이상과 현실

*볼드표시는 주요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표 4-39]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 _ 정부세종청사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2014.4	‘행정중심복합도시 두 가지 행복을 위한 도시의 조건’을 읽고 (조향만)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정부세종청사)	<공간>
2014.3	행정중심복합도시: 두 가지 행복을 위한 도시의 조건(특집) 찬란한 실험, 행복도시의 성장기(박계현) 세종시 속의 행정중심복합도시(조명래) 공정률 40%행복도시의 민낯(편집부) (인터뷰) 중심행정타운의 완결성을 재문하다 (다이아나 밸모리, 편집부)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정부세종청사)	<공간>
2008.1	중심행정타운, 행정도시의 현재를 말하다(김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간>

88) 이와 관련하여서 해안건축에서는 정부세종청사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10년을 회고하는 행사로 2016년 5월 ‘중심행정타운 10년. 마스터플랜과 건축’ 심포지엄과 ‘오래된 미래: 중심행정타운 10년의 연대기, 해안건축의 시선’ 전시를 개최한바 있다.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p>*기획의 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당선안 돌아보기(편집부) 시민 친화적인 정부청사 건설(김종훈) 건축가에 의한 도시계획은 대안인가?(안건혁) 중심행정타운은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가? (온영태, 승호상, 조명래, 김인수)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1단계 건립 국제설계공모(편집부) 순성 환상곡(범건축) 메디에이트 품(희림건축) FORMing TALUS, WALKing STRIP, FINDing CELLS(공간그룹)</p>		중심행정타운 (정부세종청사)

9) 여수세계박람회장

① 건축물 개요

*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관

- 위치 : 전남 여수시 덕충동 351-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8,860m²
- 건물규모 : 지상 3층
- 건축면적 : m²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설계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 SOMA(STEFAN RUTZINGER)

(개요)

<2012 여수엑스포 주제관>은 국제 현상을 통해 오스트리아 건축그룹인 소마(soma)의 '하나의 바다 (one ocean)'가 당선됐다. 주제관은 엑스포의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을 전시하는 건축물로 그 형상 자체가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http://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num=2246#.WgvUQNVl9FE>

② 설계단계

□ 설계공모

2009년 4월 10일 기사에 따르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국가관', '주제관'에 대한 현상공모가 공고되었다.

경향신문 2009년 6월 10일 기사에 따르면, 주제관 공모에 참가등록이 1000개팀이 신청하였고, 5인의 국제초청공모를 통하여 네덜란드, 영국, 일본 건축가와 이필훈(정립건축), 이상립(공간건축)이 국내 건축 4단체의 추천으로 선정되었다. 경향신문 2009년 10월 7일 기사에 따르면 133개팀이 응모하였다고 심사위원은 게리 하크(미국), 쟁 쉬링(중국), 김진균(서울대), 박승홍(디자인캠프 문박), 김준성(건국대) 등이다. 경향신문 2009년 10월 19일 기사에 따르면 당선작발표회를 통하여 오스트리아 권테르 베베르의 '하나의 바다(One Ocean)'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여수박람회의 주제인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형상화하였다.

경향신문 2009년 8월 30일 기사에 따르면, 국가관 설계공모에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와 단우건축사사무소의 '다도해의 은유'가 선정되었다. 8개의 작품이 제출되었다.

③ 운영단계

□ 건축물 평가

전문지 공간지 2012년 6월호에는 특집으로 ‘여수엑스포의 환상과 불편한 진실’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주제관과 국제관 건축물이 소개되었다. 엑스포와 건축의 관계에 대한 글들이 다루어졌다.

④ 소결

□ 일간지와 전문지

일간지에서는 설계공모와 관련한 추진과정이 소개된 정도이다. 전문지에서는 운영단계에 있어서 주제관 및 국제관에 대한 소개와 설계사와의 인터뷰 등이 진행되었다. 엑스포와 건축과의 관계와 관련하여서 사후활용, 국가도시지역적 가치, 지속성 등에 대한 글들이 다루어졌다.

[표 4-40] 여수세계박람회장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운영단계
일간지	-	설계공모 과정	-	-
전문지	-	-	-	엑스포와 건축

*볼드표시는 주요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표 4-41]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지)_정부세종청사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2012.6	여수엑스포와 환상과 불편한 진실(편집부) 엑스포의 환상과 신기루(심영규) 건축가에게 엑스포란 무엇인가?(김현섭) 2012 여수엑스포 주제관 생각을 실현하는 험난한 여정(인터뷰) 2012 여수엑스포 국제관 의숙함의 건축(이경훈) 여수엑스포의 국가적 도시적 지역적 가치(서정일) 2012 여수엑스포 사후 활용에 대한 소고(정금호) 엑스포와 지속성 : 엑스포 이후의 여수(최원준)	여수엑스포	<공간>

10) 안중근의사기념관

① 건축물 개요

* 안중근의사기념관

- 위치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471-2
- 대지면적 : 1,185m²
- 건물규모 : 지상 2층, 지하 2층
- 연면적 : 3,756m²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주 : (사)안중근의사기념관건립위원회
- 설계자 : 디림건축사사무소(김선현, 임영환)
- 설계기간 : 2007.5-2009.4
- 공사기간 : 2009.4-2010.10

(설계의도)

남산공원이라는 지리적 이점은 동시에 많은 조건을 덧붙였다. 건물의 높이를 12m로 제한했고 남산르네상스 계획에 의해 더욱 많은 제제를 받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발주처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3개 층에 걸쳐 수직으로 전시시설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내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지하1층부터 2층까지 유연한 동선흐름을 만들었고 2층의 마지막 전시실을 관람한 후에 멀리 한강까지 조망이 가능한 남측 계단실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전체 전시동선 상에서 유일하게 중복되는 부분은 참배홀이며 관람객이 시작과 끝에 안의사의 영정을 볼 수 있도록 한 건축적 의도였다.

기념관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집회기능은 주 진입부터 전시기능과 분리된다. 건물의 측면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며, 지하1층까지 연결되는 선큰데크를 통해 내부 집회홀과 이어지며 계단을 통해 관리 및 사무공간과 인접한다. 균질한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자연광을 유입시키기 위해 이중U형유리와 600mm 간격을 두고 폴리카보네이트 내장재를 설치하였다. 외부에서 필터링되어 들어온 은은한 빛은 집회실 앞 흙을 항상 밝혀준다.

이중U형 유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남산의 환경과 건물의 형태였다. 극도로 절제된 건물의 조형에 석재나 금속성 외장재가 덮히면 더욱 차갑고 위압적인 느낌을 줄 것이며 투명한 커튼월은 건물의 기능과도 맞지 않으며 상징적인 외관과 유리될 수밖에 없다.

유글래스의 반투명한 질감은 주변 고목의 푸르름을 머금으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표출한다. 12개의 기둥 조형을 강조하기 위해 박스의 사이 공간에는 투명한 전창을 끼웠고, 내부에서 작은 휴게공간으로 사용해 관람객들이 남산의 절경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반투명 외피는 건물을 비치는 조명방식이 아니라 건물에서 발산하는 경관 조명 계획을 가능하게 했고 기념관의 상징성이 야간에도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건축물 전체가 좀 더 균질한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 유글래스 이중 벽 사이에 필름지를 붙여 빛의 반사를 배가시켰다.

(작품배경)

기존의 기념관이 노후 협소해짐에 따라 2004년 (사)안중근의사승모회와 광복회의 요청을 받은 대통령의 지시로 새 기념관을 건립하였다.

* 출처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num=1844#.Wd922Fu0NFE>

월간 space 홈페이지

http://www.vmspace.com/2008_re/kor/sub_emagazine_view.asp?idx=10963

② 설계단계

설계공모로 진행되었으나 당시 설계공모지침서, 공고문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건축’지 2007년 8월 설계공모 당선시점, 2011년 1월 준공시점에 ‘프로젝트 소개’란에 안중근의 사기념관이 소개되었다. 주요 설계개념으로는 12개의 기둥이 상징하는 단지동맹에 대해서 언급되었다.

③ 운영단계

□ 개관시점 설계자 인터뷰 : 건축설계와 전시계획의 분리, 설계개념에 대한 설명

중앙일보 2010년 10월 26일에 설계자 인터뷰가 게재되었다. 12개의 기둥이 상징하는 단지동맹, 지상에서 지하로 진행되는 동선을 통하여 추모공간으로의 진입, 권위적인 돌 대신에 반투명 유리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고 설계과정 중에 전시와 동시에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 등이 언급되었다.

전문지의 ‘공간’지 2010년 10월호에 임영환의 ‘한국에서 기념관 짓기’를 통하여 건립과정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었다. 기념관의 특수성에도 건축가를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이 부여되지 않고, 건축과 전시가 별도로 진행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지적한다.

□ 개관식행사에 초대받지 못한 건축가를 통한 건축가의 위상, 건축의 위상 문제

중앙일보 2010년 10월 29일 기사에 따르면 10월 26일 진행된 안중근의사 기념관 개관식에서 건축가에 대한 자리, 테이프커팅, 호명도 없었음을 아쉬워한 사실이 소개되었다. 이 기사를 계기로 11월 5일 ‘대한민국 건축의 현주소’라는 기사를 통하여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하는 건축가들에 대한 기사와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11월 16일 새건축사협의회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통하여 창작자로서의 대우를 요구하였다. 17일에는 정영균(희림건축 사장)의 ‘건축가 설 자리는 없는 “디자인 한국”’이라는 글을 통하여 건축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로 인식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④ 소결(각 단계별 주체와 논의들)

본 건축물은 개관식에 초대받지 못한 사실로 일간지에서 이슈가 되었다. 다만, 주목한 매체는 ‘중앙일보’ 한 매체였다. 개관식에서 설계자를 위한 배려가 없었던 것은 건축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건축단체(새건축사협의회⁸⁹⁾)의 기자회

견으로까지 진행되었다.

전문지인 공간지를 통해서 건축가는 운영단계에 설계자의 대우 및 건축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의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한다.

[표 4-42] 안중근의사기념관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기획단계	설계단계	공사단계	운영단계
일간지	-	-	-	설계자의 대우 및 건축디자인에 대한 인식문제
전문지	-	설계개념 소개	-	설계자의 대우 및 건축디자인에 대한 인식문제(건축가)

*볼드표시는 주요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89) 새건축사협의회의 기관지에서 2013년 봄여름호 제23호에서는 '건축가의 자리를 찾읍시다'라는 특집이 기획(기획자 임영환)되기도 하였다.

11) 경기도청사

① 건축물 개요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서 생략한다.

② 기획단계

□ 설계공모와 호화청사 논란

김문수 도지사는 2009년 경기도 신청사에 대한 국제지명설계현상공모를 진행하여 당선작으로 공간건축의 계획안을 선정하였다. 규모는 지하 3층, 21층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당시 성남시 호화청사 논란으로 인하여 당선작에 대한 발표가 미루어져 왔다.

□ 광교신도시, 경기도 재정난에 따른 설계중단 및 재개

2009년 세계금융위기 등으로 사업은 중단되었다. 광교신도시 내에는 신청사 이전지로 홍보되었고 신분당선 연장 등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사업이 중단되었다.

2014년에 7월 남경필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경향신문 2014년 9월 18일 기사에 따르면, '소통·공감 신청사 건립 토론판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한겨레 2015년 3월 18일 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던 사업을 지방채 발행, 공유재산 매각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한국일보 2016년 4월 26일 기사에 따르면, '신청사 응복합개발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었다. 건립비용 3,300억으로 응복합 개발수익으로 조달하는 방안과 규모를 기존 5만 9,000m²에서 2만m²로 축소하였다. 착공은 2017년 6월 진행하여 2020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동아일보 2017년 1월 6일 기사에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정부지를 축소하고 일부 부지를 공공업무시설, 주상복합용지로 전환하여 매각대금을 신청사 건립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③ 소결(각 단계별 주체와 논의들)

□ 일간지 및 전문지

일간지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서 경기도의 재정을 고려하여 도청사업의 추진여부가 지속적으로 검토되었다. 2017년 현재, 착공만 진행된 사항으로 설계, 시공, 운영에 대한 기사는 없다.

[표 4-43] 경기도청사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기획단계	설계단계	공사단계	운영단계
일간지	-	호화청사 재정난에 따른 사업실 행 및 중단	-	-
전문지	-	-	-	-

*볼드표시는 주요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1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① 건축물 개요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위치 : 서울 종로구 소격동 165
- 대지면적 : 27,264m²
- 연면적 : 52,125m²
- 지상/ 지하 : 3층/ 3층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설계자 : 민현준 (주)건축사사무소 엠피아트, (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GS건설

(개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미술관 건축물의 특성을 살리고 지리적 여건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무형의 미술관', '일상 속의 미술관', '친환경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다. 건물内外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다층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6개의 마당 주위에 건물이 배치되어, 미술관과 관람객과의 관계정립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21세기 미래지향적 미술관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관은 전시동 및 교육동을 비롯하여 디지털정보실, 다목적홀, 영화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 예술센터이다.

※ 출처 :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mmca.go.kr/contents.do?menuId=5050001531>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num=5116#.We32HU0UmUk>

② 기획단계

□ 사업추진 관련 대통령, 장관 발표

2009년 1월 15일 경 다수의 일간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2009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서 기존 기무사 터를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미술문화의 가치 창출 및 국민 문화 향수권 증진을 위한 국립미술관 확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전부터 미술계에서는 이곳에 미술관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여 왔다.

2009년말 문화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한글박물관을 2012년 건립하여 국가상징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보고되었다.

□ 국립현대미술관장 배순훈 선임 및 관장주도의 사업 추진, 사퇴

2009년 2월에 신임관장으로 배순훈 관장이 선임되었다. 주요 역할로 국립현대미술관을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이었다. 취임초기인 3월에는 세계적 건축가를 대상으로 지명설계공모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후로도 관장이 직접 사업추진과정에 주요사항을 발표하였다. 이후로 2011년 11월 갑작스러운 사퇴로 기사화가 되었고 2012년 2월 정형민 관장이 취임하였다.

□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

미술관의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배순훈 관장의 인터뷰에서는 일본의 신국립미술관의 실패사례를 언급하며 무리한 법인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 기존 부지, 건축물(기무사, 종친부)의 보존 및 활용방안 관련

한겨레 2009년 9월 28일 기사에 따르면 '옛 기무사령부 본관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활용에 대한 타당성 및 방향성'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본관 건물은 등록문화재로 2008년 등록되어 있었으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다.

2009년 11월, 기존에 국군서울지구병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자리로 이전하여 전체 공간을 서울관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다만, 건축물에 대한 보존 및 활용범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란이 진행되었다.

2010년 6월, 문화재발굴 조사 중 부지 내 위치하여 있던 종친부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복원계획이 발표되었다. 건축역사 학계에서는 복원을 주장하였고, 현대미술관이라는 특성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유적을 훼손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복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설계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설계지침이 변경되었다.

2010년 7월 한겨레 기사에서는 미술계 정준모, 우찬규와 건축계 안창모 교수의 좌담회가 소개되었다. 서울시청,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에서의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것과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시되었다.

□ 아이디어 공모전 및 설계 공모전

동아일보 2010년 2월 1일에는 아이디어 공모전의 해외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배리 베그돌에 대한 인터뷰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1월 30일에 개최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미술

관 건축' 세미나에 주제발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과거의 역사성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공간'지 508호(2010.3)에서는 1차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이 소개되었다. 소개는 본 사업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듣는 것과 수상작으로 선정된 5작품의 소개와 인터뷰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사의 말미에는 서울관 건립에 대한 연보를 통하여 장소의 역사와 동시에 정책의 결정과정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일현은 '공모전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국내 건축사로 한정한 것과 아이디어 공모형식으로 간소화된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형식이 효율적이었음을 강조 한다.

인터뷰기사에서는 각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공통의 질문이 주어진다. 사업추진단계에서 지속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으로 각 사무소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주제들이었다. 주제들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존방안으로서 기무사 본관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것, 건축법규의 영향, 주변 콘텍스트에 대한 고려, 종친부에 대한 해석 등이었다. 기존에 형태적인 상징성, 설계개념 보다는 건축가의 장소성, 역사성에 대한 태도에 집중되었다.

2010년 8월 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되었다. 심사위원장인 강석원이었으며 심사평으로 "한국 전통건축의 '마당'을 현대적으로 응용해 북촌과 경복궁 등 기존 주변 요소가 구축한 공간의 맥락을 살리면서 역사적 공간과 미술품을 함께 감상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종친부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선작 실행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③ 설계단계

2010년 12월에 기본설계가 완성되었고 2011년 1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이 통과되었다. 90)

90) 동아일보(2011.1.1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발안 확정.
<http://news.donga.com/3/all/20110113/33931525/1>

④ 공사단계

2011년 6월 기공식이 진행되었다. 2012년 8월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였고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다수의 기사에서 무리한 공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화재원인으로는 전기 합선으로 밝혀졌다. 개관시점 이전에 서울관 홍보관이 2013년 1월 개관하였다.

공간지 2012년 4월호에는 건축가와 CM의 영역과 역할 논쟁과 관련하여서 건축가의 글이 게재⁹¹⁾되었고, 2012년 5월호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입장이 게재⁹²⁾되었다.

⑤ 운영단계

2013년 10월 개관시점에 과천관에 미술연구센터를 개관하였고 서울관은 2013년 11월에 개관하였다. 개관시점에 설계자 인터뷰를 통하여 건축개념들이 소개되었다. 다양한 역사의 층위를 반영하였고, 관람객들의 다양한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계획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개관시점에 전시와 관련하여서 청와대 외암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2014년 7월에 깊은건축가 프로젝트(YAP)로 진행된 '신 설늘음'이 진행되었다. 2014년 9월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대통령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선정되었다.

공간지 2013년 10월 551호에서는 안창모 교수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축과정에 있어서 역사문화자산보존의 갈등구조에 대한 글을 게재하였다.⁹³⁾

⑥ 소결

□ 일간지와 전문지

일간지에서는 기획부터 운영단계까지 전반적인 기사가 다루어졌다.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초기단계에 기본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존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었고, 설계단계에서는 사업추진 정도가 소개되었다. 시공단계에는 무리한 공기단축과 관련한 화재사고가 있었다.

91) 민현준, 정운주, 최동규, 최성훈(2012.4), 건축가와 CM의 영역과 역할 논쟁, 공간지 533호, pp.16-21.

92) 윤남순(2012.5), 건축가와 CM의 영역과 역할 논쟁(공간4월호)에 대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입장, 공간지 534호, pp.17-19.

93) 안창모(2013.1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축을 통해 본 역사문화자산보존의 갈등구조, 공간지 551호, pp.68-73.

전문지에서는 아이디어 공모, 최종 당선작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었다. ‘공간’ 지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 많은 논의가 있었음을 다양한 참여주체별 의견을 취합하는 형식으로 소개하였고 그동안의 사업추진과정을 연혁으로 제공하면서 다루었다.

□ 주요논의

일간지의 기획단계에서 기존 부지의 활용방안 및 건축물 보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국군서울지구병원 이전문제와 종친부터 이전복원 문제가 설계공모 진행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큰 논의과정 없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임기내 완성 등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시공과정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표 4-4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조성단계별 담론, 주체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운영단계
일간지	사업추진 대통령 발표 관장주도의 사업 기본 부지 및 건축물 보존 문제	사업추진과정	무리한 공기 단축 화재사고	개관시점에 건축 물 소개, 설계자 인 터뷰
전문지	(아이디어 공모) 장소성,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해석	-	설계자와 건설관리와의 갈등	-

*볼드표시는 주요담론의 부분, 그 외에는 담론의 차원

[표 4-45] 설계공모 관련 기사 종합(건축사, 건축가, 건축, 공간) _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시기	제목	건축물명	비고
2010.3	고궁 옆 현대미술관 (이경은) *기획의 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아이디어 공모전 이모저모 당선작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김주원), 쉐이프리스 뮤지엄(민현준), 모도(신춘규, 최윤정, 최춘웅), 어반 캔버스(정림건축) 페블릭 룸으로써의 국립현대미술관(M.A.R.U), 기무사 터의 미래를 그리다 (당선작 대담) 입선작 (박영일+피터 원스톤 페레토+박희령+김준성, 우의정+김태형 +이중호, 이승윤+최정우+강한샘+박혜선, 이정훈, 최문규+가 아건축)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간>

6. 소결

1) 시기별 특징

□ 일간지와 전문지 담론

1960년대 진행된 정부종합청사, 국회의사당 조성과정에 있어서 건축의 논의는 일간지에도 다루어지면서 건축계와 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건축분야의 전문적인 이야기보다는 고층업무시설을 국내건축가에서 해외사무소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진행되었다.

1980년대 독립기념관에서는 건축물 자체 보다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반일감정이 건축물에 대한 관심으로 진행되었다. 전문지 등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이나 방향에 대한 비판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건축을 문화로서 다루어지게 되었고 국제공모로 진행되면서 해외건축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건축개념 등이 일간지에서 소개되면서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학회, 협회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회원들간의 친목이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에 성격이 강하였다. 그래서 비판적인 글들 보다는 작품을 소개하며 건축계의 동향을 공유하는 정도로 진행되었다.

□ 공공건축물 용도별 담론

공공건축물의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기획되는 사업도 있지만,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건축물에 대한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좀 더 확장하여서는 문화재 및 유물에 대한 건축적 해석에 대한 논의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설계공모 이전에 부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해석이 진행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함에도 설계공모를 통하여 계획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이 추진하게 되면서 초기의 설계개념이 수정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1960년대, 서울청사 신축과정에는 기존 사무실에 대한 매각을 통한 예산확보와 공간별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옛 조선총독부 건물이 중앙청으로 활용되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이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존 논란 등이

그것이다. 2000년대에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과정에서 일제강점기 건립된 병원, 조선시대 종친부 건물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2) 조성과정별 특징

주요 공공건축물의 설계단계별 사회적 담론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시공 및 운영 단계에 대한 주요 담론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 일간지와 전문지 담론

일간지를 통해서는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당시의 기사화된 시기의 시대상을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각 프로젝트마다의 특수성에 따라 기획단계에서 다양한 담론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전문지는 조성단계에서 설계단계가 주로 다루어졌다. 대상선정에 있어서 설계공모로 진행된 공공건축물의 특성도 있지만, 건축분야에서는 누가 어떤 작품으로 당선되었는지가 1차적인 이야기로 다루어졌다. 시공 및 운영단계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다. 최근에 들어서 설계이후에 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담론이 등장하기도 한다.(안중근의사기념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 입지선정의 문제

공공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사업대상지가 검토되는 경우, 어느 지역으로 선정되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 사업비 및 예산확보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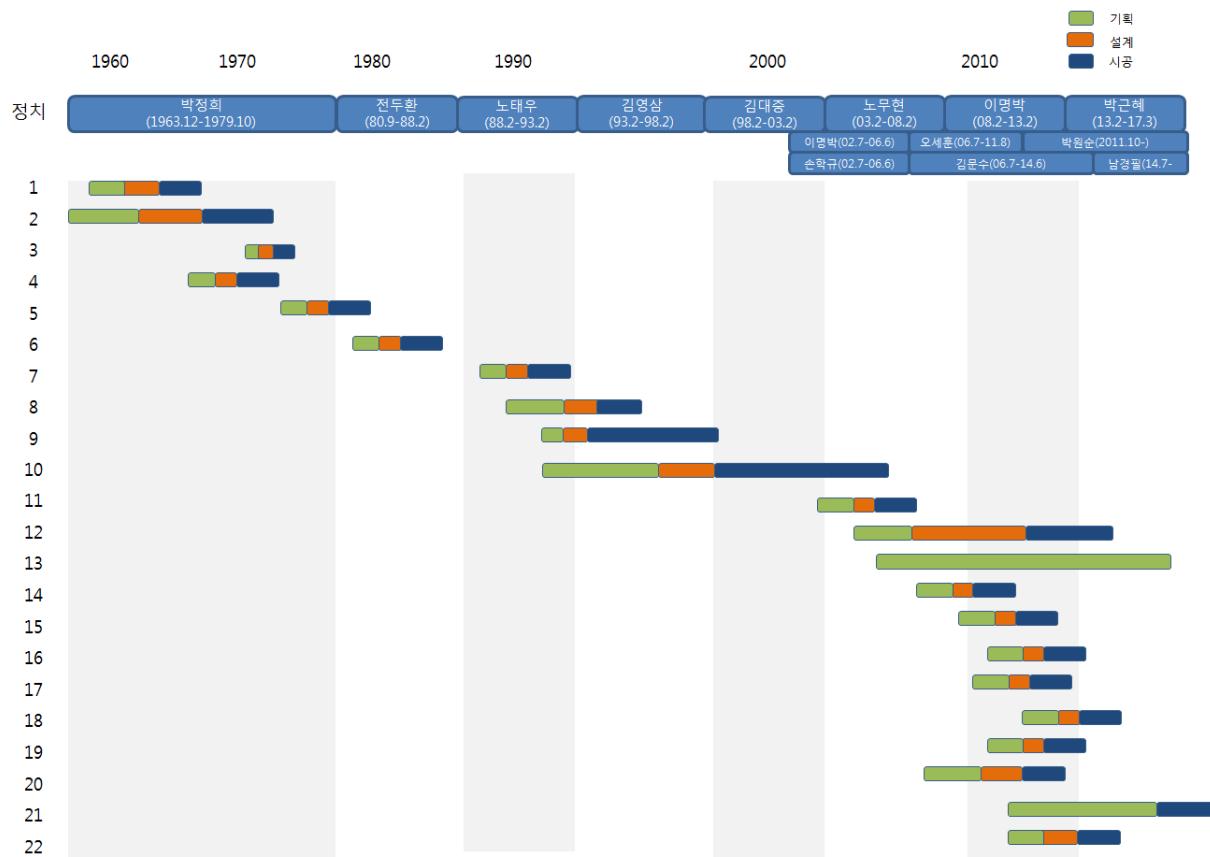
부산영상센터의 경우, 설계공모 단계에서 사업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설계공모로 추진된 계획안을 바탕으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실행하기도 하였다. 비록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응이나 일간지 기사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표 4-46] 주요 공공건축물 설계단계별 사회적 주요담론_일간지

시기	프로젝트명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운영단계
1 1960년대	정부종합청사 (정부서울청사)				
2	국회의사당				
3	KBS청사				
4 1970년대	서울시민회관 (세종문화회관)				
5	한국증권거래소				
6 1980년대	독립기념관	성금모금을 시민 참여		화재안전관리	시공의 완결성
7	국립대구박물관				
8	전쟁기념관				
9 1990년대	정부 제3청사 (정부대전청사)				
10	국립중앙박물관	기준건물 보존		한국성의 표현	
11	백남준미술관	사업추진		설계자 소개 설계개념 소개 - 관람객에서 상상력 제공	
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념비성 문제 기준건물 보존	
13	한강 예술섬	사업추진의 적정성			
14	서울시청사			기준건물 보존	
15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기준건물 보존	
16	전곡선사박물관				
17 2000년대	부산영상센터	입지선정		설계안 실현을 위한 사업비 확보	건축물에 대한 소개 -해체주의
18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정부세종청사)				
19	여수 세계박람회장				
20	안중근 의사 기념관				설계자의 대우 및 건축디자인에 대한 인식문제
21	경기도청사	사업중단 및 재개 사업추진 대통령 발표			
2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관장주도의 사업 기본 부지 및 건축 물 보존문제	기준건물 보존		무리한 공기 단축 화재사고

[표 4-47] 주요 공공건축물 설계단계별 사회적 주요담론_전문지

시기	프로젝트명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운영단계
1 1960년대	정부종합청사 (정부서울청사)				
2	국회의사당				
3 1970년대	KBS청사	설계공모 제도 개선 제안			
4	서울시민회관 (세종문화회관)				
5	한국증권거래소				
6 1980년대	독립기념관				
7	국립대구박물관				
8 1990년대	전쟁기념관			상징성과 한국성	
9	정부 제3청사 (정부대전청사)				
10	국립중앙박물관	기존건물 보존		한국성의 표현	
11	백남준미술관	설계공모 소개 설계개념 소개			
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3	한강 예술섬				
14	서울시청사				
15	동대문디자인플라자				
16	전곡선사박물관				
17 2000년대	부산영상센터			수상작 소개 설계공모 과정에 서 문제점 제시	
18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정부세종청사)				
19	여수 세계박람회장				
20	안중근 의사 기념관				설계자의 대우 및 건축디자인에 대한 인식문제
21	경기도청사				
2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아이디어 공모 -프로젝트 소개 마당 개념		설계자와 건 설 관리와의 갈등	



[그림 4-4] 22개 주요 공공건축물 조성시기와 대통령,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임기(연구자 작성)

제5장 결론

1. 주요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담론 흐름
 2. 새로운 담론을 위한 방향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 주요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담론 흐름

각각은 초창기에 같이 움직여왔다만 이후로 각 전문지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물론, 학협회의 활동은 회원들의 활동을 통하여 알려질 수 있으나 그것은 일간지 등을 통해서 사회에 알려지기 보다는 각자의 활동으로 일반인은 쉽게 알 수 없고 관계자들만 아는 ‘미지의 영역’에 남게 된다.

최근, 국가기록원 등의 자료를 통하여 기록물 자료에 대한 열람의 방식이나 참여하였던 전문가들의 구술기록, 단행본 등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통하여 추가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차적인 연구로서 일간지, 전문지로 한정하여 공공건축물의 사회적 담론을 찾아보고자 하였고 이를 통하여 도출한 주요 사회적 담론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용도별 담론

정부청사(서울, 대전, 세종)

정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청사는 당초 기존의 건물들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점차 단일 건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대전 및 세종청사는 수도권의 과밀한 개발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부처간 재배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이루

어져 왔다. 건축물의 설계부분에 대한 논의는 다른 공공건축물에 비하면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일반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초기에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기존자산을 처분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일간지를 통해서도 공유되었던 것에 비하면 최근의 세종청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담론을 찾기 어렵다.

서울청사가 일간지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일간지를 통해서 건축물 조성과정에 대해서 일반인들과 담론을 공유하였던 것에 비하면 세종청사와 건축물에 대한 언급은 새로운 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성과정 등과 연계하여 건축, 도시, 조경의 차원에서 다루어졌다.¹⁾

□ 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은 주로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의 문화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대규모 사업임과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사업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각 정부의 문화정책과의 해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사를 통해서 확인된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였다.

2) 사업추진 주체별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주요 공공건축물 중 대규모 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투입이 결정되어야 하는 특성상 대통령, 지자체장 등의 사업추진 의지가 주요하다. 지자체별로 추진된 건축물들 역시 시·도지사에 따라 사업추진과 중단이 결정되는 상황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 한강예술섬, 서울시청사,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경기도의 경우, 백남준미술관, 경기도청사가 이러한 사례이다. 일간지 및 전문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공공건축물은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되기 보다는 국가 및 지자체장의 의지가 주요하게 관여하였다.

물론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어지는 공공건축물도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 1980년대의 독립기념관의 경우에는 일본의 역사왜곡이라는 문제로 인하여 사업이 촉발되어서 성금모금 등의 방식을 통하여 건축물의 조성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경우에는 역사의 기억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보존되어야 할 것과 새롭게 만들어질 것에 대한 건축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사례이다. 다만, 운영단계 등에 까지도 연계되지는 못하고 있다.

1) 공간(2008.1), '중심행정타운, 행정도시의 현재를 말하다.'의 기획을 통하여 도시개념, 세종청사, 중앙공원의 당선안을 소개하고 발주처의 입장, 도시계획가의 입장에 대한 기고문과 건축, 도시, 조경가들의 간담회를 통한 진단이 진행되었다.

□ 설계공모로 추진되었지만 활발한 가치 담론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축물

22개 사례 중 담론이 활발하게 형성되지 않은 사례도 다수가 있다. KBS청사, 서울시민회관, 한국증권거래소, 국립대구박물관, 부산영상센터, 안중근의사기념관 등이 그러하다. 원인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시대별 건축담론의 흐름

각 시대별로 논의되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60년대 : 정부종합청사, 국회의사당

행정부와 입법부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공공건축물로서는 규모가 큰 건축물이어서 건축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정부종합청사의 경우, 전문가집단에서 발주처의 시공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한 설계사무소 변경이 주요 이슈로 일간지에도 기사화가 되면서 사회적인 담론으로 제기되었다. 국회의사당의 경우도 전문가집단에서 설계공모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일간지에서 잠시 다루어졌다. 이후로 진행과정에 대한 기사화가 있었으나 전문지에서는 준공시점에서 총체적인 이슈제기가 다시 이루어졌지만 일간지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 1970년대 : KBS청사, 서울시민회관, 한국증권거래소

3개의 건축물과 관련하여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KBS청사, 한국증권거래소는 국민적인 관심이 비교적 적은 특수용도의 건축물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민회관의 경우에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대규모 문화시설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요구되었지만, 중요도에 비해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건축물에 대한 소개도 한국적인 모습을 반영하였다는 정도로 다루어졌다.

□ 1980년대 : 독립기념관, 국립대구박물관,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은 전문지에서는 설계와 관련하여서 전통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에 대한 비판기사가 많이 다루어졌으나 일간지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교육하는 장소로서 강조되면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국립대구박물관은 일간지, 전문지 모두에서 단신으로 소개된 정도였다.

□ 1990년대 : 정부 제3청사,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시설의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최초로 신축된 건축물이 계획됨에 따라서 다양한 관심을 받았다. 정부 제3청사 등은 기능적으로 대전으로 기능이 분산되는 정도가 다루어졌고 전쟁기념관 역시 중요하게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 2000년대 : 백남준미술관 외 11개 건축물

2000년대 이전까지 건축물이 10여개이고 이후가 12개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담론이 2000년대에 제시되었다.

2000년대 지어진 건축물과 관련한 담론의 특징 중 하나는 2000년대 후반부터 설계외에도 시공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부처에서도 건축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녹색건축’ 등이 등장하게 되면서 정부방침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라는 설명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친환경건축요소에 대한 설명 등이 그러한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주도한 건축물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행정중심복합도시중심행정타운, 여수 세계박람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4개이며 나머지는 서울의 한강예술섬, 서울시청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부산의 부산영상센터, 경기도의 백남준미술관, 전곡 선사박물관, 경기도청사 등 지자체에서 발주된 건축물들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문화시설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4) 전문집단과 일반사회에서의 건축

1960년대 초반에는 전문집단의 이야기가 일반사회에서도 소통되어 왔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집단의 발언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점차 건축집단의 발언은 전문지에서만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광주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하여 두 집단과의 괴리가 대폭 좁혀지게 된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보존의 문제가 설계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으나 건축가가 직접 나서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기존에는 발주자들인 관료들이 조정과정을 거치고 계획안만을 제시하였으나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대적 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기도 하였고 발언이 강해진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언론지상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특정될 수 있는 주체

로서의 대중, 시민이기 때문에 시대 및 건축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의는 다르게 내려진다. 광주아시아문화전당에 있어서는 5.18관련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이었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공공건축물은 건축에 있어서 건축주인 정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건축물들이 기획되고 조성되었다.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통령의 지시사항, 공약 등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기념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 등은 각각 독립관련 단체 및 문화계의 요구에 의한 것도 존재하기도 한다.

5) 설계공모제도에 대한 담론, 논의들

설계공모 제도 자체에 대한 건축계의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자질, 설계공모지침서의 구체적인 수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건축물의 가치판단의 문제 등이 반복되어 이야기되었다. 우수한 건축물이 선정되지 못하는 것이 문화시대에 뒤쳐진다는 지적도 계속 있어왔다.

1970년대 건축단체들이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²⁾을 만들어서 운영하여 왔고, 이후로 정부에서 ‘설계공모 운영지침’³⁾으로 고시하여서 활용하게 되는 상황은 다양한 건축가들의 노력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동시에 설계공모의 진행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 김원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은 한국증권거래소, 독립기념관 등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2) 1972년 12월 12일 제정되었고 1984년과 1999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당시 UIA설계경기 규범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3) 1998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이 제정되어서 운영되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2014년 제정되어 현재도 운영되고 있으나 조달청 등에도 별도로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이 운영되고 있음.

2. 새로운 담론을 위한 방향

□ 설계공모로 진행된 자료에 대한 보관 및 출판작업, 건축과정의 온전한 이해

현재, 설계공모로 진행된 최종성과물은 ‘작품집’의 형태로 남게 된다. 제출품을 일부 가공하는 형태이다. 기존에는 준공지 등의 형태로 사업의 전과정을 남기는 작업도 진행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청,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에서도 준공지를 통하여 사업의 전체 과정을 살피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건축물의 기획에서 운영까지의 전 단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동안의 건축계의 논의는 설계과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건축물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건축가의 설계의 도, 개념이었다. 그 외의 이야기는 설계공모 형식, 건축과 건축가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부분들이었다.

주민의견의 수렴, 시민참여의 가치 보다는 형식과 방법적 측면에서만 논의되는 상황에서는 형식적인 ‘공청회’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만 머무를 수 밖에 없다.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이 있는지 물어본다.

□ 서울시청에 대한 조성과정에 대한 기록 ‘말하는 건축’

영화 ‘말하는 건축 시티:홀’은 서울시청의 건축물 조성과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것이다.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다양한 주체들의 이야기가 유결과 서울시청, 삼성물산의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영화를 통하여 건축물은 어떤 과정을 겪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모든 건축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기록하여 남길 수 있는 것은 없을지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최선의 방식들은 무엇인지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건축가는 다른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존재한다.

영화에서도 시민, 이용자의 이야기는 크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에 서울도서관, 지하에 마련된 ‘시민청’ 등의 공간을 통하여서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서울시청은 시민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서울시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면서 행정을 담당하는 서울시청 공무원들의 근무지이기도 때문이다.

□ 담론의 주체 : 대중적인 전문가

1960년대 초반, 전문가와 일반사회는 그룹이 나뉘어지지 않았다. 서울청사의 건축물 조성과정에서와 같이 전문가들의 발언은 일간지에서 다루어져왔다. 하지만, 더 이상 전문지에 전문가들의 발언이 다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후로 전문가들의 대중적인 글쓰기가 등장한다. 전문가의 컬럼이 그것이다. 서현, 승효상, 임형남과 노은주, 양상현, 유현준, 문훈, 임석재, 안창모 등이 그들이다. 서현은 1999년 1월부터 6월까지 동아일보에 '서현의 우리 거리 읽기'를 연재하였다. 승효상은 경향신문에 '보이지 않는 건축, 움직이는 도시'를 연재하였다. 임형남과 노은주는 2010년부터 세계일보에 '부부건축가 임형남·노은주의 키워드로 읽는 건축과 사회'를 연재하고 있다. 양상현, 유현준, 문훈은 경향신문에 '건축과 삶'이라는 시리즈를 기고하였다. 임석재는 2005년 3월부터 한국일보에 '건축, 우리의 자화상'을 연재하였다. 안창모는 2017년 4월부터 문화일보에 '도시건축으로 보는 서울'을 연재하고 있다. 그들은 건축 전문가이면서 건축의 이야기를 일간지를 통해서 이야기한다. 그러한 글들은 다시 단행본을 출간되기도 한다.

□ 담론의 매체 : 전통적인 매체로서의 신문, 잡지에서 다양한 형식으로의 전환

기존의 신문이 가지고 있던 매체로의 위상은 인터넷, 핸드폰 기술을 통하여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독자층이 상징하였던 매체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새로운 가치, 매체로 대체되고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일간지 및 전문지 자료에서 SNS, 생활지 등으로 확장

본 연구는 전문가집단과 일반사회에서 각각 동일한 건축물이 어떻게 소개되고 이야기되는지의 담론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대상으로 일간지, 전문지로 한정하였고 1950년대부터의 흐름을 위하여 가급적 대상 자료를 한정하였다. 특히 전문지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다양한 건축매체들의 등장이 있었다. 소통의 방식은 잡지, 신문의 매체 외에도 전시, 출판, 강연, 방송 등의 방식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건축의 소통방식이 SNS등의 인터넷 매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전문지가 아닌 생활지 등

을 통해서도 건축물이 소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인식은 있었으나 건축매체의 1차적 자료라 할 수 있는 신문과 전문지로 한정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자료, 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설계공모로 진행된 공공건축물의 의사결정에 대한 추가 연구

설계공모로 진행된 공공건축물은 특정건축사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양한 건축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심사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건축물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과정 등을 거친다는 점에서 건축물에 대한 담론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선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기에에는 한계가 있었다. 발주자의 건축물에 대한 생각을 담은 ‘설계공모지침서’, 건축사들의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담은 ‘설계설명서’, 심사과정에서의 논의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심사회의록’, ‘심사평’ 등이 남아 있는 건축물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발주처 등을 통한 추가 확인 가정을 통하여 추가적인 확보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일간지 및 전문지의 매체적 특성을 고려한 매체 담론 연구

일간지 및 전문지에서 기사화가 진행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그 시대를 기록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왜 그것이 기사화가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또 다른 담론의 영역이다. 때로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화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기자의 탐사, 기획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기사도 있으며 전문가의 기고의 글들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것들의 경중을 다루지 않았고 그것이 그 시대에 얼마나 공감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도 다룰 수 없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단행본 및 보고서)

- 김용학(2007), 「사회 연결망 분석」, 박영사.
- 목천건축아카이브, 우동선, 최원준 전봉희(2014. 12. 12), 「윤승중 구술집」, 마티.
- 미셸 푸코, 이정우 해설(1993), 「담론의 질서」, 새길.
- 박민철, 이용범, 이주연, 전진삼(1995), 「건축은 없다? - 구 조선총독부 철거 반대 건축·미술 전문가 발언집」, 간향미디어.
- 이상현(2013), 「대한민국에 건축은 없다」, 효령출판.
- 이태철(2013), 「New Seoul city hall : meet&communication」,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정재철(2014), 「문화연구의 핵심개념」,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희연(2003),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책.
- 한국건축가협회(2008.8), 「한국건축가협회 50년」, 한국건축가협회.
- 홍성태(2012), 「사회로 읽는 건축」, 진인진.

(논문 및 연속간행물)

- 김승범(2012), 「공공건축물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도연정, 전봉희(2016.7),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1920-30년대 부엌담론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3권 7호, pp.29-36.
- 박인석(2006 겨울), “한국 도시상황과 주거건축-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설계경기 심사 참관기”, 건축과 사회 통권 제6호, pp.151-155.
- 박정현(2016.12), “독립기념관의 건립과정과 담론 변화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학회, Vol.25 No.6(통권 109호), pp.73-80.
- 이미경·김한배(2009), “청계천복원관련 담론분석을 통한 환경인식 지형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36권 제9호, pp.102-114.
- 이배화(1998.1), “건축설계경기의 민주적 투명성”, 건축(대한건축학회지), v.42 n.1, pp.47-51.
- 이제이·성종상(2015.2), “블로그(blog)에 나타난 도시공원 미시담론”, 한국조경학회지 제43권 1호, pp.29-39.
- 조희진(2010), “미디어에 나타난 의류 재활용 관련 담론과 사회적 논의 방식”, 실천민속학연구 16, p131.
- 정인하(2006.1), “1950-60년대 한국건축의 기술적 담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2권 1호(207호), p147.

최종덕(2003.9), “경복궁 복원의 의미”, 건축역사학회 제12권 3호 통권 35호, pp.194-202.
공간(SPACE), 1966.10(창간호)~현재.
건축사지, 대한건축사협회, 창간호~현재.
건축가지, 한국건축가협회, 창간호~현재.
건축지, 대한건축학회, 창간호~현재.

(홈페이지)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aurum.re.kr>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홈페이지 <http://www.alio.go.kr>
국가기록원 기록정보 콘텐츠 홈페이지 <http://theme.archives.go.kr>
경향신문 홈페이지 <http://www.khan.co.kr/>
경향신문 블로그 향이네 <http://h2.khan.co.kr/201510030030431>
공간(SPACE) 아카이브 <http://www.space-archive.com>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mmca.go.kr>
네이버뉴스라이브리리 <http://newslibrary.naver.com>
네이버사전 <http://dic.naver.com>
네이버영화 <http://movie.naver.com/movie>
노들섬 공식홈페이지 <http://nodeul.org>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지 <http://society.kisti.re.kr>
대한건축학회 건축지 <http://auric.or.kr>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홈페이지 <http://www.ddp.or.kr>
동아일보 홈페이지 <http://www.donga.com>
매일경제 홈페이지 <http://www.mk.co.kr>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홈페이지 <http://spp.seoul.go.kr>
서울시 서울 정보소통광장 <http://opengov.seoul.go.kr>
세계디자인기구 홈페이지 <http://wdo.org/programmes/wdc/>
영화의 전당 홈페이지 <http://www.dureraum.org>
월간공간지홈페이지 <http://www.vmspace.com>
전곡선사박물관 홈페이지 <http://jgpm.ggcf.kr>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hungsa.go.kr>
조선일보 홈페이지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joongang.joins.com/>
한겨레 홈페이지 <http://www.hani.co.kr/>

(법령)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7972호(2017.3.29., 타법개정)
「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4249호(1994.5.4. 일부개정)

The Social Discourse of the Major Public Buildings in Korea since 1950

SUMMARY

Um, Woon Jin
Lim, Yookyoung
Tchah, Chu Young

Public buildings are buildings that provide public services in society. A wide variety of subjects can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building public buildings and can be largely divided into a construction type and a non-construction type. The construction industry provides services to a certain stage rather than leading the project. The building system consists of experts with expertise in the construction process including the planning, designing and construction of the program, and the non-architectural system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generic term excluding the construction field is there. "Work standards for public sector architectural design" regulates necessary matters in the development process in order to realize the public nature of buildings presented in the "Basic Building Law". Therefore, in this research, I would like to look at discourse focusing on the composition process of public buildings from the standpoint of the construction and non-architectural worlds for major public buildings. By seeing how our public buildings were made, we try to explore the basic direction and promotion policy of the policy to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formation of discourse in the composition process of future public buildings.

In this study, "social discourse" refers to a discourse that is handled in a society where a

building is located, which means "discourse" that is being discussed in the "discourse place." The subject participating in the discourse , It is possible to classify them according to themes, and it is possible to classify them in various ways, such as policy makers, designers, engineers, and so on, in addition to specialists (producers) and general users (users) In this study, the daily life of a building is divided into daily newspapers and specialized journals.

Discourse has historicity and temporality. In the course of building a building, the discourse to the present is continuing. To fully understand one building discourse at the present time , It is necessary that the facts of the discourse at that time be reproduced so that additional discourse formation is possible.

In the case of the West, experts and citizens have developed architectural theory and knowledge system through design openings as public forum places. In Korea, it began with a problem consciousness as to what can be confirmed through public buildings created through design open recruitment.

The framework of the daily paper design has problems such as communication of requirements of citizens opinion, partial equally divided issues, issues etc. Eliminate contradiction between article and design to discuss things

The profession is a design planet, introduction of design achievement and design process, examination process, objective evaluation presentation, value and meaning of design engineering, design team.

At the beginning of the 1960s, the story of a group of experts has been co – ordinated in the general public, but there has been a statement of the architectural group of buildings, but gradually the words of the architectural group began to be treated only by the specialized magazine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main public buildings in the 1950s through daily newspapers and specialist magazines, and there were few cases in which architecture and society were alienated based on the buildings In the post–2000 period, we have also been able to confirm the process by which the architectural community and society have created communities, and the design concept of the architects who create them In the daily newspapers, it was not possible to obtain a large amount, except for a few project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ppropriate information on the composition process in order to form the social statement of public buildings in the following way: In the planning stage, In the case of public buildings, there is a policy consensus in that they are closely linked to policies, and in the case of public works,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design con- It is necessary for the idea to be shared socially through the process of being publicized to the subject who fully utilizes it before the examination process When the examination is completed through the specialist and is disclosed to the user at the time of completion This is because the possibility of change is reduced.

In recent years, it is necessary to share records and evaluations related to the discussion of the composition process of the public buildings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although they may share the business process and results through prescriptions, worksheets, and memoranda.

Secondly, the role of the reporter as the subject for popularizing the professional area in the process of composition of the building, and the citizen as the participant of the beneficiary and the user are very important. , There is a need for the role of specialists with specialized knowledge. In order for discussions to be conducted through sympathy, it is necessary to have the role of a specialist who can communicate specialist fields with the general society .

At the same time,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efforts for the person in charge of the composition of public buildings that can grasp and reflect the general demand, which can not be regarded as policy or institutional equipment, At the same time, as a benefit to receive government services in existing public buildings, public buildings from the viewpoint of citizens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the composition process The role of citizens participating in the composition process of objects is also required at the same time.

Only the daily newspapers and magazines are complicated to grasp the current architectural rhetoric, and have been extended to horses and images, not to the sentence system, and it is impossible to accurately describe the present age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interpretation at any time through other materials, and the interpretation of this research has been variously applied to a variety of materials The possibility of future public construction is presented by the continuous expansion of the discourse, which further enhances the discourse of public buildings.

For that purpose, research on additional data and media is necessary for future daily newspapers and expert magazine materials such as SNS, living place etc. As well as studies on decision making on public buildings made in the design openings, media discourse research is a part to be advanced in the future.

Keywords :

Public architecture, social discourse, experts and public, discourse on architectural media

의미연결망 분석¹⁾

1. 분석개요

2. 분석결과

1. 분석개요

의미연결망 분석은 구조나 연결망 형태의 특징을 도출하고, 관계성으로 체계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다.²⁾

□ 자료수집

기사의 수집은 웹크롤링(web crawling)방식으로 신문기사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2000년대 이전자료는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고, 2000년대 이후자료는 각 언론사 홈페이지를 활용하였다.

□ 자료분석

네트워크 분석의 시각화 프로그램은 게피(Gephi)를 이용하였다.

1) 일간지 기사의 주관적인 분석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 공공건축물의 기사를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키워드간의 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방식은 연결망의 정도 등을 조작함으로서 예상되는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였던 일간지, 전문지 기사만으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에는 고려하여야 할 변수들(적정한 분석을 위한 충분한 기사수의 확보 등의 문제 등이 있음-KBS청사의 경우 12건, 한국증권거래소 6건, 국립대구박물관 11건, 백남준미술관 23건)이 많아서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2) 김용학(2007), 「사회 연결망 분석」, 박영사, p.2.

2. 분석결과

1) 정부종합청사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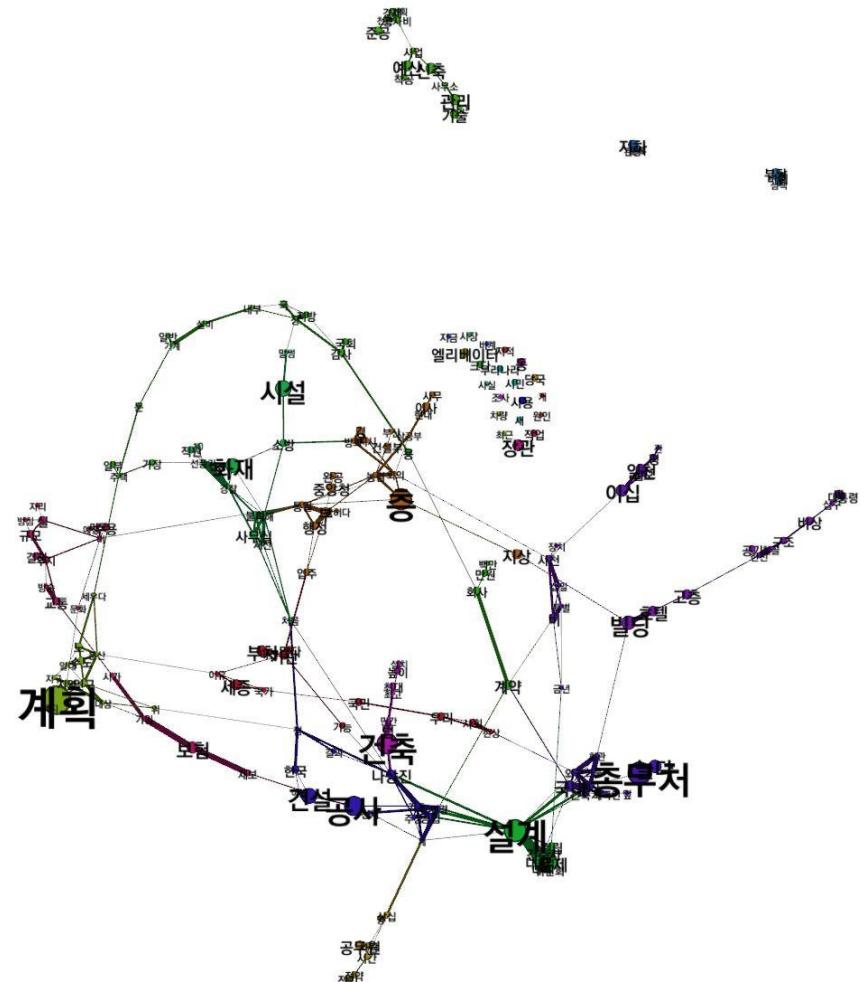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정부종합청사, 정부서울청사
- 기간 : 1950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8,606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191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208개 문단에서 44,322개의 형태소 분석
- 계획, 설계, 건축, 공사, 신축 등 조성과 관련한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
- 조성과정에서 주요 사건이었던 화재, 예산, 계약 등의 단어도 다수 사용
- 기타 ‘고층건물’이라는 특징을 부여하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50순위
계획,,268	늘다,,98	호텔,,68	나상진,,58	중앙청,,49
총무처,,204	이십,,88	일천,,67	엘리베이터,,57	교통,,48
설계,,199	보험,,84	문제,,66	기술,,56	동,,48
총,,185	장관,,81	기관,,65	대한,,52	한국,,46
건축,,181	국내,,77	부,,65	준공,,52	우리,,46
공사,,168	관리,,75	지하,,64	법,,52	실,,45
시설,,131	신축,,74	지상,,64	비상,,51	수용,,45
건설,,126	세종,,73	고층,,64	비,,51	건축사,,44
화재,,113	부처,,73	공무원,,60	행정,,50	규모,,44
빌딩,,108	예산,,70	계약,,59	사무실,,49	수도,,44

□ 텍스트 관계망 분석



2) 국회의사당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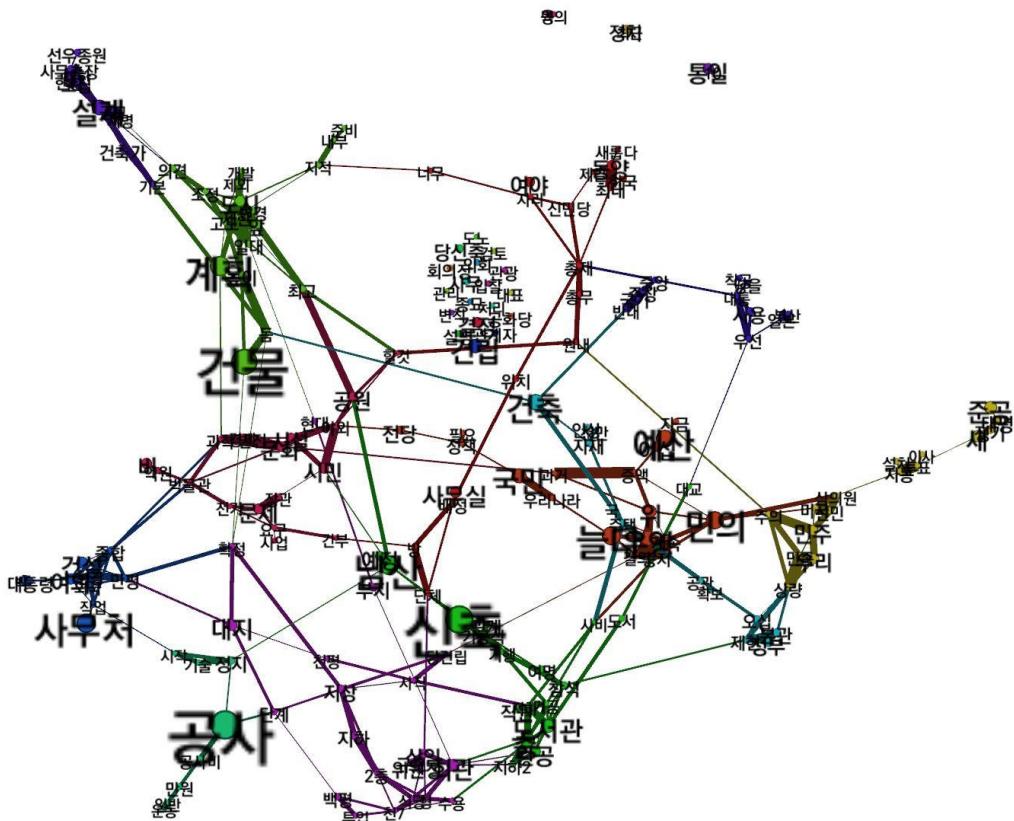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국회의사당
- 기간 : 1950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7,720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203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196개 문단에서 39,482개의 형태소 분석
- 계획, 설계, 건축, 공사, 신축 등 조성과 관련한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
- 조성과정에서 주요 사건이었던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남산, 공원, 여의도 등 관련 단어와 예산, 비용 관련 단어가 다수 도출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50순위
공사,,217	설계,,101	건설,,70	민주,,57	정부,,48
신축,,208	운영,,97	대지,,68	이십,,56	상임,,46
건물,,190	총,,94	사무실,,66	결정,,56	전당,,43
계획,,138	국민,,94	통일,,64	여야,,56	태평,,42
남산,,134	건립,,89	여의,,64	시민,,55	지상,,41
사무처,,132	도서관,,81	비,,62	우리,,54	위원장,,41
늘다,,127	준공,,79	도시,,61	동양,,54	부지,,41
민의,,121	위,,76	완공,,60	공원,,53	정치,,40
예산,,120	회관,,73	문제,,60	시설,,52	당신축,,40
건축,,106	새,,72	문화,,57	예정,,50	본관,,39

□ 텍스트 관계망 분석



3) KBS청사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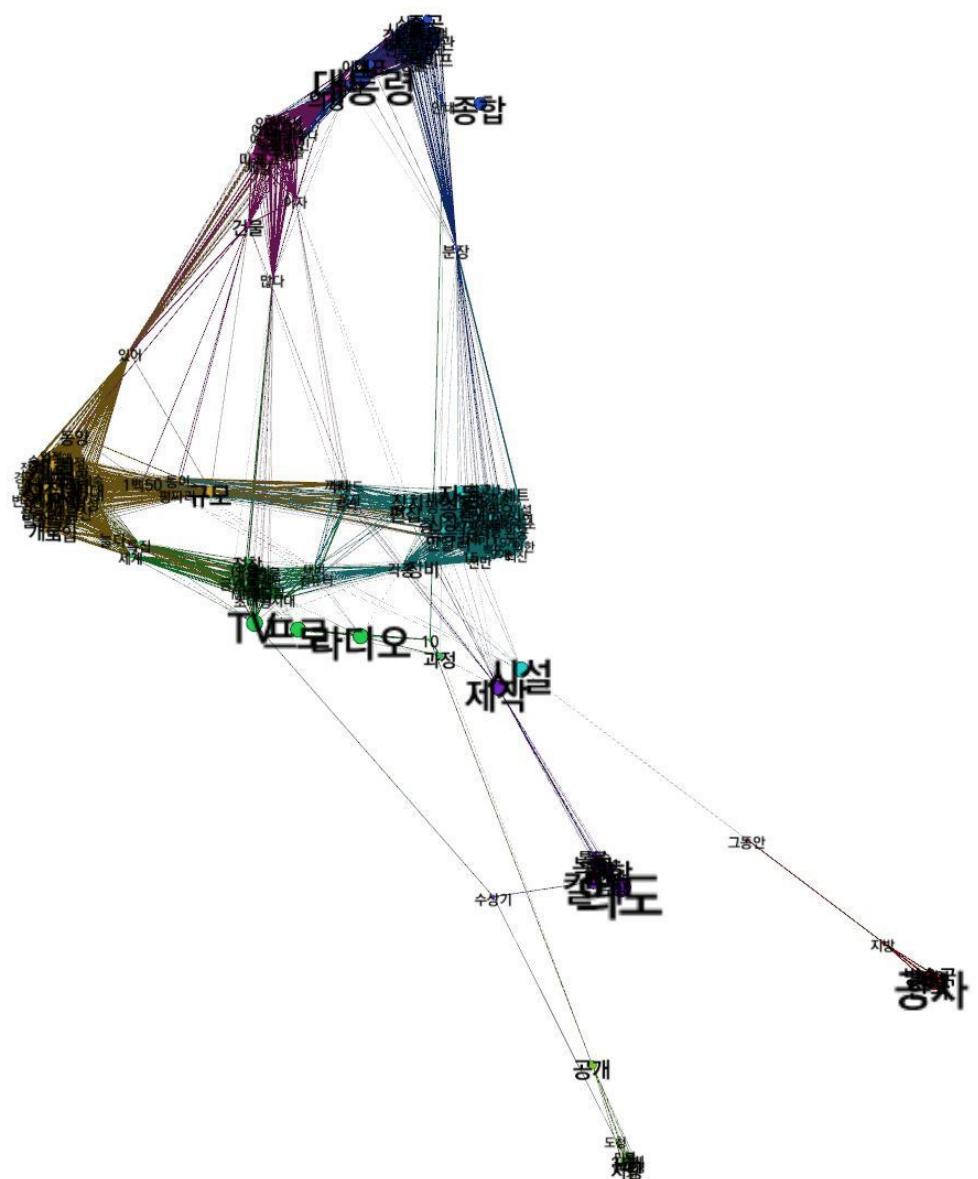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KBS청사
- 기간 : 1950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203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12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12개 문단에서 2,434개의 형태소 분석
- 계획, 공사, 준공 등 조성과 관련한 단어가 일부 포함
- 건축물 자체에 대해 보도하는 기사보다는 신기술 도입 관련 내용과 시설 일부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대표하는 단어가 대부분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50순위
의도,,21	기재,,13	공개,,8	의사,,6	만달러,,5
공사,,18	계획,,11	송출,,7	도입,,6	동양,,5
TV,,17	견학,,11	대표,,7	편집,,6	녹음,,5
대통령,,17	규모,,10	개국,,7	비대,,6	노래,,5
시설,,16	한국,,10	방송국,,7	건물,,6	통로,,5
프로,,16	시청,,10	자랑,,6	출력,,6	총,,5
라디오,,16	자동,,10	사업,,6	시작,,5	국회,,5
제작,,15	녹화,,9	과정,,6	수입,,5	정책,,5
컬러,,15	의장,,8	장비,,6	테이프,,5	현관,,5
종합,,13	준공,,8	장치,,6	체제,,5	발전,,5

□ 텍스트 관계망 분석



4) 세종문화회관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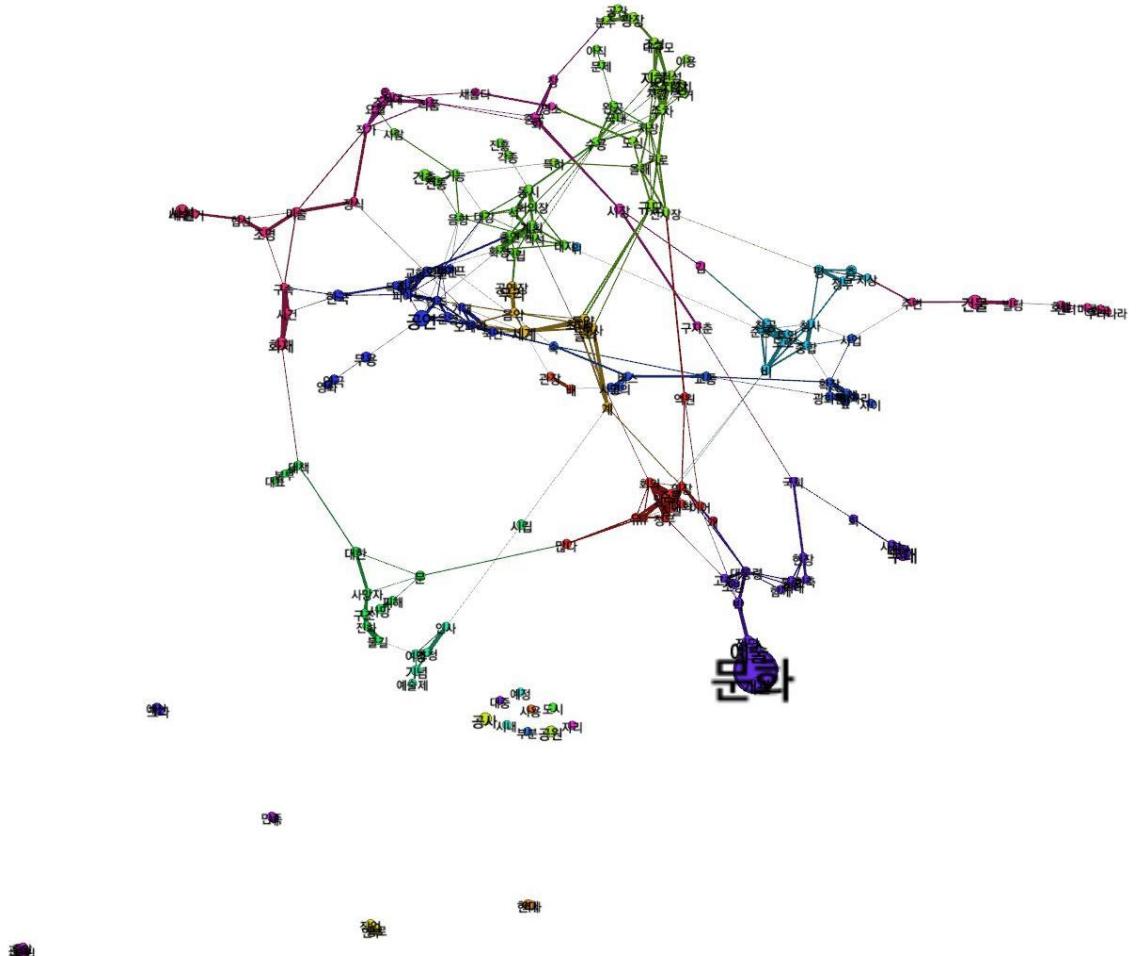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서울시민회관, 세종문화회관
- 기간 : 1950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26,724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140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140개 문단에서 38,475개의 형태소 분석
- 개관, 공사, 건설 등 조성과 관련한 단어가 상위권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 관련 단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세종문화회관 건립 동기가 되었던 서울시민회관 화재 관련 단어와 세계, 대형, 기념, 전통 등 세계적인 문화 건축물로서의 위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50순위
문화,,679	화재,,95	최대,,66	비,,52	현대,,46
예술,,266	공사,,90	늘다,,62	조명,,51	문,,46
공연,,156	규모,,86	국립,,60	계획,,51	건설,,45
무대,,152	전당,,82	무용,,58	층,,50	대한,,44
개관,,128	건축,,78	주차,,57	전통,,48	계,,42
건물,,121	세계,,77	대형,,56	극장,,48	시립,,40
지하,,108	한국,,70	기념,,55	소방,,48	작업,,40
시설,,108	공원,,70	크다,,54	동양,,47	사망,,39
주차장,,102	병원,,67	박,,53	작품,,47	연극,,39
우리,,101	광장,,67	시장,,52	국제,,46	평,,38

□ 텍스트 관계망 분석



5) 한국증권거래소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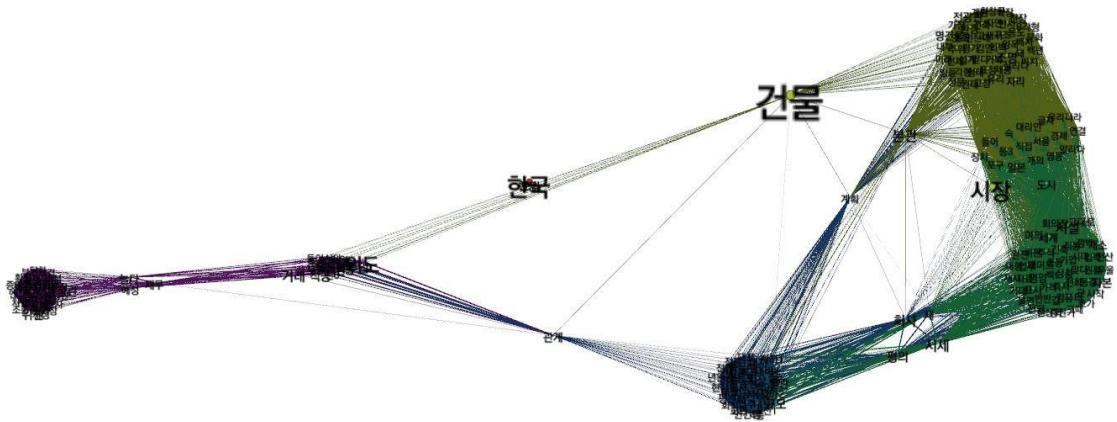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한국증권거래소
- 기간 : 1950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6,180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6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6개 문단에서 1,557개의 형태소 분석
- 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단어는 극히 일부 포함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48순위
건물,,43	신축,,9	자본,,6	금재무부,,4	지하2,,4
한국,,26	위원,,8	별관,,5	명건물,,4	기공,,4
시장,,24	조명,,7	새,,5	재무,,4	일본,,4
의도,,19	규모,,7	개소,,5	환경,,4	외벽,,4
종,,13	장관,,7	세계,,5	현상,,4	재무부,,4
시세,,10	투입,,7	늘다,,5	대비,,4	대지,,4
시설,,10	평의,,7	전광판,,5	명암,,4	여의,,4
본관,,10	착공,,7	기관,,5	평,,4	지상,,4
거래,,9	차관,,6	도시,,5	자리,,4	
회사,,9	위촉,,6	관계,,5	모집,,4	

□ 텍스트 관계망 분석



6) 독립기념관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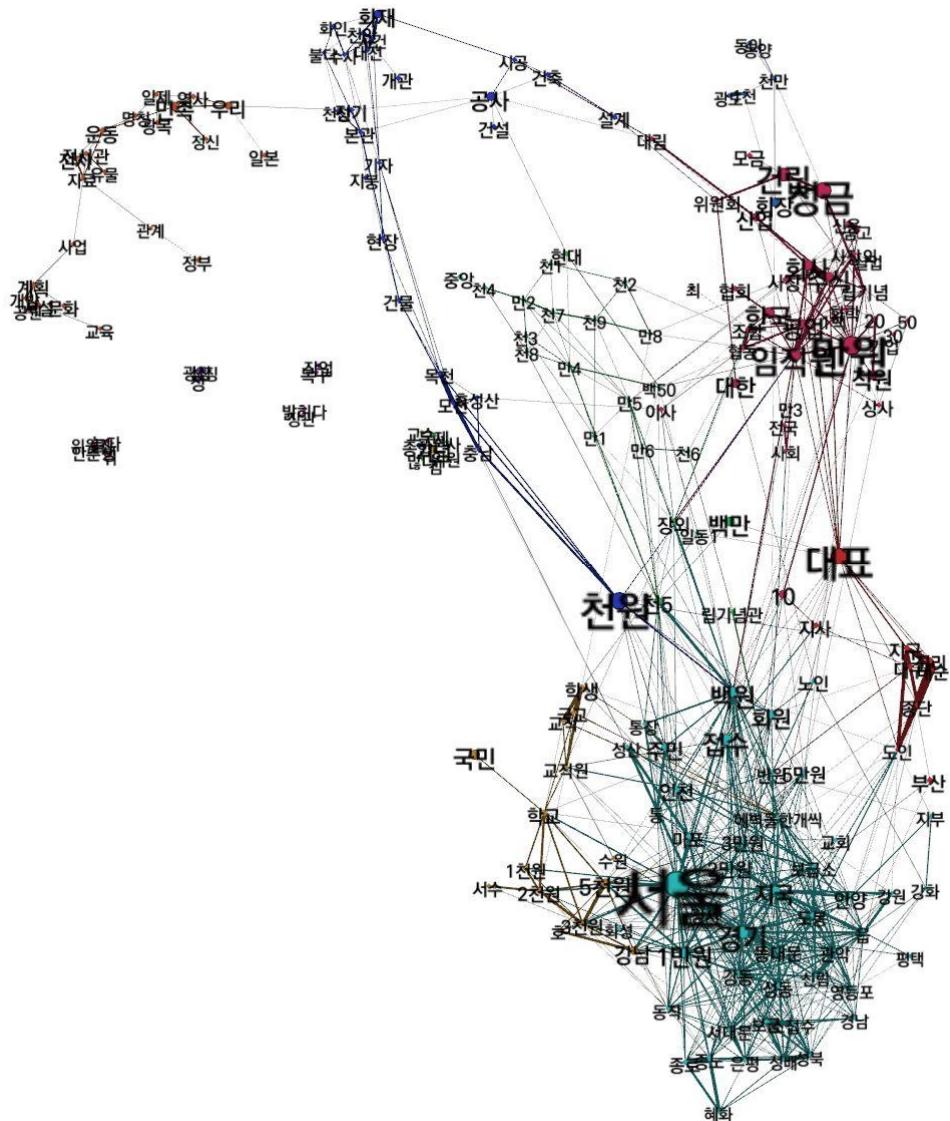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독립기념관
- 기간 : 1950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3,777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775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775개 문단에서 260,649개의 형태소 분석
- 건립, 계획, 설계, 건축 등 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단어가 다수 있으나 상위 50권 내에는 건립이라는 단어만 포함
- 조성 당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화재와 역사적 의미 관련 단어, 그리고 모금과 관련한 단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50순위
서울,,3029	회사,,878	대한,,666	대한,,666	주민,,501
만원,,2012	백원,,857	회원,,649	회원,,649	천5,,490
천원,,1769	주식,,781	공사,,634	공사,,634	우리,,481
대표,,1732	1만원,,760	5천원,,618	5천원,,618	운동,,396
성금,,1658	국민,,739	회장,,614	회장,,614	부산,,393
임직원,,1317	공업,,731	10,,561	10,,561	인천,,384
건립,,1254	백만,,722	화재,,555	화재,,555	전시,,381
경기,,1075	직원,,695	산업,,538	산업,,538	학생,,374
한국,,950	민족,,675	강남,,520	강남,,520	학교,,350
접수,,930	지국,,673	기념,,510	기념,,510	지구,,347

□ 텍스트 관계망 분석



7) 국립대구박물관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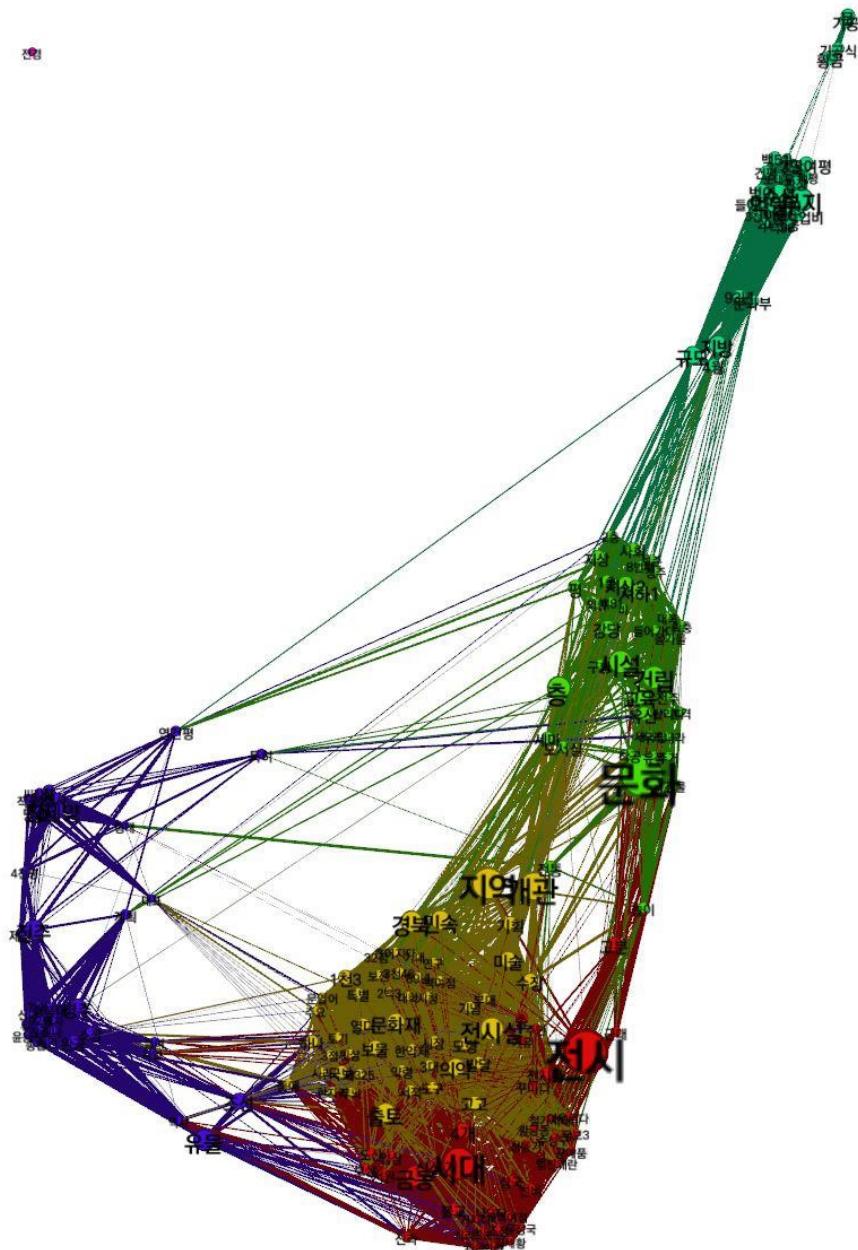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국립대구박물관
- 기간 : 1950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386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11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11개 문단에서 1,751개의 형태소 분석
- 설계, 개관, 건립, 공모, 기획 등 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
- 박물관의 규모와 전시되는 역사적 유물과 관련한 단어가 대부분을 차지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50순위
문화,,21	건립,,10	규모,,7	중앙,,6	신석기,,5
전시,,21	유물,,9	의약,,7	조선,,6	유산,,5
지역,,15	경북,,9	수성,,7	경주,,6	강당,,5
시대,,15	금동,,9	지방,,7	고고,,5	기획,,5
설계,,13	억원,,9	교육,,7	공원,,5	1천3,,5
개관,,13	민속,,8	문화재,,7	수장,,5	문,,5
부지,,10	장세양,,8	지하1,,6	황금,,5	한국,,5
전시실,,10	출토,,8	미술,,6	고분,,5	범어,,5
시설,,10	진주,,8	지상2,,6	기공,,5	평,,5
총,,10	공모,,7	4개,,6	보물,,5	3만여평,,5

□ 텍스트 관계망 분석



8) 전쟁기념관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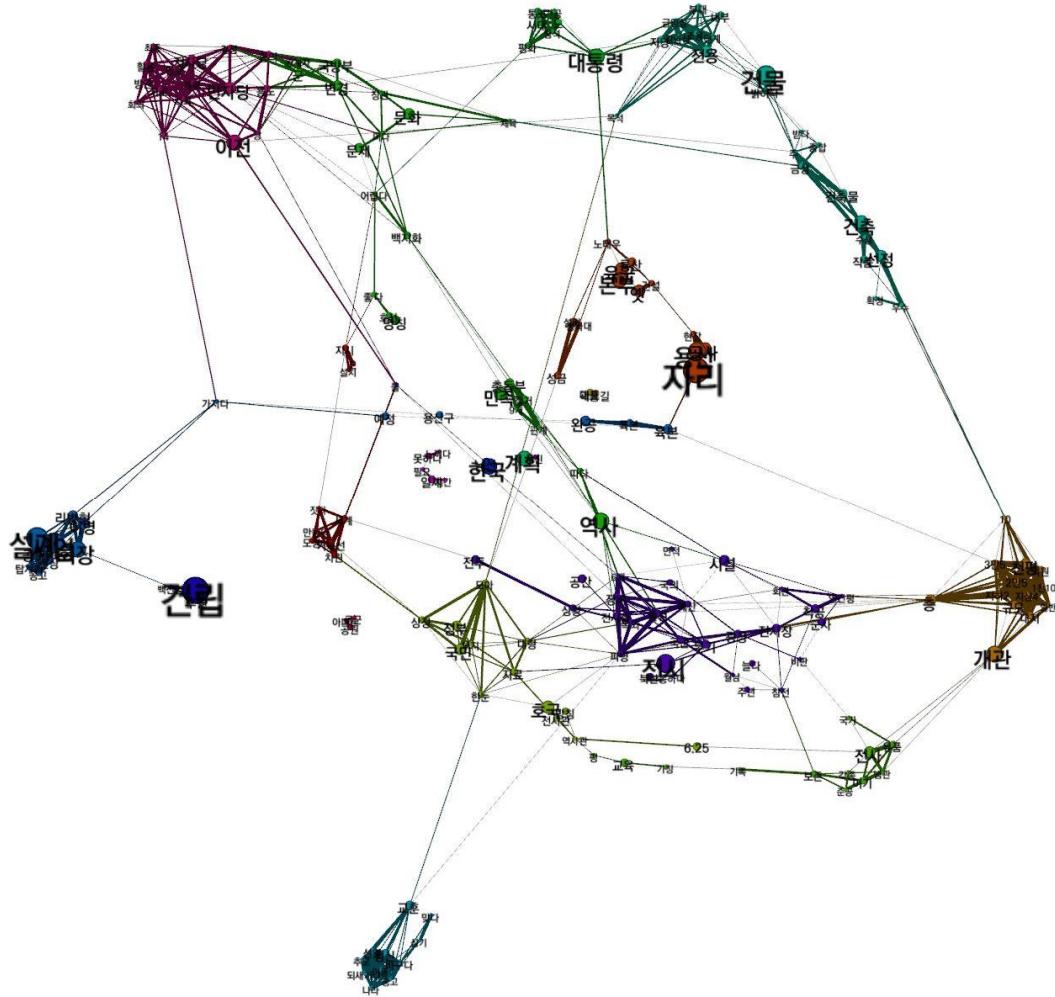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전쟁기념관
- 기간 : 1950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1,271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60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60개 문단에서 8,093개의 형태소 분석
- 건립, 계획, 공모, 설계, 변경, 공사, 착공, 완공, 개관 등 건축물 조성의 단계를 대표하는 대부분의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
- 기타 전쟁기념과의 규모와 전시되는 내용과 관련한 단어수가 대다수를 차지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53순위
건립,,54	대통령,,30	옛,,21	총,,18	국방부,,14
자리,,52	한국,,30	민자당,,21	완공,,17	교훈,,13
설계,,43	이전,,29	선정,,20	변경,,16	룡산,,13
건물,,39	본부,,29	전용,,20	리병형,,15	전시장,,13
사업,,38	계획,,28	문화,,19	탑,,15	남산,,13
전시,,36	건축,,25	이병,,19	문제,,15	착공,,13
용산,,33	육군,,24	전사,,19	명칭,,15	규모,,13
개관,,31	민족,,23	천평,,19	정부,,15	후원,,13
역사,,31	호국,,22	시설,,18	육본,,15	무기,,13
회장,,30	공사,,21	국민,,18	공모,,15	전투,,13
			건축물,,13	군,,13
			총독부,,13	

□ 텍스트 관계망 분석



9) 정부대전청사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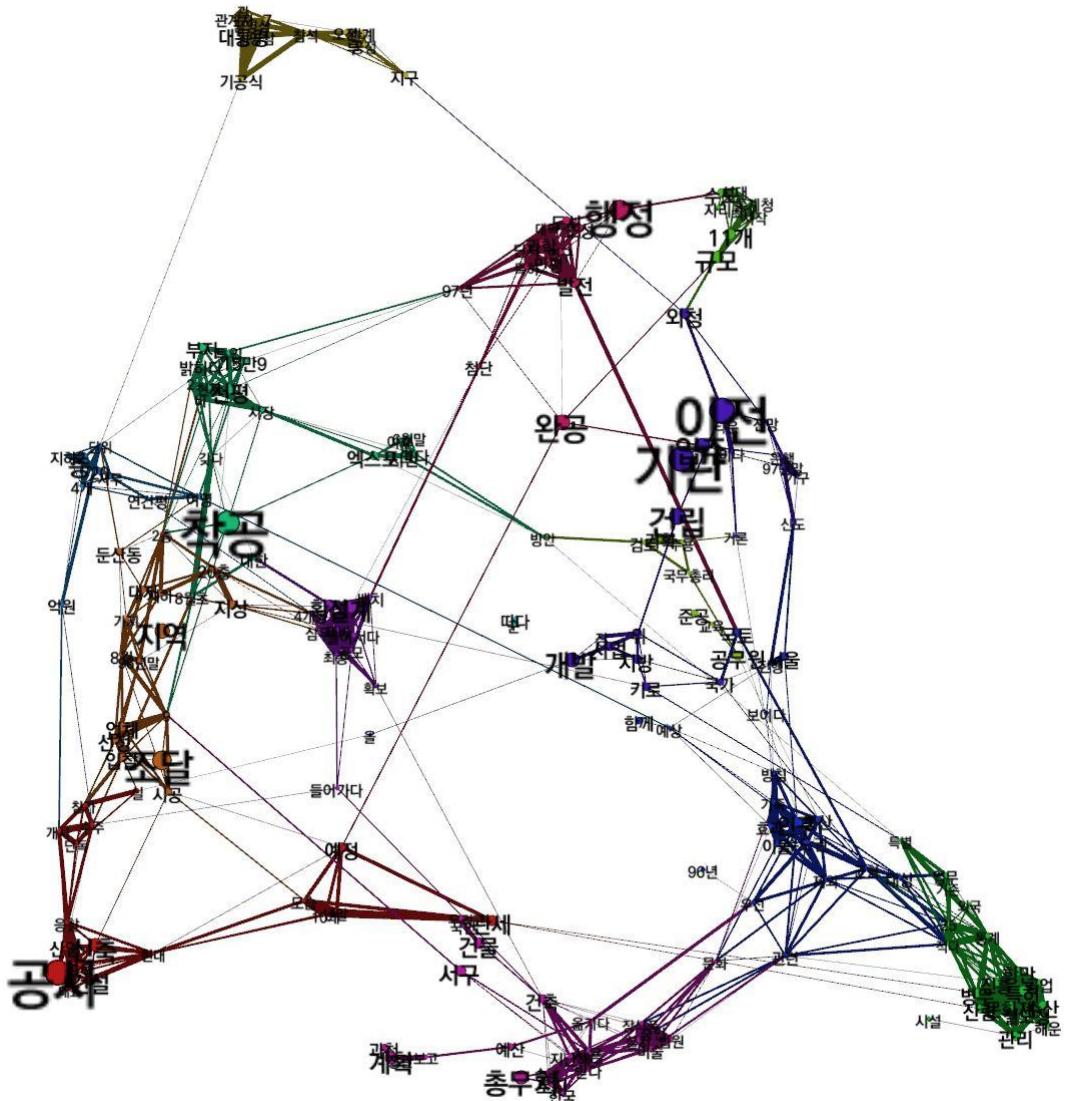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정부제3청사, 정부대전청사
- 기간 : 1950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1,497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65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65개 문단에서 11,155개의 형태소 분석
- 공사, 착공, 건립, 계획, 설계, 건설, 건축 등 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52순위
이전,,97	개발,,49	관세,,33	특허,,26	문화재,,24
공사,,96	총무처,,46	11개,,33	사업,,26	건축,,24
기관,,95	신축,,44	인구,,31	항만,,25	국토,,23
착공,,91	층,,41	천평,,31	대통령,,25	수도,,23
행정,,72	계획,,39	외청,,30	병무,,25	입찰,,23
조달,,69	설계,,38	확정,,30	지방,,25	서울,,23
건립,,57	규모,,38	관리,,28	산림,,25	선정,,23
완공,,52	건설,,35	발전,,28	자상,,25	업체,,23
입주,,51	건물,,34	공무원,,27	예정,,24	진흥,,22
지역,,51	서구,,34	수산,,26	엑스포,,24	철도청,,21
				키로,,21
				부지,,21

□ 텍스트 관계망 분석



10) 국립중앙박물관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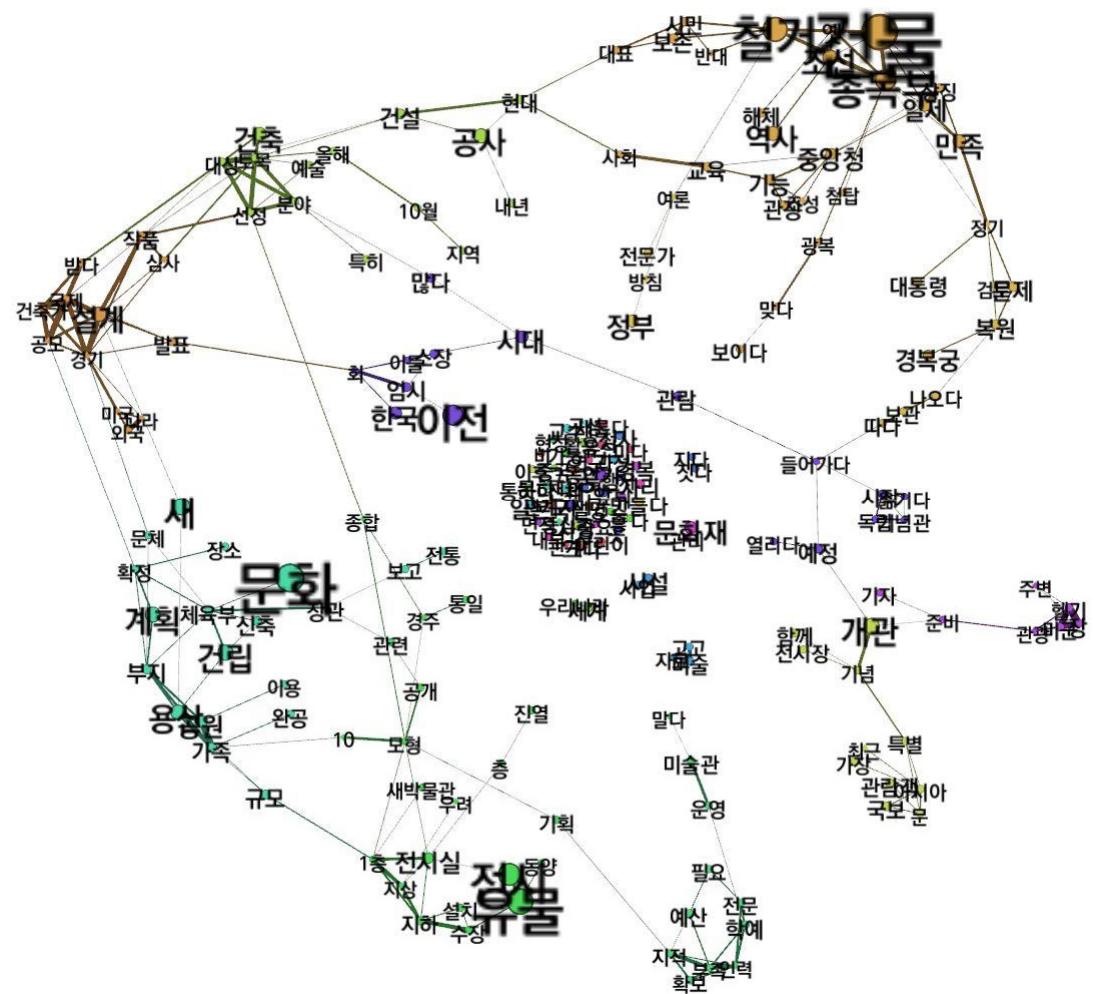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국립중앙박물관
- 기간 : 1950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9,642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306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306개 문단에서 87,170개의 형태소 분석
- 철거, 이전, 계획, 개관, 건립, 계획, 설계, 공사, 건축 등 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
-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 됐었던 조선총독부 철거와 이전 등의 문제를 대표하는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50순위
건물,,826	계획,,272	정부,,196	문제,,136	규모,,111
문화,,623	조선,,263	시대,,191	기능,,134	신축,,111
유물,,563	용산,,262	공간,,182	건설,,131	관람,,109
철거,,522	설계,,253	공원,,172	옛,,125	임시,,108
전시,,461	공사,,252	일제,,165	보존,,122	자리,,107
총독부,,417	역사,,244	중앙청,,159	일본,,122	학예,,103
이전,,413	건축,,224	전시실,,153	복원,,119	장,,103
새,,330	민족,,219	시설,,146	가족,,116	청사,,102
개관,,285	한국,,199	경복궁,,143	예정,,113	관장,,102
건립,,280	문화재,,197	국민,,138	부지,,111	교육,,102

□ 텍스트 관계망 분석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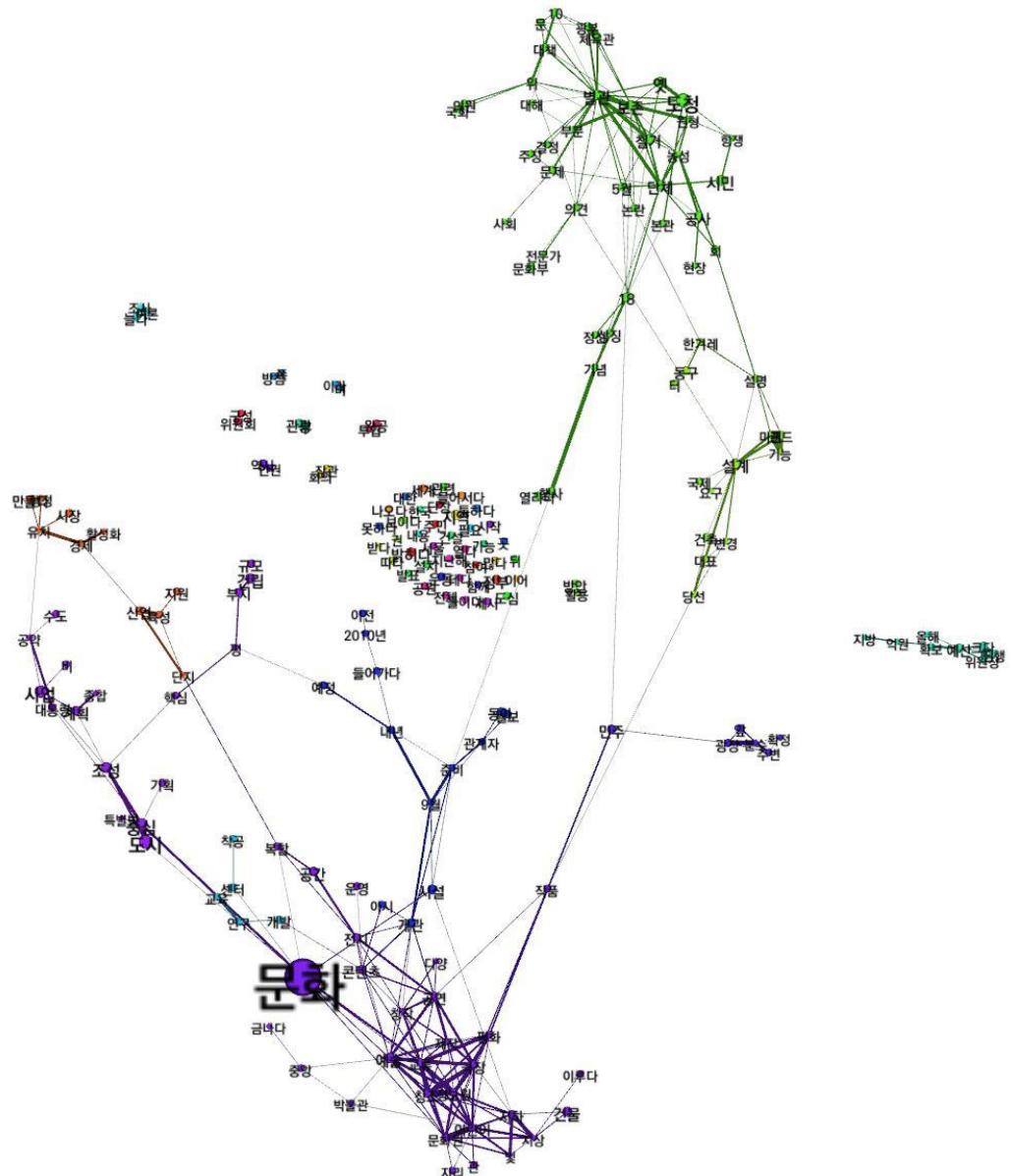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아시아문화전당
- 기간 : 2000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1,2562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301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331개 문단에서 96,347개의 형태소 분석
- 조성, 건립, 설계, 계획, 철거, 개관, 공사 등 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
- 건립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구청사의 철거와 예산문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능과 관련한 내용을 암시하는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50순위
문화,,3129	예술,,346	공간,,257	지하,,186	전시,,156
도청,,734	보존,,343	18,,242	부,,175	만들다,,153
도시,,716	건립,,342	정부,,241	시장,,172	어린이,,151
사업,,565	지역,,337	개관,,236	규모,,171	교류,,151
중심,,518	설계,,328	콘텐츠,,234	위,,165	운동,,150
옛,,450	시설,,291	민주,,233	동구,,164	문제,,150
조성,,420	계획,,280	공사,,219	개발,,162	도심,,147
시민,,396	단체,,278	예산,,216	공연,,162	창조,,146
별관,,392	철거,,273	관광,,202	5월,,159	늘다,,137
건물,,365	밝히다,,266	산업,,192	극장,,158	지원,,137

□ 텍스트 관계망 분석



12) 백남준미술관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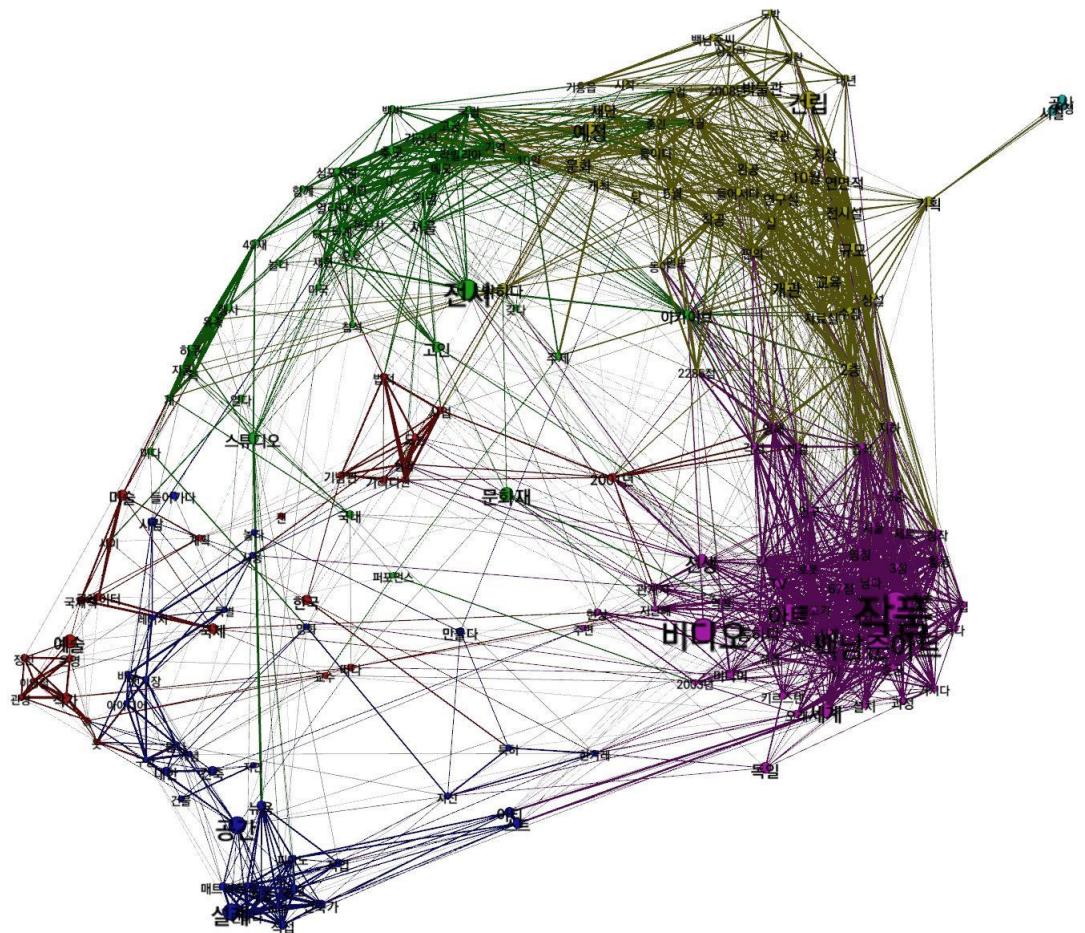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백남준미술관
- 기간 : 2001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492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23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23개 문단에서 5,940개의 형태소 분석
- 건립, 설계, 개관, 공사, 기획, 건축, 착공 등 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
- 주로 백남준 작가의 작품과 일대기를 소개하는 내용과 관련한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51순위
작품,,74	예술,,24	밝히다,,16	작가,,14	대한,,12
비디오,,53	선생,,23	규모,,16	연면적,,14	2층,,12
백남준아트,,46	문화재,,23	서울,,16	기획,,14	직접,,12
전시,,43	개관,,20	한국,,15	뉴욕,,13	TV,,12
아트,,35	독일,,18	아티스트,,15	교육,,13	사람,,12
건립,,35	스튜디오,,17	국제,,15	10월,,13	전시실,,11
공간,,35	통하다,,17	재단,,14	기념,,13	건축가,,11
설계,,33	미술,,17	문화,,14	시설,,13	착공,,11
세계,,26	고인,,16	공사,,14	자상,,13	2001년,,11
예정,,26	박물관,,16	아카이브,,14	건축,,13	공모,,11
				추모,,11

□ 텍스트 관계망 분석



13) 한강예술섬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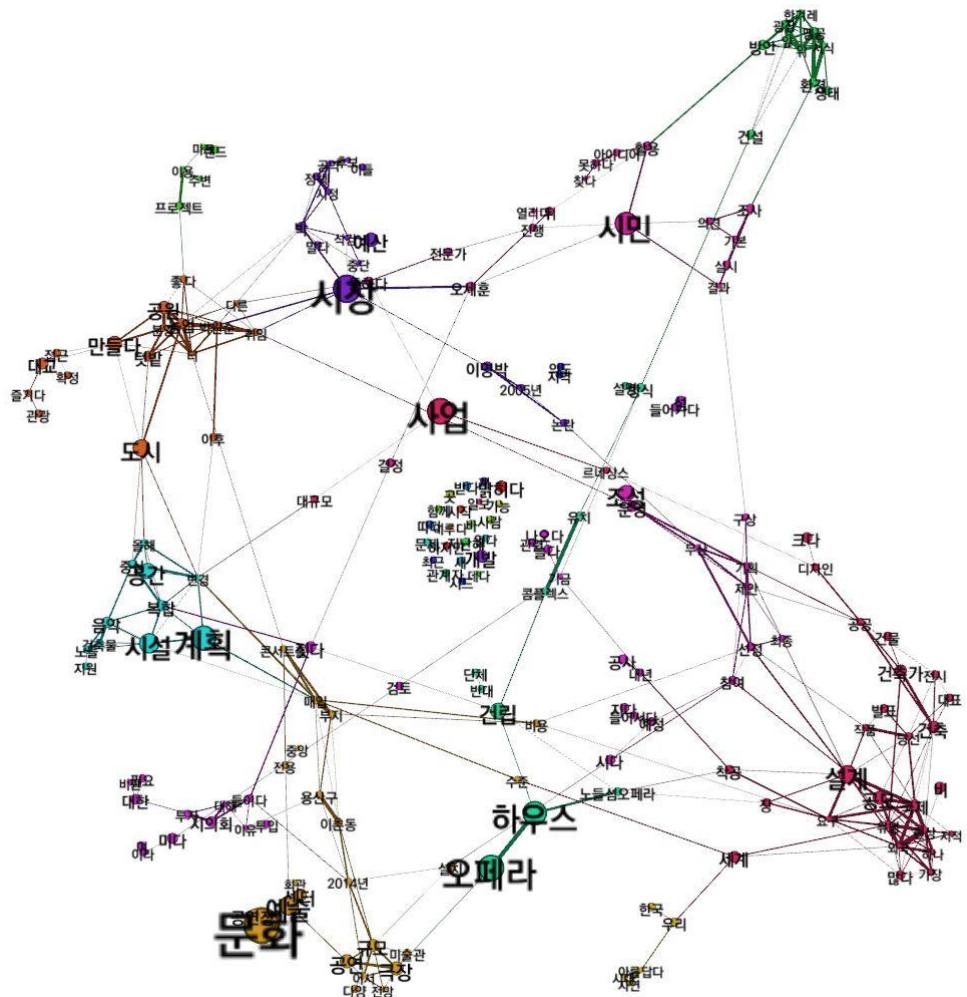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노들섬, 한강예술섬
- 기간 : 200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287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119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119개 문단에서 38,553개의 형태소 분석
- 계획, 설계, 건립, 공모, 건축 등 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단어가 일부 상위권에 포함
- 한강예술섬의 기능과 관련한 오페라, 하우스, 텃밭 등의 단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업으로 시장, 오세훈 등의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52순위
문화,,421	도시,,162	센터,,101	음악,,78	대한,,68
시장,,308	조성,,153	개발,,100	운영,,78	방안,,67
사업,,287	건립,,145	규모,,95	공연장,,77	이명박,,67
오페라,,284	공간,,144	건축,,92	텃밭,,76	시다,,65
계획,,268	만들다,,124	대교,,89	미다,,75	농업,,64
하우스,,256	예산,,121	건축가,,87	복합,,75	공사,,64
시민,,242	공연,,116	밝히다,,86	국제,,73	환경,,61
시설,,201	극장,,115	세계,,84	시의회,,71	박,,60
예술,,193	공모,,112	짓다,,82	섬,,70	건설,,57
설계,,178	공원,,106	비,,81	크다,,70	오세훈,,56
			많다,,56	
			늘다,,56	

□ 텍스트 관계망 분석



14) 서울시청사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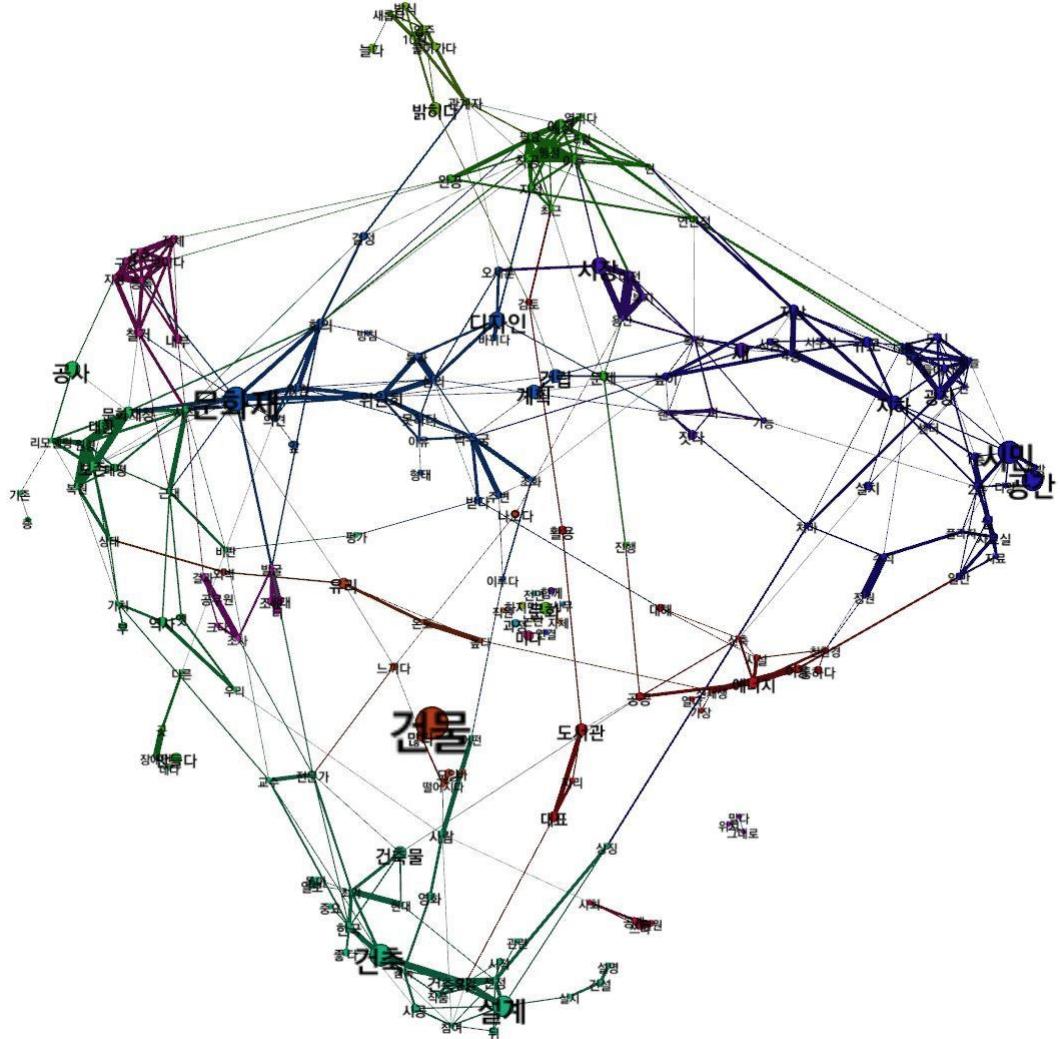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서울시청사
- 기간 : 2000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563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141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144개 문단에서 42,847개의 형태소 분석
- 건축, 설계, 디자인, 공사, 계획, 건립, 철거, 착공, 완공, 시공 등 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 특히 ‘디자인’, ‘에너지’ 등 건축물의 질과 관련된 단어수가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임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52순위
건물,,399	계획,,137	건축가,,93	역사,,76	회의,,63
문화재,,280	지하,,137	유리,,92	대한,,75	늘다,,63
시민,,258	건립,,126	보존,,91	문화재청,,75	사람,,62
건축,,250	건축물,,118	규모,,90	짓다,,72	완공,,62
공간,,235	문화,,114	대표,,87	실,,70	활용,,62
설계,,234	도서관,,113	만들다,,85	문제,,70	시공,,59
시장,,173	광장,,109	예정,,81	한국,,69	설치,,59
디자인,,161	밝히다,,107	미다,,81	철거,,66	공공,,58
공사,,157	위원회,,95	지상,,79	내부,,65	4종,,55
새,,139	에너지,,93	많다,,79	착공,,64	위원,,55
				이용,,55
				과정,,55

□ 텍스트 관계망 분석



15)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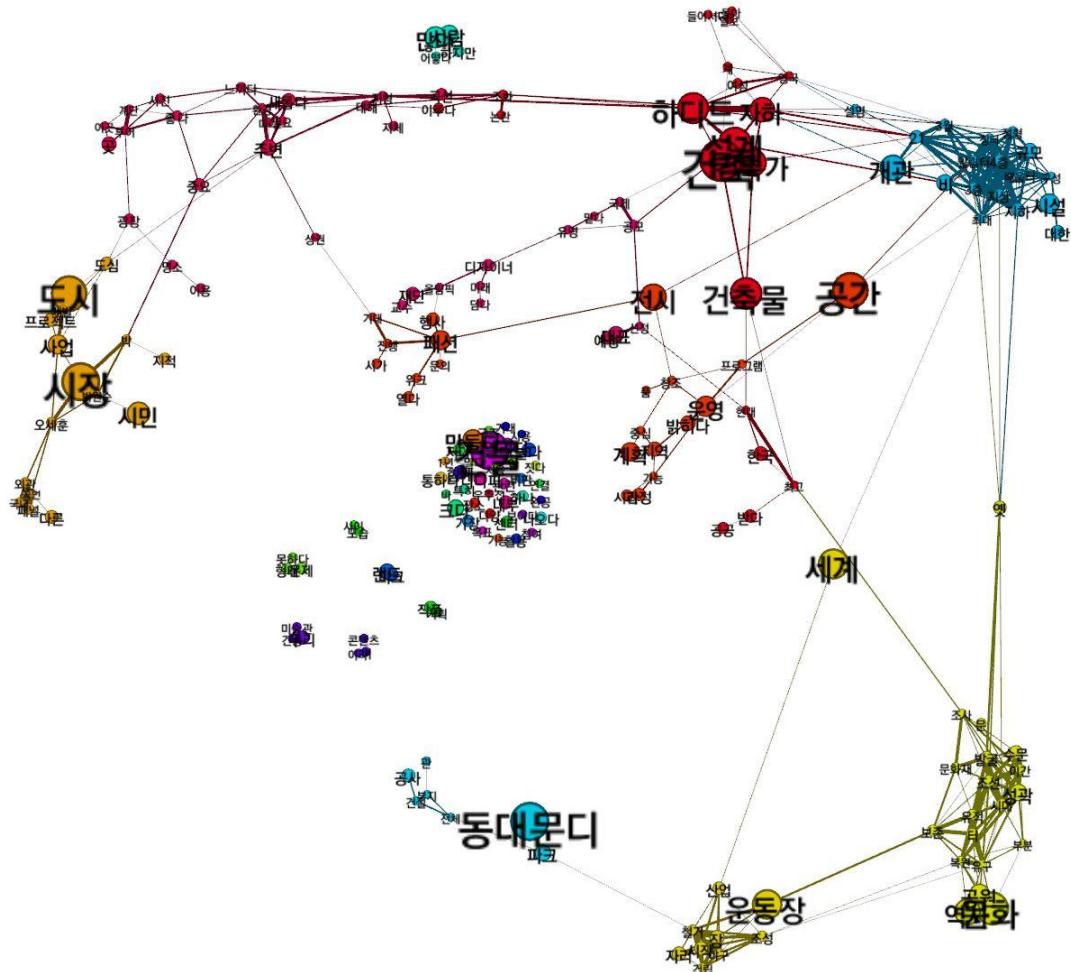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 기간 : 2007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2,451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140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140개 문단에서 54,484개의 형태소 분석
- 건축, 설계, 개관, 계획 등 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건축가인 자하 하디드, 프로젝트 등 건축물의 설계과정과 관련성이 높은 단어가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적임
- 입지와 관련하여 동대문지역의 역사성과 산업 등을 대표하는 단어가 다수 상위권에 포함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51순위
건축,,285	운동장,,192	공원,,122	대표,,89	늘다,,76
건물,,256	건축가,,176	시설,,120	열리다,,89	자리,,75
시장,,253	전시,,169	사업,,117	주변,,89	함께,,72
공간,,238	역사,,166	패션,,116	랜드,,88	우리,,72
도시,,237	개관,,164	사람,,114	밝히다,,82	재단,,72
설계,,221	자하,,155	계획,,111	지역,,80	과정,,72
문화,,217	시민,,142	성곽,,97	장,,79	대한,,71
건축물,,207	많다,,131	비,,95	규모,,79	프로젝트,,71
하디드,,203	운영,,125	크다,,94	곳,,79	시작,,71
세계,,196	만들다,,123	파크,,93	한국,,76	내부,,71
			새롭다,,71	

□ 텍스트 관계망 분석



16) 전곡선사박물관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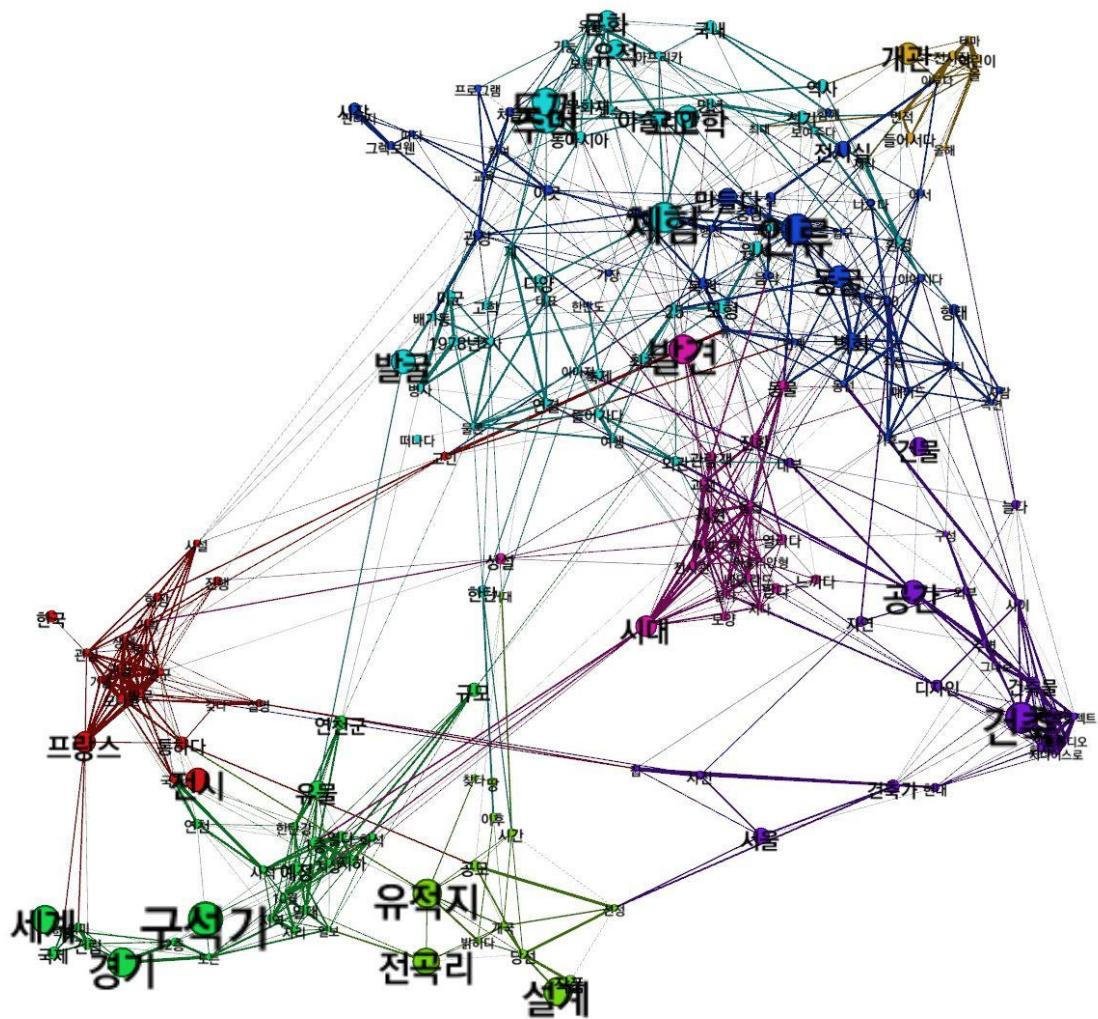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전곡선사박물관
- 기간 : 200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129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25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25개 문단에서 9,499개의 형태소 분석
- 건축, 설계, 개관, 건립 등 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단어가 상위권에 일부 포함
- 전곡선사박물관의 컨텐츠와 관련한 단어가 다수를 차지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52순위
구석기,,65	주먹,,51	유적,,34	연천군,,22	국제,,19
인류,,58	전곡리,,49	문화,,33	모형,,21	작품,,19
건축,,58	발굴,,44	만들다,,32	건축가,,21	석기,,18
체험,,57	전시,,43	건물,,32	예정,,21	한국,,18
발견,,54	공간,,43	유물,,30	원시,,21	다양,,18
경기,,54	고고학,,41	아슐리안,,29	건축물,,21	동물,,17
설계,,53	개관,,39	서울,,27	국내,,20	디자인,,17
유적지,,53	동굴,,39	전시실,,26	통하다,,20	재현,,17
세계,,52	프랑스,,37	벽화,,25	시작,,19	진화,,17
도끼,,52	시대,,37	규모,,22	역사,,19	25,,17
				한탄,,17
				건립,,17

□ 텍스트 관계망 분석



17) 부산영상센터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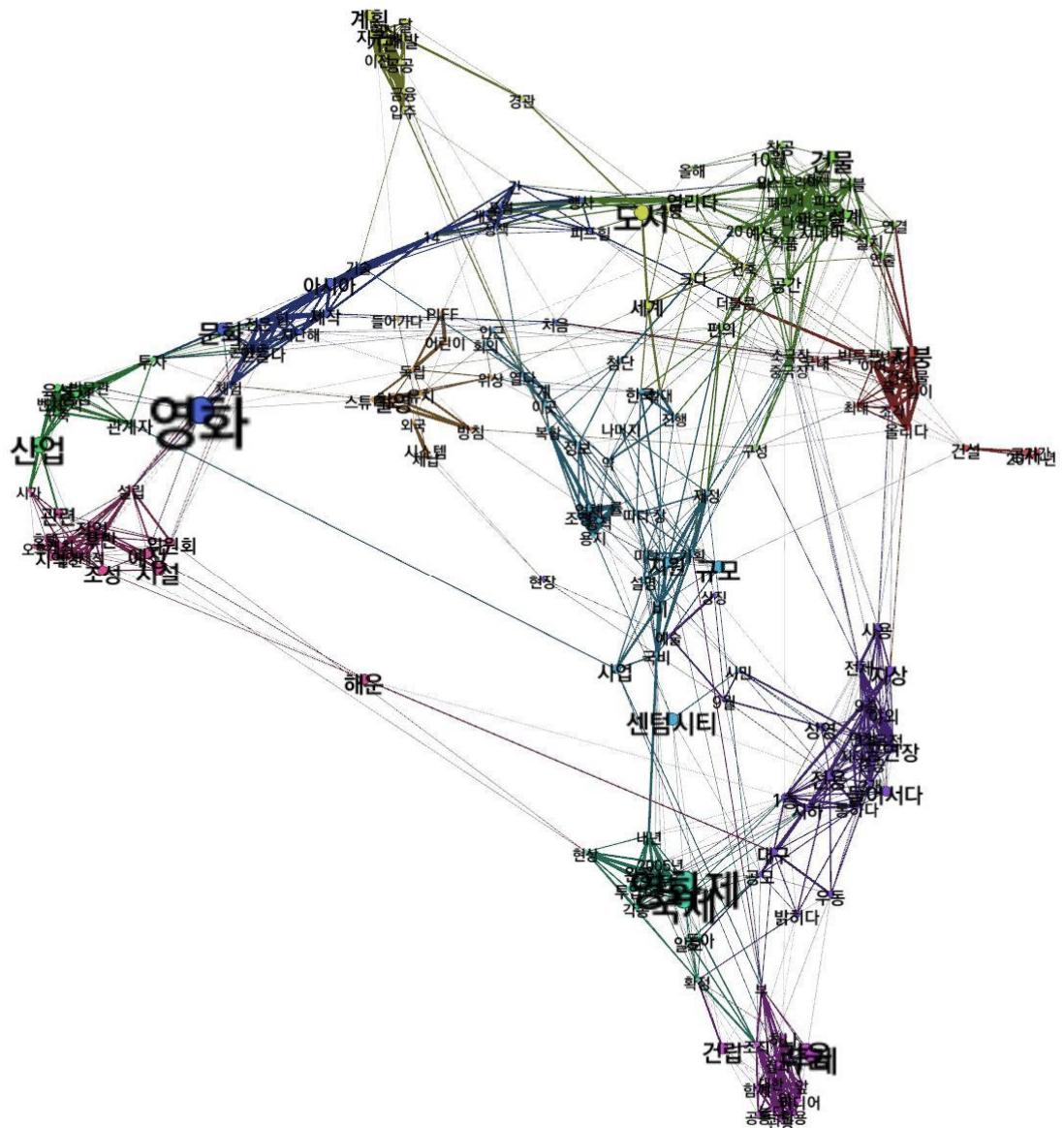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부산영상센터
- 기간 : 2000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77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22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22개 문단에서 6,422개의 형태소 분석
- 건립, 계획, 설계 등 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단어는 소수
- 부산영상센터로 인해 기대되는 영화계 산업발전과 부산영상센터가 입지하는 센텀시티 등 해운대 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단어가 상위권에 다수 포함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49순위
영화,,88	시설,,32	지원,,22	세계,,17	지하,,14
영화제,,62	건물,,32	지상,,22	대구,,17	개발,,14
국제,,58	지붕,,29	전용,,22	위원회,,17	1층,,14
산업,,46	건립,,28	관련,,21	후반,,17	10월,,14
도시,,45	해운,,26	공연장,,20	기관,,16	야외,,13
두레,,43	계획,,25	아시아,,19	비,,16	관계자,,13
리움,,43	예정,,25	사업,,19	지역,,15	사용,,13
문화,,33	조성,,24	열리다,,18	상영,,15	지구,,13
규모,,32	촬영,,24	설계,,17	육성,,15	중심,,13
센텀시티,,32	들어서다,,23	작업,,17	제작,,14	

□ 텍스트 관계망 분석



18) 정부세종청사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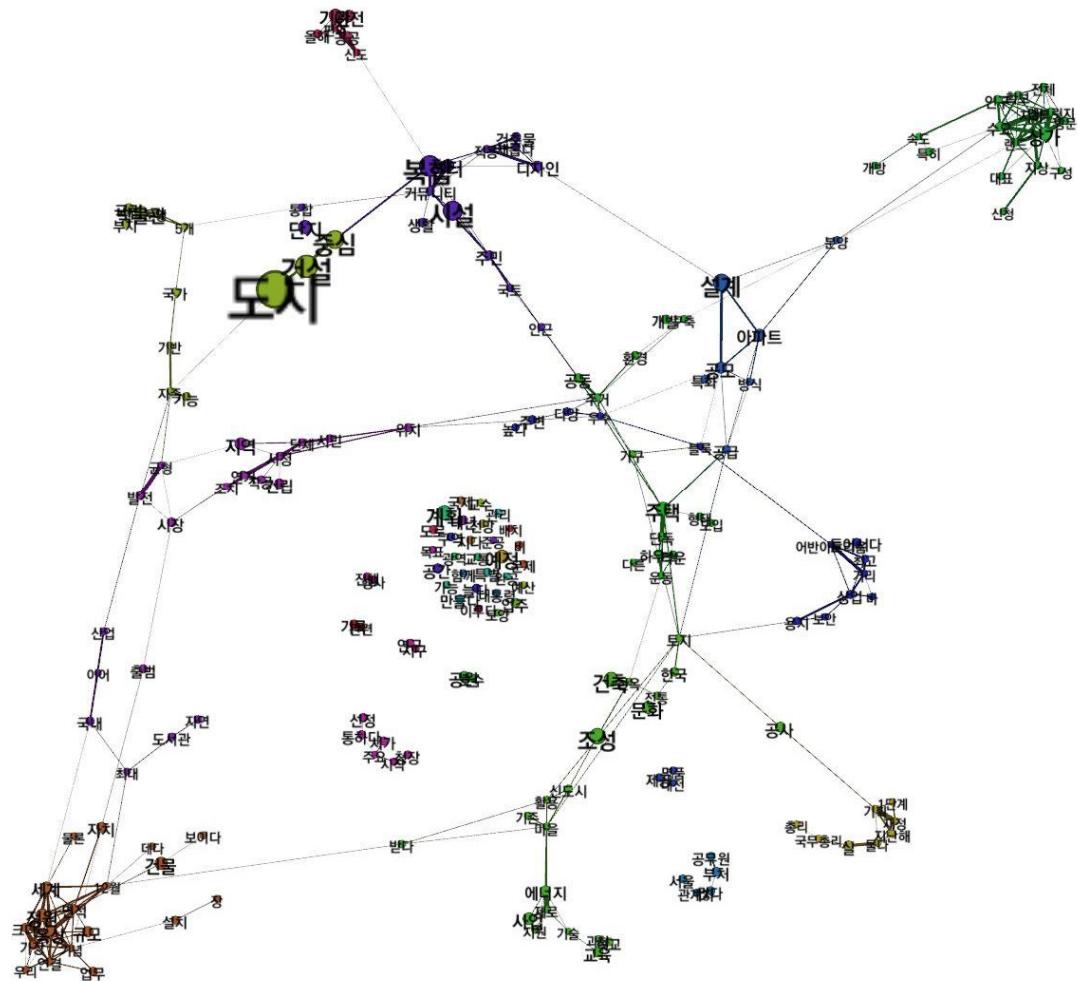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정부세종청사, 중심행정타운
- 기간 : 2011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5,274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112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112개 문단에서 38,129개의 형태소 분석
- 건설, 설계, 조성, 계획, 건축, 공모, 공사, 건립 등 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 특히 ‘디자인’, ‘에너지’ 등 건축물의 질과 관련된 단어 수가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임
- 기타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과 관련한 중앙정부 청사 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관련 단어가 다수 포함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50순위
도시,,540	단지,,131	사업,,108	공사,,78	내년,,60
건설,,289	상가,,130	울상,,105	건립,,77	건축물,,60
복합,,262	예정,,128	이전,,102	교육,,75	시장,,59
시설,,233	박물관,,122	공모,,98	자치,,74	한국,,59
중심,,212	기관,,121	아파트,,93	에너지,,71	수요,,57
설계,,192	정원,,119	세계,,91	공간,,69	기록,,57
조성,,175	센터,,119	규모,,88	주민,,68	생활,,57
계획,,151	건물,,118	국립,,84	실,,67	개발,,57
건축,,148	문화,,116	공원,,82	공동,,65	부처,,57
주택,,140	지역,,108	디자인,,80	입주,,65	인구,,56

□ 텍스트 관계망 분석



19) 여수 세계박람회장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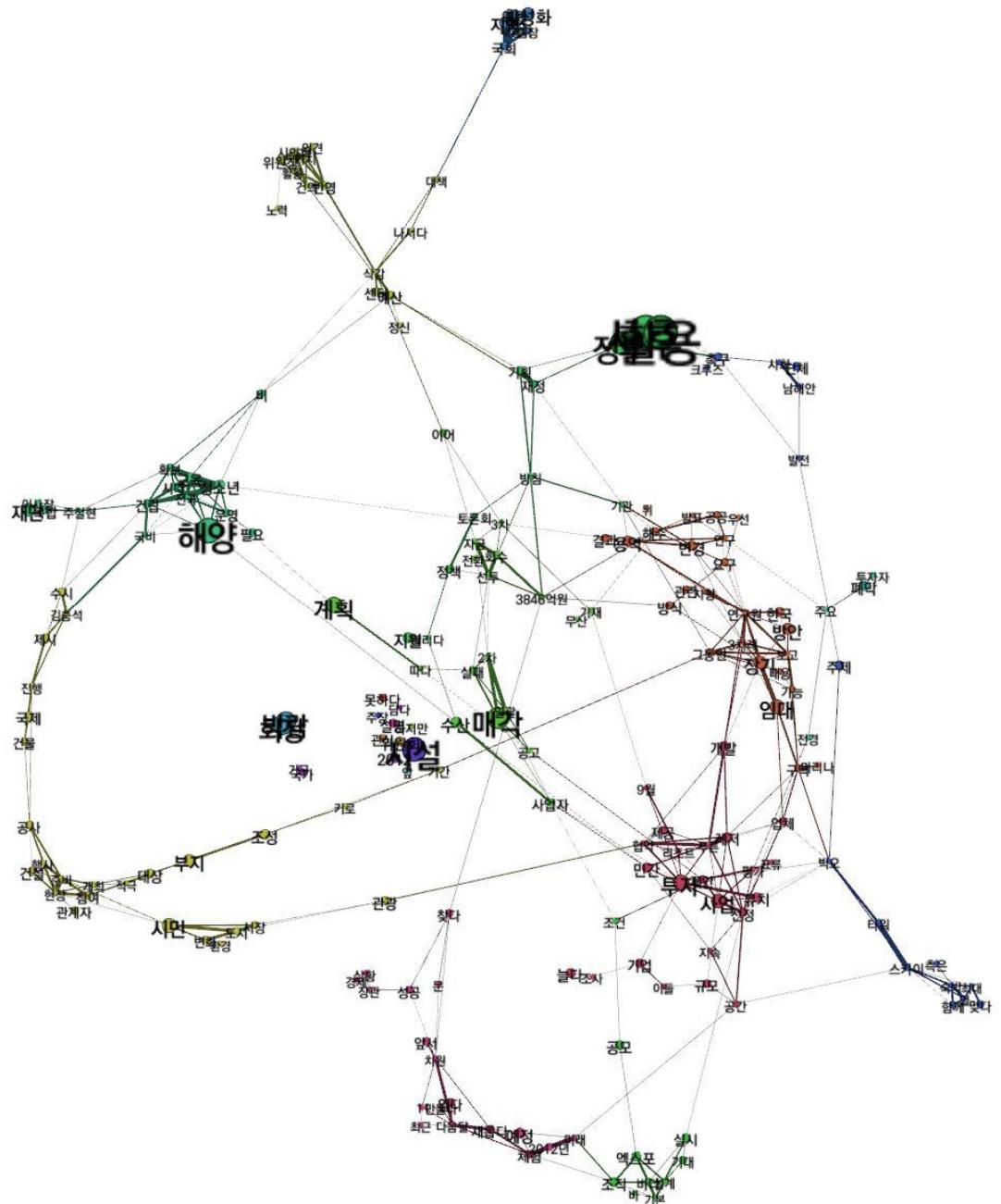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여수 세계박람회장, 여수엑스포
- 기간 : 2008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470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48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48개 문단에서 15,994개의 형태소 분석
- 계획, 조성, 건설 등 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단어는 소수
- 여수 세계박람회장 건설로 예측되는 지역개발과 활성화 관련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51순위
활용,,258	시민,,81	지원,,46	한국,,36	국제,,33
사후,,235	임대,,80	예정,,45	개발,,36	건설,,32
해양,,177	사업,,78	용역,,45	2012,,36	방식,,31
시설,,167	재단,,69	조성,,40	엑스포,,36	기업,,31
정부,,160	장기,,66	변경,,40	유치,,35	관광,,30
매각,,146	활성화,,65	청소년,,39	위원회,,35	설명,,30
회장,,129	부지,,60	민간,,39	대상,,35	국회,,29
박람,,128	지역,,58	의원,,38	교육,,34	복합,,29
계획,,102	방안,,57	폐막,,37	공모,,34	열다,,29
투자,,92	수산,,50	늘다,,36	조직,,34	예산,,29
				주제,,29

□ 텍스트 관계망 분석



20) 안중근의사 기념관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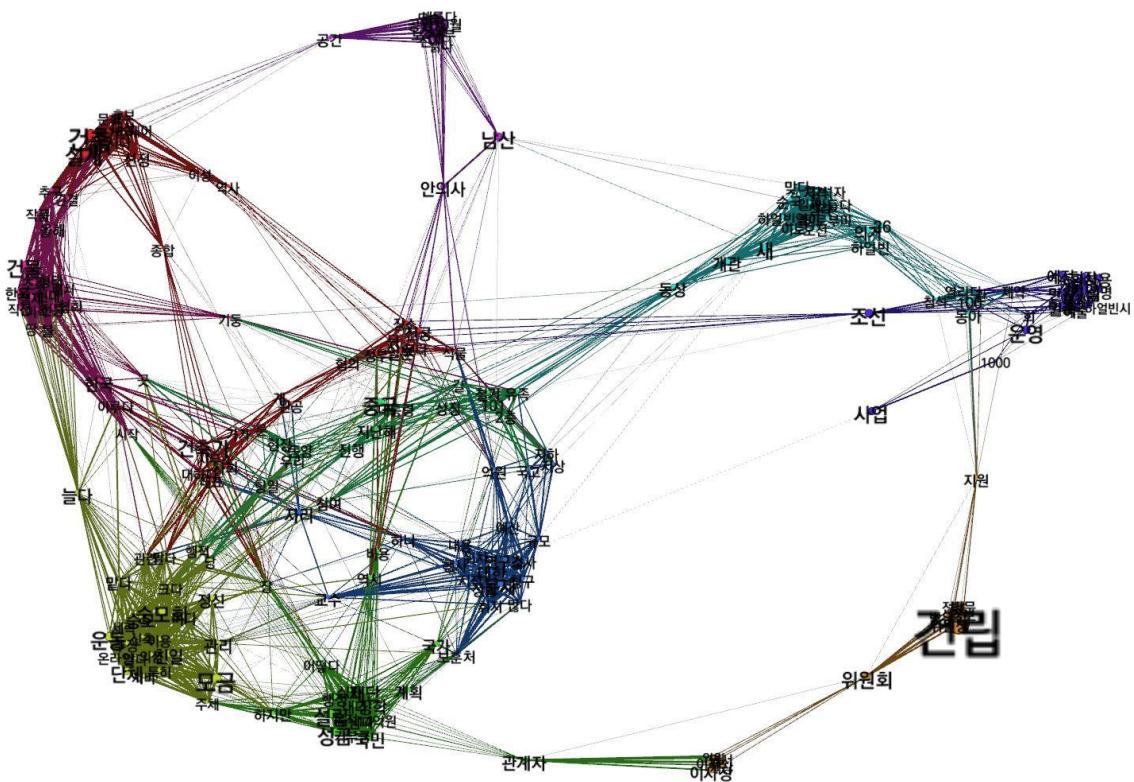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안중근의사 기념관, 안중근기념관
- 기간 : 2001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406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16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16개 문단에서 3,368개의 형태소 분석
- 건립, 건축, 설계, 개관, 계획 등 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
- 안중근의사 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 됐었던 건립모금 운동을 대표하는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45순위
건립,,58	중국,,15	늘다,,11	관리,,9	화장,,7
건축,,24	새,,14	문제,,11	안의사,,9	국가,,7
모금,,20	송모회,,14	국민,,11	송모,,9	정신,,7
설계,,18	기념,,14	민족,,10	의거,,8	26,,7
운동,,16	사업,,14	친일,,10	예정,,8	만원,,7
건물,,16	건축가,,14	대한,,9	사용,,8	
운영,,16	위원회,,14	장학,,9	개관,,8	
조선,,16	남산,,14	관계자,,9	이사장,,8	
성금,,15	단체,,13	한국,,9	동상,,7	
설립,,15	재단,,11	자리,,9	계획,,7	

□ 텍스트 관계망 분석



21) 경기도청사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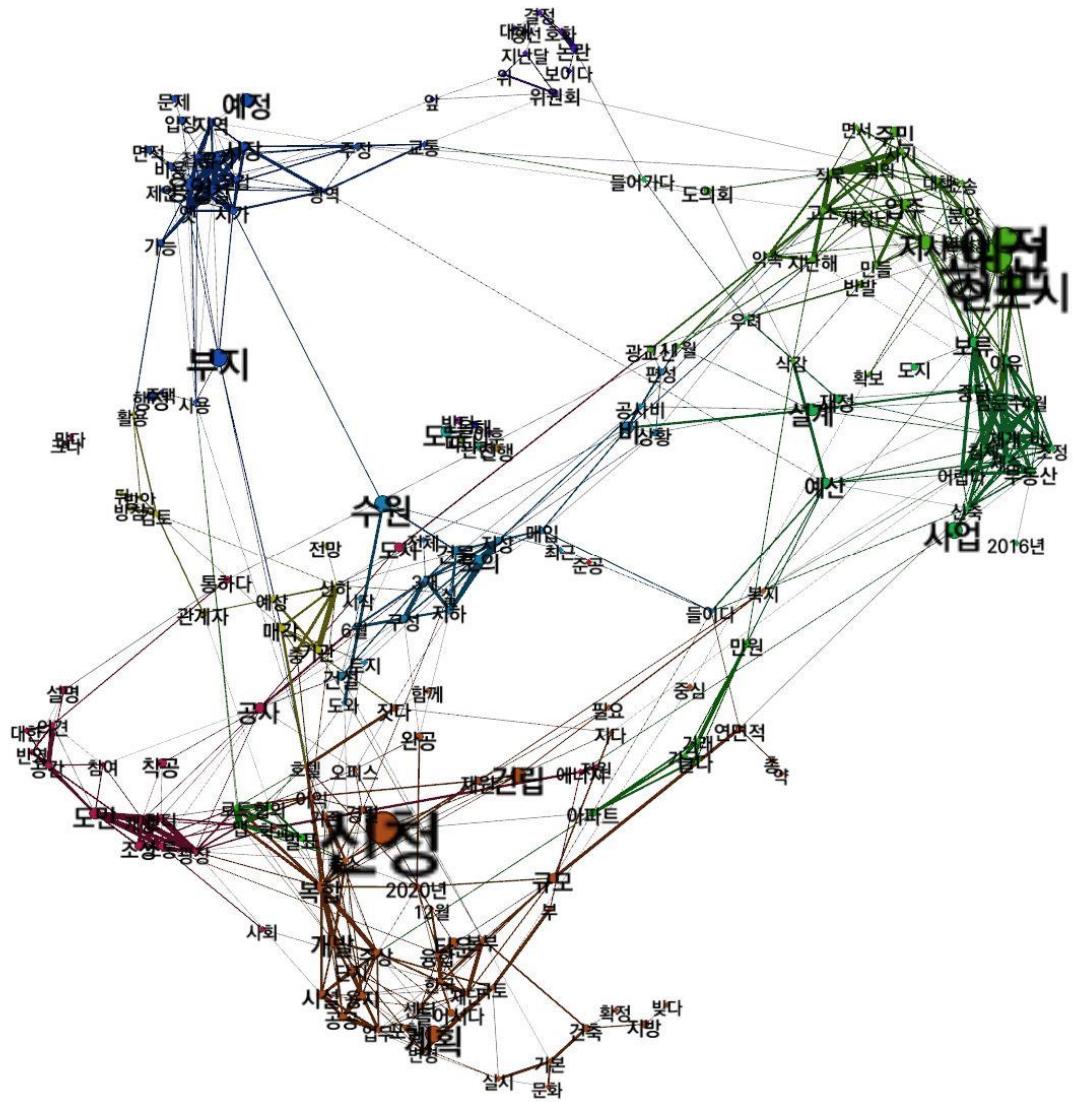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경기도청사, 경기도 신청사
- 기간 : 2001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187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95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95개 문단에서 27,461개의 형태소 분석
- 이전, 계획, 건립, 설계, 착공, 완공 등 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
- 경기도지사의 발표문을 인용한 기사로 인해 예산과 발표 관련 단어가 다수 포함
- 경기도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 됐었던 광교신도시 개발 관련 단어도 다수 포함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49순위
신청,,461	예정,,140	예산,,86	경찰,,68	부동산,,47
광교,,429	용인,,120	주민,,83	착공,,66	발표,,46
이전,,343	설계,,114	보류,,83	행정,,60	옛,,45
신도시,,274	비,,112	규모,,81	건설,,56	재원,,45
부지,,206	도는,,107	타운,,79	조성,,53	융합,,45
수원,,193	개발,,103	도의,,78	매각,,53	기관,,44
계획,,191	도민,,102	도시,,69	완공,,52	지방,,43
사업,,184	복합,,95	시설,,69	지역,,51	아파트,,42
건립,,161	공사,,91	건물,,69	재정,,50	받다,,42
지사,,152	입주,,88	시장,,68	늘다,,49	

□ 텍스트 관계망 분석



2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일간지 기사 텍스트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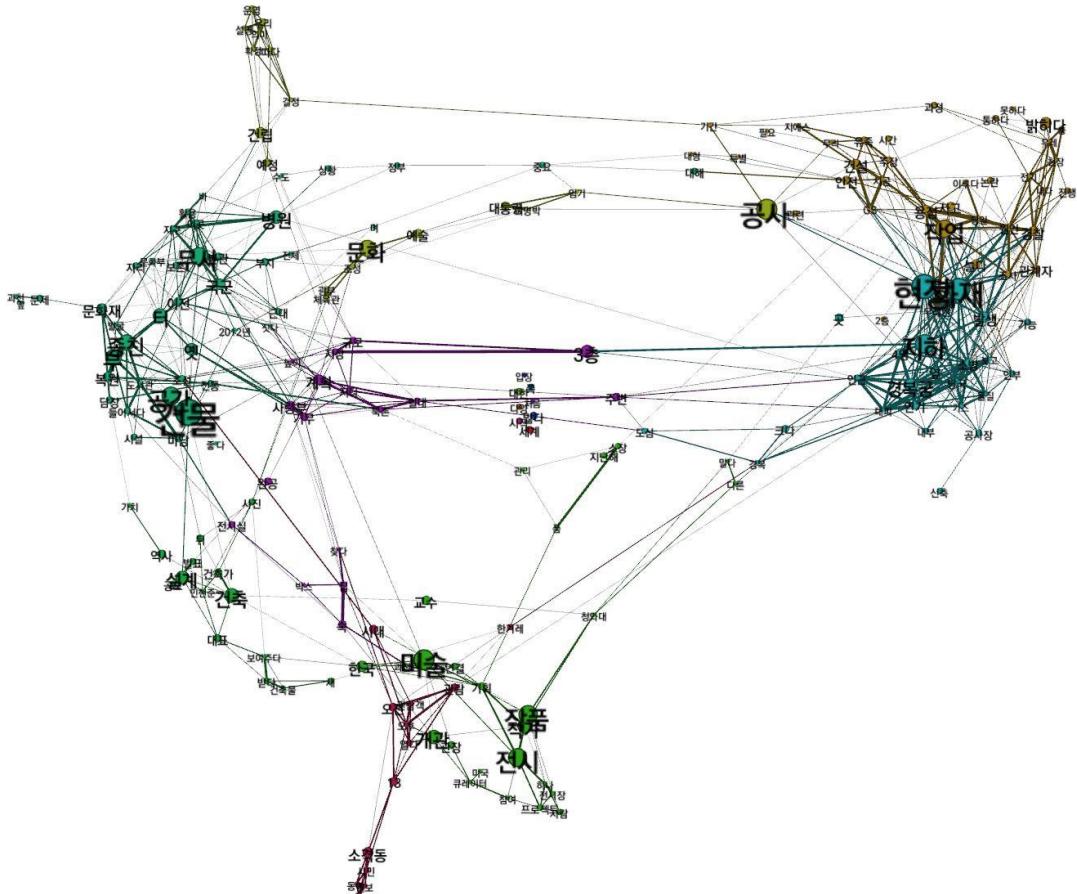
- 기사검색 키워드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기간 : 200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 검색 총 기사수 : 773건
- 건축물 조성과정 관련 선별 기사수 : 135건

□ 텍스트 빈도수 분석

- 136개 문단에서 43,288개의 형태소 분석
- 공사, 건축, 개관, 설계, 건립, 계획, 건설 등 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
- 특히 설계당선 이후 설계자 인터뷰가 여러번 다루어져 작품, 작업, 작가, 설계, 교수 등의 단어수가 상위권에 포함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시 주요 쟁점이 됐었던 옛 사령부 건물의 사용과 공사중 발생한 화재 등을 대표하는 단어가 상위권에 포함

1~10순위	11~20순위	21~30순위	31~40순위	41~50순위
건물,,288	무사,,179	병원,,123	건설,,85	사령부,,69
현장,,264	문화,,165	3층,,119	복원,,82	관계자,,69
화재,,231	부,,160	옛,,114	발생,,81	대통령,,68
공사,,216	종친,,157	밝히다,,101	경찰,,79	늘다,,68
미술,,213	건축,,138	국군,,98	용접,,78	예술,,68
지하,,197	터,,134	한국,,97	이전,,74	13,,67
작품,,194	개관,,133	건립,,93	교수,,73	옆,,66
전시,,190	작가,,130	문화재,,90	시대,,71	오전,,65
공간,,187	설계,,126	소격동,,90	안전,,70	곳,,65
작업,,181	경복궁,,123	계획,,89	사고,,69	역사,,65

□ 텍스트 관계망 분석



부록2. 3개 주요공공건축물 주요기사

Appendix 2

1. 정부종합청사(정부서울청사)
 2. 정부제3청사(정부대전청사)
 3. 정부세종청사
-

1. 정부종합청사(정부서울청사)

1. 정부종합청사 신축계획 - 5건

-정부청사조정특별회계법이 국회본회의 통과로 청사를 집약적으로 신축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총무처는 1968년 예산안에 정부종합청사 시설사업비로 16억원 계상 요구

-국무회의는 정부종합청사 부대시설 및 기타공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청사 조정특별회계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

-정부종합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자재도입비 외화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

-중앙청 건너편 우성회 자리에 대지 5천평 견건평 1만4천평의 정부종합청사 2동 신축 계획

2. 당선작 발표 - 1건

-당선작 없이 가작 3점 선정(1위 종합건축연구소, 2위 염덕문건축연구소와 나상진건축 연구소)

3. 설계 확정 - 2건

-총 건평면적 7천6백평, 총공사비 21억1천3백여만원, 지상 16층, 지하 3층, 옥상탑 3층 등
총 22층으로 우리나라 최대 건물로 계획

-나상진의 설계를 채택

-정부종합청사 신축 예정대로 진행하며 설계사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해약 고려

4. 국내기술진에 대한 불신과 설계변경 - 23건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가의 설계를 무시하고 외국업자와 수의계약을 고려중이라는
처사에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와 이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는 총무처로부터 기술의 불신을 받았던 나상진건축설계사무소의 정부
종합청사설계대로 공사를 진행시켜달라는 건의서 제출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종합청사 신축대책위원회를 구성, 기술 검토 등 이론적 투쟁을
전개할 방침

-설계자와의 합의 없이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약 등의 이유로 설계와 공법을 일부
변경해서 공사를 진행

-현상당선된 나상진씨의 설계를 물리치고 미국의 PEA사의 설계를 채택한 총무처의 처
사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는 토론회 등 개최

-정부종합청사 설계변경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설계변경에 이어 공사감리를 외국인에게 맡긴데 대해 국내건축업계가 반대성명과 공
청회 성토 등 개최

-국내 설계사와 설계를 계약, 본설계까지 완료, 납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이유 표명도 없이 특정 외국인에게 설계를 맡겨 신축하려는 움직임에 업계의 심한 반발
과 의혹 제기

-정부종합청사 신축에 입선되었던 국내업자의 설계를 미국의 PAE인터내셔널 사와 설
계를 포함한 용역전반에 관한 수의 계약할 방침

-건축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매트파운데이션 공법에 의하면 지하기초공사가 불안정해
기초공사의 안전도를 위해 케이존피아식 공법으로 설계 변경 검토중

5. 정부종합청사 건설과정 - 16건

- 내부 칸막이 설치공사 공사 발주(한일개발과 수의계약)
- 공사중 일하던 일부 사망 및 추락 사고
- 정부청사 자재 관세 문제
- 한국조명공협은 정부종합청사에 사용할 조명기구류는 동조합과의 계약에 의해 조달 토록 해줄 것을 당국에 강력히 건의
- 정부종합청사 신축용 대리석을 구매하기 위한 국제입찰을 실시한다고 공고
- 정부종합청사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중단 상태
- 주변 건물과 균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건축물
- 국회내무위는 국정감사에서 정부종합청사 매년 예산의 증액으로 당초 설계의 과오가 드러나 국고낭비 초래하고 있는 점등을 중적적으로 추궁
- 일본의 호전건설이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정부종합청사의 공사관리에 진출
- 정부종합청사 내장공사로 수의계약에 의해 신고한 풍전산업에 내장용 관급자재를 설계서에 계상된 수량외에 네 개 종목을 더주고 공사가 끝날때까지 미회수 감사원 감사
- 조달청은 총무처에 정부종합청사 자재 6개 품목의 국제구매입찰을 실시한다고 공고
- 총무처는 정부종합청사신축공사용 건설장비 구입수의계약안을 재무부에 동의 요청
- 정부종합청사 제1차년시설공사 입찰 결과 평화건설에 낙찰

6. 정부종합청사 준공 - 8건

- 내무부, 상공농림부, 문교부, 보사부, 체신부, 건설부, 과학기술청 등 8개 부처 입주
- 박대통령을 비롯해 산부요인과内外인사 다수 참석
- 단일건물로는 국내최대이며 총 25층으로 착공 3년5개월만에 준공

7. 시설 미비 및 잇달은 사고 발생 등 문제점 - 34건

- 화재발생의 경우 수용인원에 비해 빈약한 화재대피시설, 화재발생시 유해가스 흡수시설 미비, 주차장설치기준의 1/2밖에 갖추지 않은 주차장계획 등

- 내부시설이나 엘리베이터 등 시설이 미비된 채 개관
- 건축법규에 어긋난 건물 혀가, 엘리베이터 고장 등
- 방화구획 미설치, 옥내소화전 가동 불가능, 소화기구 미구비 등 소방시설 미비
- 엘리베이터, 전화가설, 변소간막이 등 내부시설 미비로 입주 부쳐 이전 작업, 행정, 사무집행등에 혼란 발생
- 준공을 서두른 탓에 방화대책 부재, 환기시설 영망, 불합리한 배치 등 문제 발생
- 건물구조와 평면기능배치 등 기본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건축전문가들 진단
- 정전 소동 발생
-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직원 중상
- 개관이후 건축, 설비에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청사기술관리자문위원회 구성
- 주요건축물 한수이남에 옮겨지는 수도권소산 계획에 어긋나며 정부 긴축재정과 관련 고층건물을 억제키로한 방침 역행
- 구조면에서 콘크리트 기둥을 스텁빔으로 연결시킨 것은 고층건물에 필요한 신축성이 없어 미진이나 포성등 충격에 약함
- 비상계단 미비로 화재시의 비상탈출이 어려움
- 국산을 외면하고 외국산 자재 도입으로 건축비 증가
- 가용사무실면적 70%, 공유면적 30%로 현대건축양식상 불합격이라는 논평
- 엘리베이터 추락사고의 책임을 물어 조정기술자 파면하고 청사관리사무소기획과장 견책조치

8. 사용 중 개선 사항 - 12건

- 청사내 소방시설과 방화대책 간구
- 옥외 비상계단설치 계획
- 서울시 공해방지시설 요청
- 사무실 일부 진동(냉각수 파이프등으로 지하3층에서 1백m 높이 까지 끌어올릴 때 발생하는 진동)에 따라 건물빔이 흔들림 보완

- 정부종합청사의 신축에 따른 정부청사관리업무를 보강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사무소
직제안을 의결
- 종합청사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다 원활한 청사관리를 위해 정부종합청사
기술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매일 1회 모임)
- 화재보험 가입(43억6천7백만원)
- 정부의 에너지소비절약대책 실천되면서 전기 및 유류 절감대책 수립

9. 중앙청과 정부종합청사 사이 지하도 건설 - 12건

- 중앙청 일대이 교통안 해소와 각 부처간의 업무 능률 향상 및 비상시 대피소로 이용 가능
- 지하도 착공 및 개통
- 공사로 인한 버스 노선 변경

10. 정부청사 종합계획 -2건

- 세종로 일대를 관아가로 만들려던 종합계획 무기한 연기라는 형태로 무산;수도권 인구
집중억제책, 환율의 변동과 세차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중공일의 연기 등
영향

2. 정부제3청사(정부대전청사)

1. 제3청사 신축 계획(1984) -2건

-과천제2청사 3,4호동이 완공되는 85년 정부제3청사를 신축할 방침

-경제기획원 자리에 정부제3청사 부지로 확정

2. 제3청사 대전 건립(1990) -5건

-정부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 발정을 이루는 방안의 하나로 대전시 둔산동에 정부 제3청사를 세워 조달청, 관세청, 공업진흥청 등 11개청 단위 국가기관 을 96년까지 이전

-둔산동 9만5천평의 대지를 매입, 연간 평 4만7천평 규모로 1991년중으로 청사설계를 마친뒤 92년에 공사를 시작해 95년말까지 청사건설을 마무리 지을 계획

-건립에 소요될 총예산을 2천1백억원으로 산정

-공무원 봉급 10%내 인상으로 대전 제3청사 등 신축계획 일단 연기

3. 제3청사 설계안 확정 -3건

-정부제3청사 설계공모에 응한 40점의 작품 가운데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 을 최종 선정

-설계안은 지상 20층의 고층건물 4개동을 마름모꼴로 배치, 동서남북 어느쪽에서도 같은 모양이 되도록 계획

4. 제3청사 착공 -11건

-착공시기를 놓고 총무처와 대전시의 발표가 엇갈려

-조달청은 정부제3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 일정을 확정, 8월 초 착공

-엑스포 남문주차장 건너편 부지 15만 9천평에 지하2층, 지상 20층, 연면적 6만8천평 규모로 건립, 총사업비 3천3백여억원 투입

5. 제3청사 공사 발주 -4건

- 단일공사론 최대 규모로 공사를 따기 위한 건설업체간 수주전이 본격화
- 신축공사 시공업체로 선경건설, 현대건설,(주)대우 등 3개사와 공동 응찰한 서광산업이 선정

6. 제3청사 불법시공 -1건

- 총무처가 토지소유주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

7. 제3청사 건립과정 -3건

- 1996년 1월 30%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공사가 한창 진행
- 1997년 4월 70%의 공정률을 보이며 1997년 12월 준공을 위해 내부공사와 조경공사 진행

3. 정부세종청사

1. 세종청사 전쟁대비시설 부족 -1건

-정부세종청사의 전쟁대비시설(충무시설)이 규정의 절반에도 못 미쳐 갑작스런 재난·전쟁 등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행정기능 마비 등 우려

2. 세종청사 주변 주요시설 완공 -1건

-중앙호수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완공

3. 세종청사 부실시공 문제 -4건

-농림수산식품부 장차관실 등 수차례 물난리가 나자 청사 안팎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 시공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 제기

-새로 지은 건물에서 물이 새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 빈번하게 누수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준공검사 등 건물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4. 세종청사 부실설계 제기 -2건

-청사에 인접한 상업용지가 중요한 정보보안에 취약하다는 판정을 받자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 행복청은 LH공사로부터 청사 인접 상업용지 42만m²(12만7050평) 중 7만5000m²(2만2687평)를 500억원에 매입해 지상용 주차장 공간으로 조성

-정부청사가 보안시설이라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외부에서 옥상 정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1동 입구 건물은 완성된 채로 폐쇄

-세종청사 건물에 대한 보안 문제도 수시로 지적

5. 세종청사 10리 청사 -8건

-세종청사는 서울청사처럼 높이 솟은 벌딩형 건물이 아니라 4층 높이에 'U'자형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데, 그 길이가 10리(3.9km)에 근접한 3.5km이기 때문

-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국내에서 가장 넓은 옥상정원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데 이어 세계 최고 기록에 도전
- 세종청사 옥상 정원을 구경하기 위한 절차는 까다로운 편: 관람 시기 3~6월, 9~12월로 제한. 방문 시간은 평일 두 번(오전 10시와 오후 2시), 토·일·공휴일은 관람이 불가능. 1회 최대 방문객은 50명, 관람 시간은 40분.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 (chungsa.go.kr)를 통해 신청서 제출, 현장에선 보안검색을 거친 다음 안내원과 함께 정원을 돌아볼 수 있으며 개방된 구간은 전체 3.6km 중 1.4km
- 정부세종청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옥상정원(Largest rooftopgarden)'으로 기네스북에 등재: 행정자치부 기념 표지석 설치

6. 세종시 청사와 교육청사 완공 -1건

- 세종시 청사와 교육청사 예산이 각각 205억원과 100억원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이뤄진다면 당초 계획했던 일정내에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